

국립국어원 2010-01-6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270-01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주관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연구책임자 : 양 정 환 책임연구원
연 구 원 : 양 소 연 선임연구원
신 성 혜 선임연구원
이 석 진 주임연구원
안 수 정 주임연구원

요 약 문

◆ 연구 용역 목적

본 용역 연구는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라는 제목 아래 수행된 것으로 2005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5년의 시간동안 국민의 언어의식이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많이 변했을 것이다. 본 용역은 언어의식에 대한 전반적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전체적 의식 파악이 가능하다.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관찰 및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국어 정책 입안 및 언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연구 용역 방법

본 연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 ① 조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에 맞게 표본설계를 한다.
- ② 이전 조사(2005년)에서 정했던 지표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한다.
- ③ 면접원 교육을 통해 본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 ④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 ⑤ 조사된 자료를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정리·분석한다.
- ⑥ 본 연구 용역과 유사한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 연구 용역 내용

번 호	영 역	조 사 항 목
1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국어에 대한 관심 / 관심 분야 / 국어에 대한 인식
2	언어사용	언어사용 / 경어 / 비속어 / 표준어와 방언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 대중매체의 언어 / 외국문자 사용
3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국어교육 / 한자교육 / 외국어교육 / 어문규범 / 언어정책
4	해외사례	일본 및 중국

Abstract

◆ Purposes of Research

This Research, 'People's sense of language in 2010', was conducted in 2nd wave in this year after 1st wave in 2005. Part of the sense of language would be changed although there would be the part which was not changed for past 5 years. It is possible to apprehend the people's overall sense of the language as this research covered the sense of language generally.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the basic material for planning future Korean policy and vitalizing study of language by gathering the data which enable to observe and trace the change of sense of language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of people's sense of language and real condition of the language usage.

◆ Methods of Research

This research will be conducted by the method as below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 ① Sample design would be done by follow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target population
- ② Modify and complement the index which was decided from the 1st wave(in 2005) by expert meeting
- ③ Improve the Interviewer's understanding as for this research by the education of interviewers
- ④ Conduct this research based on the guidelines
- ⑤ Summary and Analyze the data by statistical treatment
- ⑥ Search and Analyze the foreign cases which are similar with this research

◆ Contents of Research

Number	Area	Contents
1	Interest and critical mind toward Korean	Interest in Korean / Interest area / Impression toward Korean
2	Language usage	Language usage / honorific / vulgarism /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 / loanword, foreign and purified language / Language of Mass Communication / Usage of foreign characters
3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policy	Korean education / Chinese character education / Foreign language education / Standards of Language) / Language policy
4	Foreign cases	Japan and China

●●● 목 차 ●●●

I.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설계	3
3. 주요 조사 내용	4
1) 설문지 개정 방향	4
2) 설문지 개정 내용	4
3) 2010년 주요 조사 내용	8
4. 표본 설계	10
1) 모집단	10
2) 표본 추출	10
5. 실사	12
1) 실사 개요	12
2) 표본 관리	12
3) 면접원 관리	12
6. 자료 입력 및 처리	13
1) 자료 검증 및 대체	13
2) 자료 입력 및 분석	14
7. 응답자 특성	15
II. 조사 결과	17
1. 총론	19
1.1. 조사 설문지 내용	19
1.2. 2010년 조사 결과 개요	19
①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19
② 언어 사용	20
③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22
1.3. 보완점 및 개선점	23
2.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24
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24
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26
3)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 평가	28
4) 아름다운 우리말(국어)에 대한 기준	30
5)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	32
6)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국어 영역	34

3. 언어 사용	36
① 언어 사용	36
1)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36
2) 자신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39
② 경어	41
1)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일반 인식	41
2) 가정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46
3) 직장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49
4) 학교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1
5) 기타 직업별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3
6) 말끝의 경어 정도에 대한 의견	55
7)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현들에 대한 의견	56
③ 비속어	58
1)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정도	58
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60
3)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62
4)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64
5)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66
6)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68
④ 표준어와 방언	70
1)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	70
2)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2
3)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73
4)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5
5)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7
6)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79
7)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81
8) 장래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83
9)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84
10) 표준어 구사 정도	86
11) 표준어 교육	88
⑤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90
1)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90
2)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92
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94
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96
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	98
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100
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102
8) 순화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104

⑥ 대중매체의 언어	106
1)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106
2)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109
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111
⑦ 외국 문자 사용	114
1)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상	114
2)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선호도	116
3)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기관이름/신문지면	118
4)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상표이름/물건지칭	120
4.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122
① 국어 교육	122
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	122
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	124
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126
4)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	128
5)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 순위	130
6)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132
7)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134
8)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136
② 한자 교육	138
1) 우리나라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138
2)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140
③ 외국어 교육	142
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142
2) 영어 마을에 대한 견해	144
3)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146
④ 어문 규범	148
1) 어문 규범 인지도	148
2)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150
⑤ 언어 정책	152
1) 우리말(국어) 능력 종합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152
2) 국어문화원 인지도	154
3) 국어문화원 이용 희망 형태에 대한 의견	156
4)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국어사전	158
5)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외국어사전	160
6)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기타사전	162
7)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163
8) 주로 사용하는 사전	165
9)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	167

● ● ● 표 목 차 ● ● ●

10) 북한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	169
11) 북한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71
12)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173
13)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	175
1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177
15)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179
Ⅲ. 해외 사례	183
일본의 언어 의식 조사	185
1. 문화청,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	186
1-1. 1기 : 1995년~1999년	186
1-2. 2000년~2004년	193
1-3. 2005년~2009년	199
1.4. 문화청 조사의 정리	202
2.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	203
2-1. 상용한자표	203
2-2. 외래어	205
2-3. 행정용어	213
2-4. 병원 전문용어	215
3. 정리 및 앞으로의 제안	218
中國의 言語政策과 言語調査	219
1. 들어가는 말	219
2.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 2007》	219
1)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연구기간	220
2)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연구의 중요성과 구체적 내용	222
3. 정리하는 말	234

설문지

<표 1-1-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25
<표 1-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27
<표 1-1-3>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 평가	29
<표 1-1-4> 아름다운 우리말(국어)에 대한 기준	31
<표 1-1-5>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	33
<표 1-1-6>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국어 영역(1순위)	35
<표 2-1-1>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38
<표 2-1-2> 자신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40
<표 2-2-1>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일반 인식	45
<표 2-2-2> 가정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48
<표 2-2-3> 직장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0
<표 2-2-4> 학교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2
<표 2-2-5> 기타 직업별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4
<표 2-2-6> 말끝의 경어 정도에 대한 의견	55
<표 2-2-7>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현들에 대한 의견	57
<표 2-3-1>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정도	59
<표 2-3-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61
<표 2-3-3>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63
<표 2-3-4>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65
<표 2-3-5>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67
<표 2-3-6>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69
<표 2-4-1>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	71
<표 2-4-2>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2
<표 2-4-3>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74
<표 2-4-4>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6
<표 2-4-5>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8
<표 2-4-6>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80
<표 2-4-7>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82
<표 2-4-8> 장래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83
<표 2-4-9>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85
<표 2-4-10> 표준어 구사 정도	87
<표 2-4-11> 표준어 교육	89
<표 2-5-1>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91
<표 2-5-2>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93
<표 2-5-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95
<표 2-5-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97
<표 2-5-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	99
<표 2-5-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101
<표 2-5-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103

●● 그림 목 차 ●●

<표 2-5-8> 순화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105
<표 2-6-1>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108
<표 2-6-2>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110
<표 2-6-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113
<표 2-7-1>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상	115
<표 2-7-2>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선호도	117
<표 2-7-3>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기관이름/신문지면	119
<표 2-7-4>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상표이름/물건지칭	121
<표 3-1-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	123
<표 3-1-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	125
<표 3-1-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127
<표 3-1-4>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	129
<표 3-1-5>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 순위(1순위)	131
<표 3-1-6>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133
<표 3-1-7>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135
<표 3-1-8>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137
<표 3-2-1> 우리나라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139
<표 3-2-2>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141
<표 3-3-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143
<표 3-3-2> 영어 마을에 대한 견해	145
<표 3-3-3>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147
<표 3-4-1> 어문 규범 인지도	149
<표 3-4-2>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151
<표 3-5-1> 우리말(국어) 능력 종합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153
<표 3-5-2> 국어문화원 인지도	155
<표 3-5-3> 국어문화원 이용 희망 형태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157
<표 3-5-4>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국어사전(복수응답)	159
<표 3-5-5>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외국어사전(복수응답)	161
<표 3-5-6>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기타사전(복수응답)	162
<표 3-5-7>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복수응답)	164
<표 3-5-8> 주로 사용하는 사전	166
<표 3-5-9>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	168
<표 3-5-10> 북한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	170
<표 3-5-11> 북한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72
<표 3-5-12>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174
<표 3-5-13>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	176
<표 3-5-1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178
<표 3-5-15>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180
<표 3-5-16>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 계속	181

<그림 1-1-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24
<그림 1-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27
<그림 1-1-3>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 평가	29
<그림 1-1-4> 아름다운 우리말(국어)에 대한 기준	31
<그림 1-1-5>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	33
<그림 1-1-6>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국어 영역	34
<그림 2-1-1>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37
<그림 2-1-2> 자신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40
<그림 2-2-1>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일반 인식	44
<그림 2-2-2> 가정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48
<그림 2-2-3> 직장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0
<그림 2-2-4> 학교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2
<그림 2-2-5> 기타 직업별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54
<그림 2-2-6> 말끝의 경어 정도에 대한 의견	55
<그림 2-2-7>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현들에 대한 의견	56
<그림 2-3-1>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정도	58
<그림 2-3-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60
<그림 2-3-3>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62
<그림 2-3-4>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64
<그림 2-3-5>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66
<그림 2-3-6>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68
<그림 2-4-1>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	70
<그림 2-4-2>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2
<그림 2-4-3>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73
<그림 2-4-4>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5
<그림 2-4-5>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77
<그림 2-4-6>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80
<그림 2-4-7>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81
<그림 2-4-8> 장래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83
<그림 2-4-9>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84
<그림 2-4-10> 표준어 구사 정도	86
<그림 2-4-11> 표준어 교육	88
<그림 2-5-1>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90
<그림 2-5-2>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92
<그림 2-5-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94
<그림 2-5-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96
<그림 2-5-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	98
<그림 2-5-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101
<그림 2-5-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102

<그림 2-5-8> 순화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104
<그림 2-6-1>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107
<그림 2-6-2>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109
<그림 2-6-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112
<그림 2-7-1>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상	115
<그림 2-7-2>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선호도	117
<그림 2-7-3>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기관이름/신문지면	119
<그림 2-7-4>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상표이름/물건지칭	121
<그림 3-1-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	122
<그림 3-1-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	124
<그림 3-1-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126
<그림 3-1-4>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	128
<그림 3-1-5>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 순위	130
<그림 3-1-6>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132
<그림 3-1-7>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134
<그림 3-1-8>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137
<그림 3-2-1> 우리나라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138
<그림 3-2-2>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140
<그림 3-3-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142
<그림 3-3-2> 영어 마을에 대한 견해	144
<그림 3-3-3>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146
<그림 3-4-1> 어문 규범 인지도	149
<그림 3-4-2>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150
<그림 3-5-1> 우리말(국어) 능력 종합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153
<그림 3-5-2> 국어문화원 인지도	154
<그림 3-5-3> 국어문화원 이용 희망 형태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157
<그림 3-5-4>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국어사전(복수응답)	158
<그림 3-5-5>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외국어사전(복수응답)	160
<그림 3-5-6>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기타사전(복수응답)	162
<그림 3-5-7>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복수응답)	163
<그림 3-5-8> 주로 사용하는 사전	165
<그림 3-5-9>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	167
<그림 3-5-10> 북한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	169
<그림 3-5-11> 북한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71
<그림 3-5-12>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173
<그림 3-5-13>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	175
<그림 3-5-1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177
<그림 3-5-15>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179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
-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언어 의식의 변화를 관찰·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국어 정책 입안 및 언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설계]

① 조사 대상	○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② 유효 표본	○ 총 5,000표본
③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pm 1.4\%p$
④ 조사 방법	○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가구당 1명 조사)
⑤ 조사 기간	○ 2010년 07월 06일 ~ 08월 06일
⑥ 조사 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3. 주요 조사 내용

1) 설문지 개정 방향

- 2005년도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개정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 가) 질문지의 표현을 보다 명료하게 다듬었다.
- 나) 순위에 더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다) 조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을 추가하였다.

2) 설문지 개정 내용

- 문항 별로 실제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내용에서 '국어'(2005년)를 '국어와 국어 사용'(2010년)으로 수정하였다. - '국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문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에 더해 각 항목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어진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2005년 조사에서는 우선순위 1, 2위만 조사한 바 있다. - '고유어' 항목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어휘 사용'(2005년)을 '적절한 어휘 사용'(2010년)으로 수정하였다. - 2005년 설문지의 7~9항을 삭제하였다. 7~9항은 외래어, 외국어, 은어, 비속어, 신조어, 유행어 사용에 대한 것인데 이는 '국어' 사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중간 제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행동과 언어 사용'(2005년)을 '언어 사용'(2010년)으로 수정하였다.
문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사람들의 언어 행동'(2005년)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사용'(2010년)으로 수정하였다. 응답자 '주위'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언어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질문하였다. - 설문 내용의 각 어미를 수정하였다. - 예) '말하는 속도가 빨라졌다'(2005년)에서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2010년)로 수정하였다. - 설문 내용에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구 분	내 용
문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언어 행동'(2005년)을 '자신의 언어 사용'(2010년)으로 수정하였다. 전체적인 용어를 통일하였다. - 설문 내용을 문5)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단, '말투가 거칠다는 말을 듣는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 쓴다',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개인 질문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7)~문13)은 영어에 대한 것인데, 2005년 설문지의 내용 즉 2010년 설문지의 문7)~문11)에 더해 영어법 체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문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7)~문13)은 영어에 대한 것인데, 2005년 설문지의 내용 즉 2010년 설문지의 문7)~문11)에 더해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영어 표현에 대한 영어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문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의 12-1) 문항에 해당하며, '습관적으로'를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청소년의 비속어, 욕설 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청소년의 비속어, 욕설 사용을 용인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준어 사용 화자가 방언에 대해 갖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스럽게'(2005년)를 '긍정적으로'(2010년)로 수정하였다. '자랑스럽게...않는다'(2005년)를 '부정적으로'(2010년)로 수정하였다.
문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방언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문17-1)에 맞추어, 방언 사용 화자가 표준어에 대해 갖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가지므로 존속되어야 한다'(5번) 응답 항목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바란다, 대체로 바라는 편이다'(2005년) 등의 내용을 '표준어만 구사하기를 바란다, 방언만 구사하기를 바란다'(2010년) 등으로 수정하였다.
문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의 응답 항목을 추가하였다.
문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준어 구사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구 분	내 용
문23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준어 교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25	-. ‘알아듣기 어려워 좋지 않다, 역겨운 느낌이 든다’(2005년)를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유치해 보인다’(2010년)으로 수정하였다.
문26	-. ‘느낌이 드므로’(2005년)를 ‘느낌이 있기 때문에’(2010년)로 수정하였다.
문27	-. [보기]의 예를 일부 수정하였다. -. 응답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응답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문28	-. 질문 문장에 예시를 추가하였다. 해당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응답자의 이해를 도왔다. -. ㉔, ㉕ 응답 내용을 수정하여 다듬었다.
소제목 수정	-.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2005년)을 ‘대중매체의 언어’(2010년)로 수정하였다.
문30	-. 2005년 조사의 ‘㉔~㉕’ 응답 내용 순서를 수정하였다. -. 2005년 조사의 ‘㉔’ 응답 내용을 삭제하였다. 대신 2010년 조사의 ‘㉔~㉕’ 응답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방송 언어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31	-. 질문 문장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내용을 추가하였다. -. [보기]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8253’이 추가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통신 언어를 [보기]에 반영하였다. -. 응답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간명한 표현으로 다듬었다.
문32	-. 응답 내용 가운데 ‘통신언어를 대화 등 일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2010년)를 추가하였다.
문33	-. 응답 내용 가운데 ‘외국어를 한글로 쓴 간판’(2010년)을 추가하였다.
문34	-. 응답 내용 가운데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2010년)를 추가하였다.
문35-1	-. [보기]에 ‘EBS’를 추가하여 [보기]의 수를 늘렸다. -. ‘케이비에스, 엠비시, 이비에스’ 형식의 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다.
문35-2	-. ‘Sports, 스포츠’(2005년)를 ‘Economy, 경제’(2010년)로 수정하였다. -. ‘컬쳐, 오피니언, 이코노미’ 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다.
문35-3	-. [보기]에서 ‘VALLY, 발리’(2005년)를 삭제하였다.

구 분	내 용
소제목 수정	-. ‘국어 능력 및 국어 교육’(2005년)을 ‘국어 교육’(2010년)으로 수정하였다.
문36-1	-. ‘3개 선택’의 설명을 추가하였다. 질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문36-2	-. ‘전자 사진을 찾아본다’(2010년)를 추가하였다. 이전에 비해 전자 사진의 사용이 늘어났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문37	-. 질문 내용에 ‘저하되고 있다’(2005년)를 ‘떨어지고 있다’(2010년)로 수정하였다. 질문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다듬었다.
문37-1	-. 질문 내용에 ‘저하되고 있다’(2005년)를 ‘떨어지고 있다’(2010년)로 수정하였다. 질문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다듬었다. -. ‘책이나 신문에 나온 한자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능력’(2005년)에서 ‘어느 정도’를 삭제하였다. 보다 명료한 표현으로 다듬었다.
문39	-. ‘시대에 뒤떨어지고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을 받았다’(2005년)를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2010년)로 수정하였다. -.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2010년)를 추가하였다.
문40	-. 문1-1)의 가)항 참조
문44	-. 질문 내용을 다듬어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문45	-. 응답 내용에서 ‘유럽어’(2005년)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2010년)로 따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 응답 내용에서 ‘아랍어’를 추가하였다.
문46	-. 질문 내용을 다듬어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문49	-. ‘국어상담소’(2005년)를 ‘국어문화원’(2010년)으로 수정하고 표현을 다듬었다. 명칭 수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질문 항목을 추가하였다.
문50	-. 문49)의 가)항 참조 -. ‘이용할 의향이 없다’ 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다.
문51-1	-. 응답 내용에서 ‘국어대사전 시디롬’(2005년)을 삭제하였다. 반면 ‘전자 사전’(2010년)을 추가하였다. 예전에 비하여 전자 사전의 사용이 늘어났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옥편’(2005년)을 ‘한자 사전(옥편)’(2010년)으로 수정하여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문51-2	-. ‘한영사전’(2010년)을 추가하였다.
문52	-. 질문 내용을 다듬어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문53	-. 2005년 조사에서 없었던 문항을 추가하였다. 사용하는 사전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문54-2	-.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2010년)를 추가하였다.
문55	-.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만든다’(2005년)를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회한다’(2010년)로 수정하였다.

3) 2010년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및 관심 분야 ·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 및 아름다운 국어의 기준 · 우리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언어 사용	언어 사용	· 주변인 및 자신의 평소 언어 행동에 대한 인식
	경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 상황별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가정/ 직장/ 학교/ 직업별 상황) · 말끝의 경어 정도에 대한 인식 ·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인식
	비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및 사용·비사용 이유 ·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및 그들을 그냥 두는 이유 · TV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식
	표준어와 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방언 사용 실태 및 방언 사용에 대한 인식 · 표준어·방언 사용의 바람직한 방향 · 방언 존속에 대한 의견 · 자녀의 표준어 구사 희망 정도 · TV 출연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식 · 자신의 표준어 구사 능력과 교육 정도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및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 ·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 ·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및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의견
	대중매체의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 ·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외국 문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간판에 대한 첫인상(로마자/한자/일본어/외국어를 한글로 쓴 간판) · 외국어 간판과 한글 간판 사용에 대한 선호 정도 · 표기 방법 선호도(기관 이름/ 신문지면/ 상표 이름/ 물건 지칭 시)

구 분		내 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와 종류 · 신문·TV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법 ·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과 그 원인 · 가정 내 언어교육 및 학교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한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한자 교육에 대한 인식 · 한자 교육의 바람직한 실시 시기
	외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교육의 바람직한 실시 시기 · 각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영어 마을 설치에 대한 인식 ·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다른 언어
	어문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 국민들이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대응 방안
	언어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국어)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 국어문화원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이용 희망 형태 ·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국어사전/ 외국어사전/ 기타) ·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 주로 사용하는 사전 ·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 · 북한말 교육이 필요(불필요한 이유) · 영어 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 영어 공용어화 주장에 찬성(반대)하는 이유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4. 표본 설계

1) 모집단

- 모집단 :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 조사대상 : 국내거주자 중 조사기준 시점(7월 1일)에 조사대상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가구원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가구원 : 조사 대상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직계가족 여부와는 무관

2) 표본 추출

- 개요 : 다단계층화집락추출
 - 지역별 및 집락별, 동/읍면부별 조사구수에 비례하여 250개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조사구에서 20가구씩 추출하여 총 5,000가구 조사
- 표본 할당 및 추출 방법
 - ① 조사구 집락분석
 - 조사구 분류 지표의 특성치를 기반으로 'k-평균 집락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여 전체 조사구를 12개 집락으로 분류
 - ※ 조사구 분류 지표 :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가구방수, 가구주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등의 34개 특성치 활용
 - 주택유형(10개)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오피스텔, 숙박업소, 기숙사, 판자집, 기타
 - 주택 점유 형태(6개) : 자가, 전세, 월세(보증금), 월세, 사글세, 무상
 - 가구 방수(5개) :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 가구주 연령대(5개) :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 가구주 교육 수준(8개) :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학2년제졸, 대학4년제졸, 석사, 박사
 - ② 지역별 및 집락별, 동/읍면부별 조사구수 할당
 - 1차 : 표본틀로 사용된 전체 조사구를 지역(16개시도)별 $\sqrt{\text{조사구수}}$ 에 비례하도록 조사구수 할당
 - 2차 : 지역내 집락별 조사구수에 비례하도록 조사구수 할당

- 3차 : 지역 및 집락내 동/읍면부별 조사구수에 비례하도록 조사구수 할당

③ 조사구 추출

- 할당된 지역별 및 집락별, 동/읍면부별 조사구수를 기반으로 각 셀내에서 조사구 계통추출

④ 가구 추출

- 추출된 각 조사구에서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 가구 추출

⑤ 조사 대상자 추출

-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만 20세~69세)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조사 실시
- 조사 가구에 조사 대상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조사 가구 추출방식에 의해 인접 가구로 대체
- 조사 가구내 조사 대상자가 복수일 경우, 조사 일자와 생일이 가장 가까운 가구원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5. 실사

1) 실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0. 7. 6 ~ 2010. 8. 6
- 조사 기준 시점 : 2010. 7. 1
- 조사 대상 :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내 최근 1개월간 거주한 가구원
 - 군입대, 해외장기출장자, 기숙사 거주자, 재소자, 유학중인 자, 외국인 등
- 조사 방법 : 전문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 절차 :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 → 지역별 실사 감독원의 관리 및 통제 → 설문지 집계 → 보완조사 및 재조사 → 최종 자료 검증

2) 표본 관리

- 조사구 관리 : 사전 추출된 조사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집락내에 조사구 중 해당 조사구와 가장 인접한 조사구로 대체
- 가구 관리 : 사전 추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의 장기 부재, 강력한 응답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왼쪽 인접 가구를 대체 가구로 선정하고, 왼쪽 가구도 불가능할 경우 해당 가구의 오른쪽 가구로 대체

3) 면접원 관리

- 면접원 관리 방안 : 매일 설문지를 배부/회수/검토하는 일일 통제로 조사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6. 자료 입력 및 처리

1) 자료 검증 및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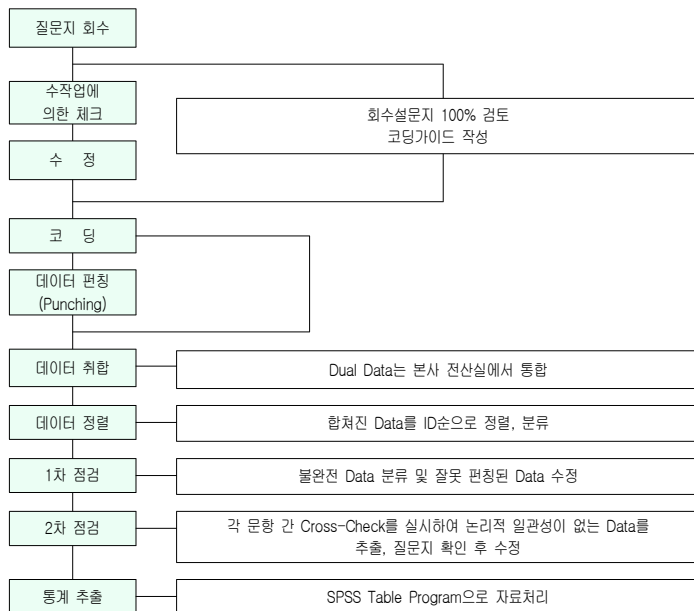
- 실사 과정에서 자료 검증
 - 지역별 실사 감독원이 회수된 설문지의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원 방문 여부, 응답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전화 검증
 - 실사 감독원의 1차 검증에서 합격된 설문지는 에디팅 및 입력 과정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2차 검증
 - 입력된 자료는 자료 처리 과정에서 내검 프로그램에 의해 3차 검증
 - 검증 단계별로 불합격된 설문지에 대한 보완조사 및 재조사 실시
- 분석 과정에서 자료 검증
 - 동일한 그룹(성, 연령, 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별 평균치 및 이전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 및 검증
- 무응답 대체(Imputation)
 - 항목 무응답 : 응답자 특성(성, 연령, 지역, 학력, 직업)별 그룹내 평균치 적용
 - 응답자 특성(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에 대한 무응답은 보정하지 않음

2) 자료 입력 및 분석

○ 자료의 검증

- 1단계(면접원 조사의 검증) : 면접원별로 표본의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제 가구방문 실시 여부, 주요 항목에 대한 정확성 등에 대해 전화 검증 실시
- 2단계(자료처리과정의 검증) : 전산 내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검증 및 자료 입력 후 문항 간 논리성 검증, 입력값 범위 등 오류 검증
- 검증 단계별로 불합격한 설문지에 대해 보완조사 및 재조사 실시

【자료 검증 프로세스】



7. 응답자 특성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5,000)	100.0
성별	남성	(2,496)	49.9
	여성	(2,504)	50.1
연령별	20대	(971)	19.4
	30대	(1,050)	21.0
	40대	(1,088)	21.8
	50대	(945)	18.9
	60대이상	(946)	18.9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1.7
	강원	(238)	4.8
	충청권	(745)	14.9
	전라권	(752)	15.0
	경상권	(1,539)	30.8
	제주	(142)	2.8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899)	18.0
	고졸	(2,420)	48.4
	(전문)대졸	(518)	10.4
	대학원재학이상	(1,163)	23.3
직업별	농수축산업	(157)	3.1
	자영업	(1,057)	21.1
	블루칼라	(402)	8.0
	화이트칼라	(1,639)	32.8
	전업주부	(1,071)	21.4
	학생	(431)	8.6
	무직 / 기타	(243)	4.9
가구 소득별	100만원 이하	(279)	5.6
	101~200만원	(388)	7.8
	201~250만원	(1,097)	21.9
	251~350만원	(1,386)	27.7
	351~550만원	(1,595)	31.9
	551만원 이상	(243)	4.9
	모름 / 무응답	(12)	0.2

Ⅱ. 조사 결과

1. 총론

1.1. 조사 설문지 내용

본 조사 설문지는 2005년에 실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 중 매 5년마다 국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추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조사 설문지의 작성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설문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5년의 생활 환경과 2010년 생활 환경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 또는 첨가하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2. 2010년 조사 결과 개요

Ⅰ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보면,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진 국민보다 국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등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우리말에 대한 인상으로 ‘아름답다’를 제일 많이 꼽았다는 점,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각하는 국어는 외국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을 꼽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고유의 말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식이 엿보인다. 특히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어 영역으로 ‘말하기’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아, 앞으로 국어 정책 수립에 참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 주목된다. 최근 통신 언어를 중심으로 국어 표현의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통신 언어와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서부터 이러한 의식이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② 언어 사용

언어 사용 부분은 ① 언어 사용, ② 경어, ③ 비속어, ④ 표준어와 방언, ⑤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⑥ 대중매체의 언어, ⑦ 외국 문자 사용 등 7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아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학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 점도 특이할 만하다.

경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한 요소가 많아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 점이 주목된다. 가정, 직장, 학교, 직업별 상황 등에서의 경어에 대한 인식이 5년 전 실시된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사회에서 비속어 사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보단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V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비속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높아 주목을 요한다. 2005년 조사와 비교할 때, ‘습관적으로’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온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으로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에 대한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욕설이나 비속어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태도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언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1위를 차지하였고, ‘방언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우리 국민의 방언에 대한 애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해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2005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못지않게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표준어 사용이 선호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래어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꼽혔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어 단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별 느낌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의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5년 조사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일본식 말들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보였다.

대중매체의 언어 중 방송언어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방송언어가 국어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 언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로 인해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거나,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 문자 사용에 있어서 고연령층은 로마자를 읽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젊은 층은 한자, 일본어를 읽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연령별로 외국 문자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고연령층일수록 외국 문자 표기보다는 한글 표기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방송국과 같은 기관 이름 표기에 있어서 ‘한국방송, 문화방송’이나 ‘케이비에스, 엠비시’보다는 ‘KBS, MBC’와 같은 ‘로마자 표기’가 좋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달리 신문지면이나 상표명은 ‘문화, 의견, 경제’, ‘맥심, 폴로’와 같은 한글명이 선호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③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많은 수의 응답자가 대중매체에서 모르는 말을 접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의미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모르는 단어 습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외래어·외국어’를 들었다. 2005년 조사에서 ‘외래어·외국어’에 대한 응답보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항목의 수치가 훨씬 높았던 것에 비해서, 2010년 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이는 어려운 ‘외래어·외국어’가 최근 5년간 급증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유행어나 신조어’에 대해 문제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5년 조사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유행어와 신조어의 출현이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적절하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아 이전 세대에 비해 가정에서 언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과 ‘시험 위주의 교육’을 가장 많이 꼽아,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인 ‘학생의 무관심이나 게으름’을 선택한 비율도 절반 가까이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더불어 학습자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어 교육 방향이 요구된다.

한자 교육과 외국어(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영어 교육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5-6세부터’의 응답률이 2005년 조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같은 국어 어문 규범에 대해 응답자 중 과반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어문 규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5년 조사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어 혼란을 막고 맞춤법 표기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규정에 대한 홍보가 보

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사전에 대한 조사에서 ‘탁상용 국어사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옥편’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던 2005년과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전 보유 비율은 낮아졌으며, 이번 2010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자사전’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사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져 웹사전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1.3. 보완점 및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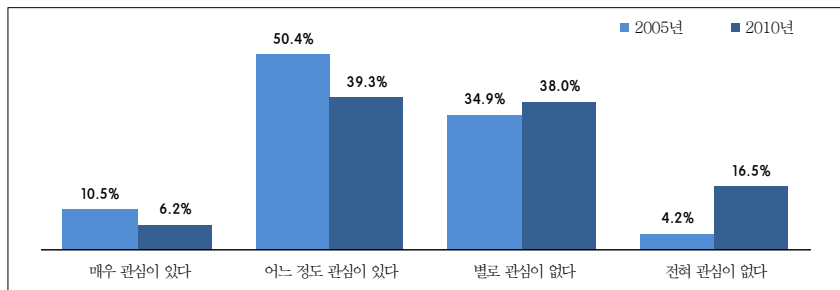
이번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는 2005년에 이어 올해로 2번째 실시하였다. 5년의 시간동안 국민의 언어의식이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많이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는 언어의식에 대한 전반적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전체적 의식 파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언어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보다 정확한 언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중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이 불과 5,000 표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늘려 신뢰수준 및 오차를 좀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45.5%(매우관심: 6.2%, 어느정도 관심: 39.3%)가 관심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4.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78.1%)과 충청권(60.4%)의 국민이 국어에 대한 관심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권(30.8%), 제주권(34.5%), 경상권(40.4%) 등 남부 지방의 국민은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보면,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진 국민보다 국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4.8%).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의 국어에 대한 관심(60.9%)과 비교할 때, 2010년 국어에 대한 관심 (45.5%)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표 1-1-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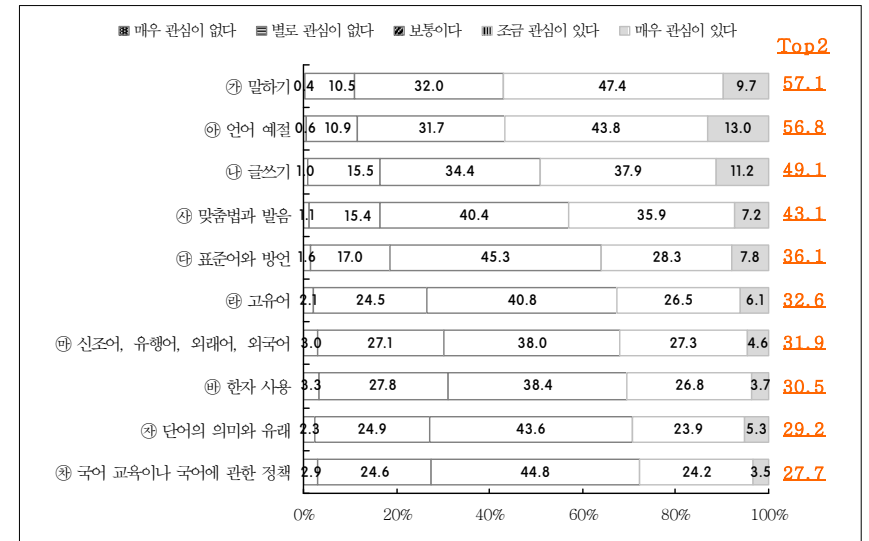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관심이 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전체	(5000)	6.2	39.3	38.0	16.5
성별	남성 (2496)	6.3	37.9	38.8	17.0
	여성 (2504)	6.1	40.8	37.2	15.9
연령별	20대 (971)	6.6	44.1	39.3	10.0
	30대 (1050)	6.7	49.0	35.0	9.3
	40대 (1088)	6.2	40.4	40.3	13.1
	50대 (945)	5.4	32.7	40.5	21.4
	60대이상 (946)	6.0	29.1	34.9	3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4.5	42.0	37.4	16.1
	강원 (238)	9.2	68.9	17.2	4.7
	충청권 (745)	13.8	46.6	28.1	11.5
	전라권 (752)	3.5	27.3	43.9	25.3
	경상권 (1539)	5.5	35.0	42.8	16.7
가구소득별	제주 (142)	1.4	33.1	48.6	16.9
	100만원이하 (279)	5.4	25.8	36.9	31.9
	101~200만원 (388)	6.2	28.4	38.4	27.1
	201~250만원 (1097)	6.4	37.3	37.8	18.5
	251~350만원 (1386)	4.5	42.1	37.7	15.8
	351~550만원 (1595)	7.0	43.8	38.1	11.2
	551만원이상 (243)	11.1	37.4	40.3	11.1
	모름 / 무응답 (12)	0.0	33.3	50.0	16.7

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국어에 대해 관심 있는 응답자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물어본 결과, ‘말하기’(57.1%), ‘언어 예절’(56.8%), ‘글쓰기’(49.1%)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음.
- 반면, ‘단어의 의미와 유래’(29.2%), ‘국어 교육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27.7%)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말하기, 언어 예절, 글쓰기 등 분야에서 모두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사회 생활에서 위의 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됨.
- 신문을 구독하는 응답자(36.6%)가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응답자(22.6%)에 비해 ‘한자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말하기, 글쓰기, 언어 예절’에 대한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임.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의 관심 대상 1~3순위가 ‘말하기, 글쓰기, 언어 예절’이었던 것과 유사하게 2010년 관심 대상 1~3순위도 ‘말하기, 언어 예절, 글쓰기’임.

<그림 1-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Top 2 : 매우 관심이 있다 + 조금 관심이 있다

<표 1-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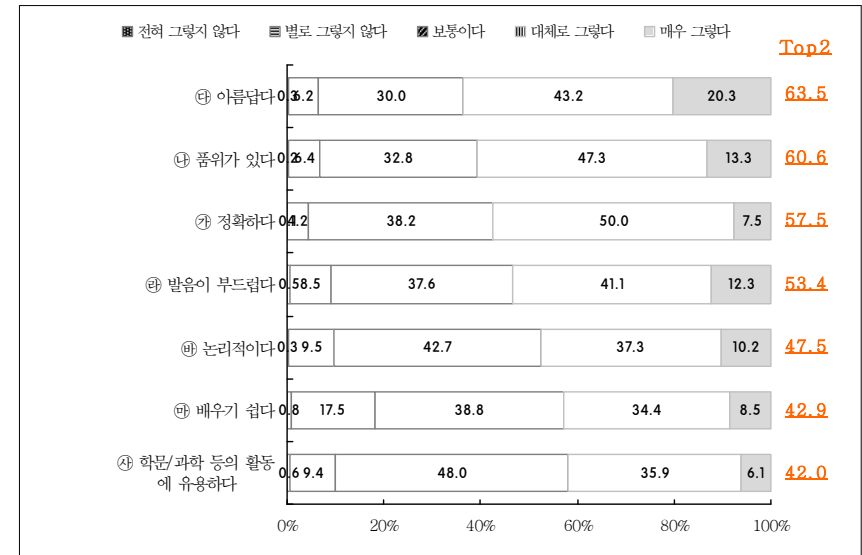
[단위: %, Base: 4,176]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말하기	0.4	10.5	32.0	47.4	9.7	3.55점	71.10점
㉢ 글쓰기	1.0	15.5	34.4	37.9	11.2	3.43점	68.58점
㉤ 표준어와 방언	1.6	17.0	45.3	28.3	7.8	3.24점	64.74점
㉥ 고유어	2.1	24.5	40.8	26.5	6.1	3.10점	62.00점
㉦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3.0	27.1	38.0	27.3	4.6	3.04점	60.70점
㉧ 한자 사용	3.3	27.8	38.4	26.8	3.7	3.00점	59.98점
㉣ 맞춤법과 발음	1.1	15.4	40.4	35.9	7.2	3.33점	66.52점
㉡ 언어 예절	0.6	10.9	31.7	43.8	13.0	3.58점	71.54점
㉨ 단어의 의미와 유래	2.3	24.9	43.6	23.9	5.3	3.05점	61.01점
㉩ 국어 교육이나 국어에 관한 정책	2.9	24.6	44.8	24.2	3.5	3.01점	60.17점

3)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 평가

-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을 물어본 결과, ‘아름답다’(63.5%), ‘품위가 있다’(60.6%), ‘정확하다’(57.5%), ‘발음이 부드럽다’(53.4%) 등으로 나타난다.
- 반면, ‘학문/과학 등의 활동에 유용하다’(42.0%), ‘배우기 쉽다’(42.9%)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 역시 우리말에 대한 인상으로 ‘아름답다’를 제일 많이 응답했음. 다만, 2005년에는 ‘논리적이다’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59.4%였는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논리적이다’라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47.5%로 많이 줄었음.
 - ‘품위가 있다’에 대한 이번 조사의 응답은 2005년 조사(55.7%)에 비해 상승한 결과(60.6%)를 보임. 이러한 수치 변화는 한자어나 외국어 사용을 통해 품위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과거의 태도와 달리, 우리말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배우기 쉽다’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31.4%)에 이어 이번 조사(18.3%)도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두 번의 조사 결과 모두 ‘배우기 쉽다’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은 우리말의 실제 사용 현장에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 달 독서량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했음.

〈그림 1-1-3〉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 평가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1-1-3〉 우리말(국어)에 대한 인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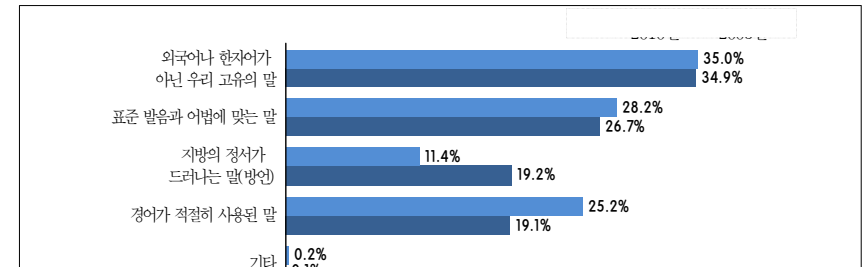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정확하다	0.1	4.2	38.2	50.0	7.5	3.61점	72.11점
㉡ 품위가 있다	0.2	6.4	32.8	47.3	13.3	3.67점	73.41점
㉠ 아름답다	0.3	6.2	30.0	43.2	20.3	3.77점	75.42점
㉣ 발음이 부드럽다	0.5	8.5	37.6	41.1	12.3	3.56점	71.23점
㉥ 배우기 쉽다	0.8	17.5	38.8	34.4	8.5	3.32점	66.48점
㉤ 논리적이다	0.3	9.5	42.7	37.3	10.2	3.48점	69.52점
㉦ 학문·과학 등의 활동에 유용	0.6	9.4	48.0	35.9	6.1	3.38점	67.52점

4) 아름다운 우리말(국어)에 대한 기준

- 우리 국민들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각하는 국어는 ‘외국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34.9%)이었으며, 다음으로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26.7%), ‘지방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방언)’(19.2%), ‘경어가 적절히 사용된 말’(19.1%)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방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방언)’(49.3%)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 항목에서는 표준어 사용자(34.0%)가 방언 사용자(22.1%)보다 높은 응답을 한 반면, ‘지방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 항목에서는 반대로 방언 사용자(22.8%)가 표준어 사용자(13.6%)보다 높은 응답을 보임. 표준어 사용자와 방언 사용자 간의 시각 차이를 보여줌.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 역시 ‘우리 고유의 말’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음. 다만 2005년 조사에서는 ‘경어가 적절히 사용된 말’의 응답자 수가 28.2%로 2번째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수가 19.1%로 4번째를 차지했음. 이러한 변화의 큰 폭은 경어에 대한 국민 의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세계화와 보편화된 평등 의식 등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에 따른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의식 변화로 판단됨. 이러한 경향의 흐름이 다음 조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일지 주목됨.

〈그림 1-1-4〉 아름다운 우리말(국어)에 대한 기준



〈표 1-1-4〉 아름다운 우리말(국어)에 대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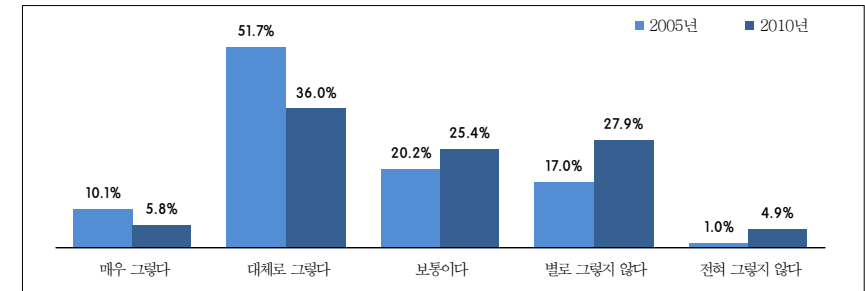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외국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	지방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방언)	경어가 적절히 사용된 말	국어의 모든것이 아름답다
전체		(5000)	34.9	26.7	19.2	19.1	0.1
성별	남성	(2496)	33.5	27.0	20.0	19.4	0.1
	여성	(2504)	36.3	26.4	18.5	18.8	0.0
연령별	20대	(971)	36.9	29.9	18.6	14.6	0.0
	30대	(1050)	35.3	27.8	17.4	19.4	0.1
	40대	(1088)	35.3	26.6	18.3	19.7	0.1
	50대	(945)	32.0	25.9	21.6	20.5	0.0
	60대이상	(946)	34.8	23.0	20.9	21.2	0.1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29.2	33.0	15.0	22.8	0.0
	강원	(238)	43.7	22.7	15.1	18.5	0.0
	충청권	(745)	40.0	25.9	13.7	20.4	0.0
	전라권	(752)	42.8	22.6	24.0	10.5	0.1
	경상권	(1539)	34.4	24.0	22.0	19.5	0.1
	제주	(142)	19.7	17.6	49.3	13.4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36.9	19.7	21.5	21.5	0.4
	101~200만원	(388)	34.0	24.7	22.2	19.1	0.0
	201~250만원	(1097)	35.9	26.5	18.6	18.9	0.1
	251~350만원	(1386)	35.1	30.2	15.3	19.4	0.1
	351~550만원	(1595)	34.4	24.4	21.9	19.2	0.0
	551만원이상	(243)	31.3	34.2	20.2	14.4	0.0
	모름 / 무응답	(12)	33.3	16.7	25.0	25.0	0.0

5)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

-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41.8% (매우 그렇다: 5.8%, 대체로 그렇다: 36.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4명은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에는 10명 중 6명이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조사 때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1.8%였던 것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이전보다 응답자가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최근 인터넷과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우리말 다듬기, 우리말 겨루기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200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0년 조사에서도 '20대' 응답자의 비율(47.4%)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응답자 비율(37.4%)이 가장 낮았음.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에서 나타나는 통신 언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시선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침.
 - 200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0년 조사에서도 '대학원 재학 이상'의 응답자 비율(47.9%)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의 응답자 비율(34.7%)이 가장 낮았음. 고학력의 응답자일수록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5〉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



〈표 1-1-5〉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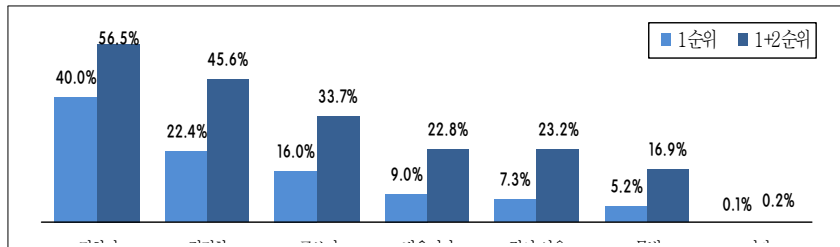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0)	5.8	36.0	25.4	27.9	4.9
성별	남성	(2496)	5.5	34.5	25.5	29.4	5.1
	여성	(2504)	6.1	37.4	25.4	26.4	4.7
연령별	20대	(971)	6.3	41.1	23.4	25.7	3.5
	30대	(1050)	6.4	37.4	25.6	27.0	3.6
	40대	(1088)	5.0	36.9	23.5	30.2	4.4
	50대	(945)	6.1	31.7	28.0	28.6	5.6
	60대이상	(946)	5.3	32.1	27.4	27.6	7.6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4.1	36.8	31.6	24.7	2.8
	강원	(238)	6.3	31.1	37.0	23.5	2.1
	충청권	(745)	8.2	37.3	29.6	22.1	2.8
	전라권	(752)	3.2	26.2	13.0	39.8	17.8
	경상권	(1539)	7.5	41.5	22.7	26.6	1.7
가구소득별	제주	(142)	6.3	19.7	12.7	50.7	10.6
	100만원이하	(279)	3.9	28.7	21.1	29.4	16.8
	101~200만원	(388)	5.2	30.9	25.0	27.8	11.1
	201~250만원	(1097)	5.7	35.4	25.0	27.6	6.3
	251~350만원	(1386)	6.7	36.2	25.3	28.3	3.5
	351~550만원	(1595)	5.1	36.5	27.9	28.5	1.9
	551만원이상	(243)	8.6	49.4	18.1	21.4	2.5
모름 / 무응답		(12)	0.0	50.0	33.3	8.3	8.3

6)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국어 영역

-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말하기(40.0%), 적절한 어휘사용(22.4%), 글쓰기(16.0%), 발음/억양(9.0%), 경어 사용(7.3%) 등으로 나타남.
- 특히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로 말하기를 선택한 경상권 응답자의 비율이 1순위 47.1%, 1+2순위 61.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앞선 설문 조사 항목 중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에서 경상권 응답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언어 예절 부분(52.8%)과 연관시켜 본다면, 경상권 응답자의 경우, 경어 사용 이외의 언어 예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 모두 ‘말하기, 적절한 어휘 사용, 글쓰기’ 순의 응답률을 보임. 1~3위 모두 실제 언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항목들임. 두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함.

〈그림 1-1-6〉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국어 영역



〈표 1-1-6〉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국어 영역(1순위)

[단위: %]

	사례수	말하기	적절한 어휘 사용	글쓰기	발음이나 억양	경어 사용	문법	기타
전체	(3362)	40.0	22.4	16.0	9.0	7.3	5.2	0.1
성별								
남성	(1636)	40.4	21.9	16.0	9.5	7.1	5.1	0.0
여성	(1726)	39.6	22.8	16.0	8.5	7.8	5.2	0.1
연령별								
20대	(687)	39.0	22.1	13.5	8.7	9.3	7.3	0.1
30대	(729)	39.0	22.6	17.4	9.6	6.5	4.9	0.0
40대	(711)	41.4	21.7	18.6	7.7	6.3	4.2	0.1
50대	(622)	39.4	24.4	15.9	9.5	6.1	4.7	0.0
60대이상	(613)	41.3	21.0	14.0	9.5	9.3	4.9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149)	37.7	21.0	18.6	10.7	6.4	5.6	0.0
강원	(177)	32.2	42.4	11.3	2.3	7.9	3.3	0.6
충청권	(559)	44.2	19.5	12.5	7.2	8.1	8.5	0.0
전라권	(319)	22.3	37.6	19.4	7.2	9.1	4.4	0.0
경상권	(1103)	47.1	16.8	15.3	9.4	7.8	3.5	0.1
제주	(55)	30.9	40.0	3.6	14.5	5.5	5.5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150)	34.0	28.0	11.3	9.3	10.0	7.3	0.0
101~200만원	(237)	42.2	21.1	16.5	8.0	5.1	7.2	0.0
201~250만원	(725)	41.8	20.7	16.3	9.4	7.7	4.0	0.1
251~350만원	(946)	43.1	18.7	18.0	9.5	5.6	5.0	0.1
351~550만원	(1109)	37.2	25.4	14.9	8.7	8.3	5.4	0.0
551만원이상	(185)	35.1	25.9	14.1	7.0	12.4	5.4	0.0
모름 / 무응답	(10)	40.0	30.0	20.0	10.0	0.0	0.0	0.0

3. 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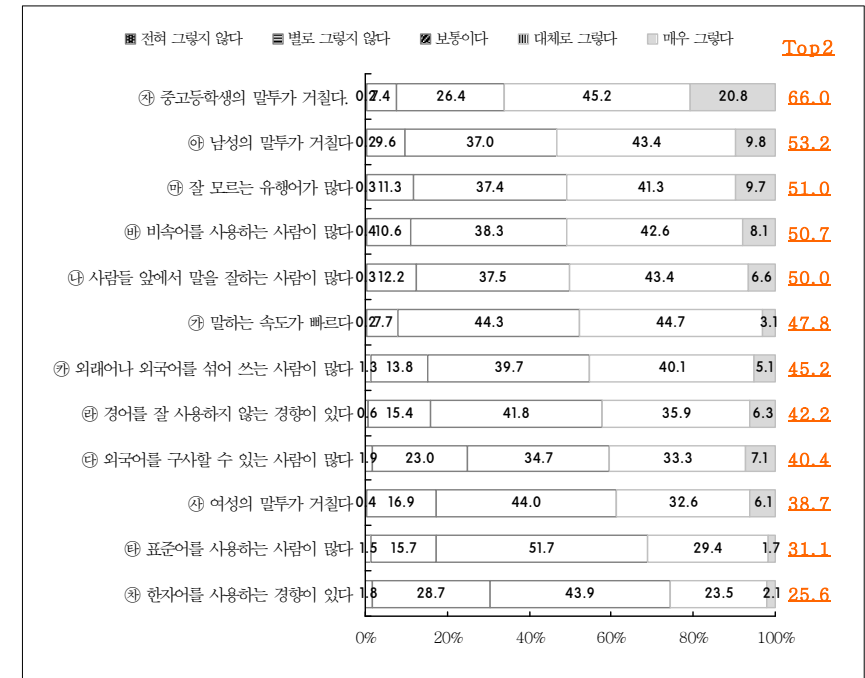
① 언어 사용

1)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사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66.0%),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53.2%),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51.0%),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50.7%)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25.6%),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31.1%)라는 인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이번 조사에서는 2005년 조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와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두 항목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각각 66%, 53.2%로 높게 나왔음.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의 높은 비율은 인터넷, 영화 등 대중매체의 영향, 학교 규범 교육의 기능과 관련하여 차기 조사에서도 주목해야 할 항목임.
 - ‘말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6.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7.8%로 줄었음.
 -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3.8%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0%로 줄었음.
 -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4.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0.4%로 줄었음.
 - ‘경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2.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2.2%로 줄었음.
 -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아졌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8.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1%로 줄었음.
 -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5.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0.7%로 줄었음.
 - ‘여성의 말투가 거칠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6.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8.7%로 줄었음.

-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5.6%로 늘었음. 다만 2005년 조사에서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43.9% 였음.
-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 많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3.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5.2%로 줄었음.
-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38.1%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약간 줄었음.

〈그림 2-1-1〉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1-1〉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㉔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0.2	7.7	44.3	44.7	3.1	3.43점	68.56점
㉕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0.3	12.2	37.5	43.4	6.6	3.44점	68.77점
㉖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1.9	23.0	34.7	33.3	7.1	3.21점	64.12점
㉗ 경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0.6	15.4	41.8	35.9	6.3	3.32점	66.39점
㉘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	0.3	11.3	37.4	41.3	9.7	3.49점	69.75점
㉙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0.4	10.6	38.3	42.6	8.1	3.47점	69.49점
㉚ 여성의 말투가 거칠다	0.4	16.9	44.0	32.6	6.1	3.27점	65.43점
㉛ 남성의 말투가 거칠다	0.2	9.6	37.0	43.4	9.8	3.53점	70.59점
㉜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다	0.2	7.4	26.4	45.2	20.8	3.79점	75.77점
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8	28.7	43.9	23.5	2.1	2.95점	59.08점
㉞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 많다	1.3	13.8	39.7	40.1	5.1	3.34점	66.79점
㉟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1.5	15.7	51.7	29.4	1.7	3.14점	62.82점

2) 자신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 자신의 언어사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어를 잘 사용한다’(47.8%),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46.3%),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38.2%),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35.4%)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말투가 거칠다는 말을 듣는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16.2%),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17.6%)라는 인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의 언어사용 인식과 자신의 언어사용 인식 비교
 - 자신의 언어사용 중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38.2%로 낮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35.4%로 낮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17.6%로 낮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경어를 잘 사용한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47.8%로 높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46.3%로 높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말투가 거칠다는 말을 듣는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16.2%로 낮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16.2%로 낮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 쓴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18.5%로 낮게 나옴.
 - 자신의 언어사용 중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항목은 앞선 문5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항목과 비교할 때, 28.3%로 조금 낮게 나옴.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응답자들은 자신의 언어사용을 일반인의 언어사용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1-2〉 자신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1-2〉 자신의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1.0	16.9	43.9	35.4	2.8	3.22점	64.45점
㉣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	1.5	21.4	41.7	31.8	3.6	3.15점	62.92점
㉥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14.3	32.6	35.5	15.1	2.5	2.59점	51.79점
㉠ 경어를 잘 사용한다	1.3	11.7	39.2	41.8	6.0	3.39점	67.85점
㉡ 잘 모르는 유행어가 많다	1.3	16.3	36.1	37.6	8.7	3.36점	67.19점
㉦ 비속어를 사용한다	8.1	35.8	38.3	16.0	1.8	2.68점	53.50점
㉩ 말투가 거칠다는 말을 듣는다	9.8	39.9	34.1	14.6	1.6	2.58점	51.66점
㉨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9.3	35.8	38.7	15.1	1.1	2.63점	52.54점
㉤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 쓴다	9.6	30.3	41.6	17.5	1.0	2.70점	54.02점
㉤ 표준어를 사용한다	3.1	21.8	48.8	24.7	1.6	3.00점	59.99점

② 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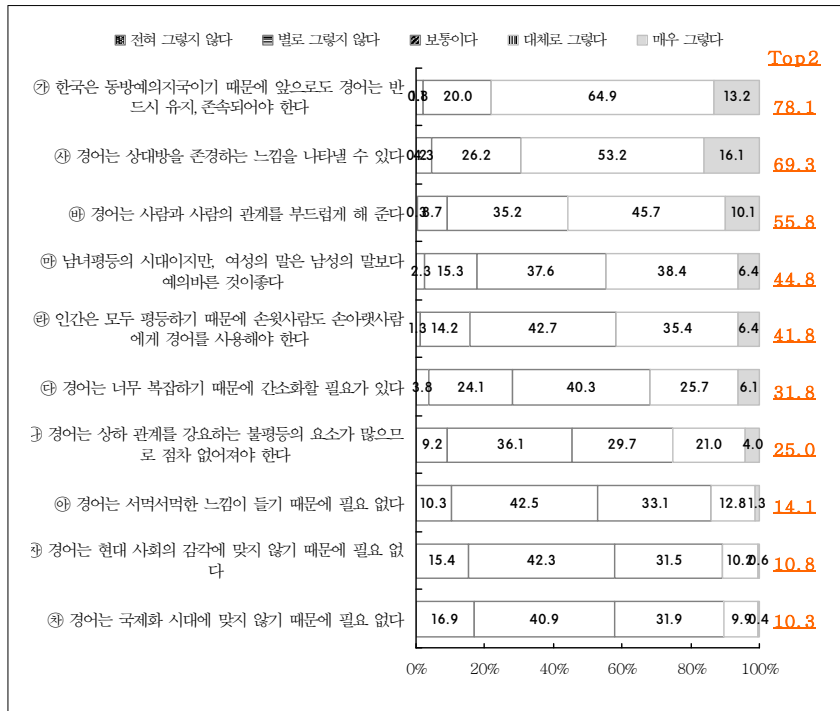
1)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일반 인식

-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어는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78.1%)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어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69.3%), ‘경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준다’(55.8%), ‘남녀평등의 시대이지만, 여성의 말은 남성의 말보다 예의 바른 것이 좋다’(44.8%)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어는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10.3%), ‘경어는 현대 사회의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10.8%), ‘경어는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14.1%)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어는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7.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8.1%로 약간 낮아짐. 경어에 대한 인식의 약화는 국제화와 평등 의식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변화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
 - ‘경어는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의 요소가 많으므로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11.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5%로 2005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배 이상 늘었음. 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 확립과 그로 인한 사회적 상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어 사용의 인식에까지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전라권 응답자 중 57.4%, 경인권 응답자 29.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 ‘경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6.9%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1.8%로 늘었음. 이 항목의 응답 결과가 높아진 것도 국제화나 실용화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항목 역시 앞선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라권 응답자 중 62.2%, 경인권 응답자 중 31.2%가 긍정적 답변을 함.
 -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손윗사람도 손아랫사람에게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1.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1.9%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 항목은 전라권 응답자 중 57.3%가, 충청권 응답자 중 45.1%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남녀평등의 시대이지만, 여성의 말은 남성의 말보다 예의바른 것이 좋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8.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4.9%로 약간 낮아짐. 큰 폭의 차이는 아니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가치가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임. 이 항목은 전라권 응답자 중 63.8%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경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준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9.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5.9%로 나옴. 이 항목은 전라권 응답자 73.3%, 강원권 응답자 70.2%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경어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3.9%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9.3%로 많이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경어 표현을 중심으로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다고 보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큰 변화는 차기 조사에서도 매우 주목되는 부분임. 경인권 응답자 중 59.1%만이 긍정적(35.4%가 부정적)으로 답변함.
- ‘경어는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4.9%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2.9%로 나타남. 사회 전반적으로 평등적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경인권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0.4%로 전국 평균 14.1%보다 높게 나옴.
- ‘경어는 현대 사회의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4.1%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7.7%로 나타남. 이 항목 역시 특히 경인권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17.3%로 전국 평균 10.2%보다 높게 나옴.
- ‘경어는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4.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7.8%로 나타남. 이러한 큰 폭의 변화는 현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조사 결과인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어는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 ‘경어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경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준다’ 순의 응답률은 2005년의 조사 결과와 일치함. 5년 전후로 우리 사회의 경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 ‘남녀평등의 시대이지만, 여성의 말은 남성의 말보다 예의바른 것이 좋다’에

대한 응답은 세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음. 그러나 2005년 조사에서 60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74.2%였던 것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51.2%로 많이 낮아졌음. 또한 남녀 비율에서도 2005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52.2%, 여성이 44.6%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데 반해, 2010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46.6%, 여성이 43.2%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여성 응답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남성 응답률이 50% 이하로 하락한 점이 주목됨. 경어와 관련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2-1〉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일반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2-1〉 우리 사회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일반 인식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어는 반드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	0.1	1.8	20.0	64.9	13.2	3.89점	77.88점
㉕ 경어는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의 요소가 많으므로 점차 없어져야 한다	9.2	36.1	29.7	21.0	4.0	2.75점	54.91점
㉖ 경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3.8	24.1	40.3	25.7	6.1	3.06점	61.23점
㉗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손윗사람도 손아랫사람에게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1.3	14.2	42.7	35.4	6.4	3.32점	66.33점
㉘ 남녀평등의 시대이지만, 여성의 말은 남성의 말보다 예의 바른 것이 좋다	2.3	15.3	37.6	38.4	6.4	3.31점	66.27점
㉙ 경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준다	0.3	8.7	35.2	45.7	10.1	3.57점	71.34점
㉚ 경어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0.2	4.3	26.2	53.2	16.1	3.81점	76.15점
㉛ 경어는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	10.3	42.5	33.1	12.8	1.3	2.52점	50.43점
㉜ 경어는 현대 사회의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15.4	42.3	31.5	10.2	0.6	2.38점	47.67점
㉝ 경어는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16.9	40.9	31.9	9.9	0.4	2.36점	47.1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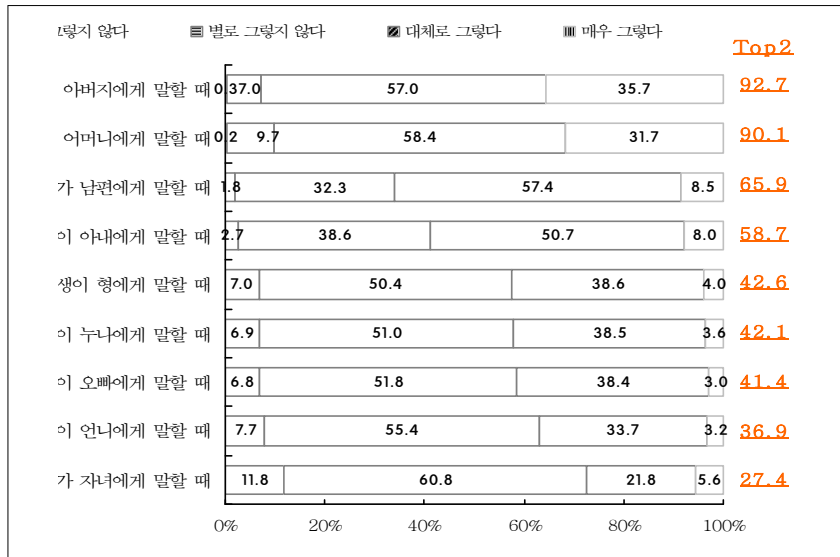
2) 가정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어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 때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92.7%), ‘자녀가 어머니에게 말할 때’(90.1%)
- 다음으로 부부간의 대화 시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타남.
 -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65.9%),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58.7%)
- 2005년 - 2010년 비교
 -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4.6%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92.7%로 나타남.
 - ‘자녀가 어머니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1.0%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90.1%로 나타남.
 -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2.1%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7.3%로 나타남.
 - ‘남동생이 형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5.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2.5%로 나타남.
 - ‘남동생이 누나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4.0%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2.1%로 나타남.
 - ‘여동생이 언니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37.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6.9%로 나타남.
 -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4.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1.4%로 나타남.
 -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3.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8.7%로 나타남. 특히 긍정적으로 답변한 전라권 응답자는 82%, 충청권 응답자는 71.4%로 나타남.
 -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2.8%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5.8%로 나타남. 이 항목 역시 앞선 항목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답변한 전라권 응답자의 비율이 86.3%로 높게 나타남.
 - ‘남편이 아내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부부사이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다만, 2005년 조사에 비해 부부 사이의 경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부부 사이에서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여동생이 언니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에 대한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의 전체 응답률은 각각 37.7%와 36.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세대별 응답률을 비교했을 때, 60대 이상의 응답률이 2005년 조사에서 55.8%였던 것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는 38.2%로 큰 차이를 보임. ‘여동생이 오빠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의 경우 역시,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의 전체 응답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60대 이상의 응답률에서 각각 65.5%, 46.9%로 큰 차이를 보임. 고연령대에서 ‘여동생이 언니/오빠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줌.

〈그림 2-2-2〉 가정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2-2〉 가정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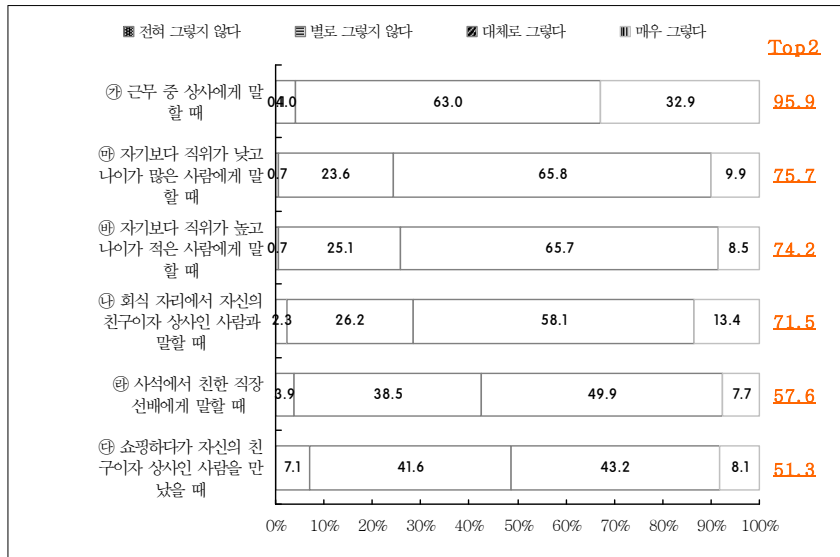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0.3	7.0	57.0	35.7	3.28점	82.03점
㉕ 자녀가 어머니에게 말할 때	0.2	9.7	58.4	31.7	3.22점	80.40점
㉖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11.8	60.8	21.8	5.6	2.21점	55.28점
㉗ 남동생이 형에게 말할 때	7.0	50.4	38.6	4.0	2.40점	59.89점
㉘ 남동생이 누나에게 말할 때	6.9	51.0	38.5	3.6	2.39점	59.71점
㉙ 여동생이 언니에게 말할 때	7.7	55.4	33.7	3.2	2.32점	58.08점
㉚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할 때	6.8	51.8	38.4	3.0	2.38점	59.40점
㉛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2.7	38.6	50.7	8.0	2.64점	66.02점
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	1.8	32.3	57.4	8.5	2.72점	68.11점

3) 직장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 직장에서 사용하는 경어에 대해 ‘근무 중 상사에게 말할 때’(95.9%)에는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자기보다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75.7%), ‘자기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74.2%)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근무 중 상사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8.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95.9%로 나타남.
 -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과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5.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1.5%로 나타남. 전라권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54.7%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쇼핑하다가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51.2%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51.2%로 나타남. 전라권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9.9%로 나타남.
 - ‘사석에서 친한 직장 선배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0.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7.5%로 많이 낮아짐. 전라권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3.2%로 나타남.
 - ‘자기보다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2.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5.6%로 대폭 낮아짐.
 - ‘자기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7.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4.1%로 나타남.
 - ‘자기보다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나 ‘자기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의 2005년, 2010년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2005년 조사에서는 직위나 나이의 두 기준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된다면 경어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이에 반해 2010년 조사에서는 두 기준이 충족할 경우 경어 사용의 비율이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그림 2-2-3〉 직장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2-3〉 직장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㉔ 근무 중 상사에게 말할 때	0.1	4.0	63.0	32.9	3.29점	82.17점
㉗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과 말할 때	2.3	26.2	58.1	13.4	2.83점	70.67점
㉙ 쇼핑하다가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사람을 만났을 때	7.1	41.6	43.2	8.1	2.52점	63.08점
㉘ 사석에서 친한 직장 선배에게 말할 때	3.9	38.5	49.9	7.7	2.61점	65.33점
㉕ 자기보다 직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	0.7	23.6	65.8	9.9	2.85점	71.19점
㉖ 자기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	0.7	25.1	65.7	8.5	2.82점	70.4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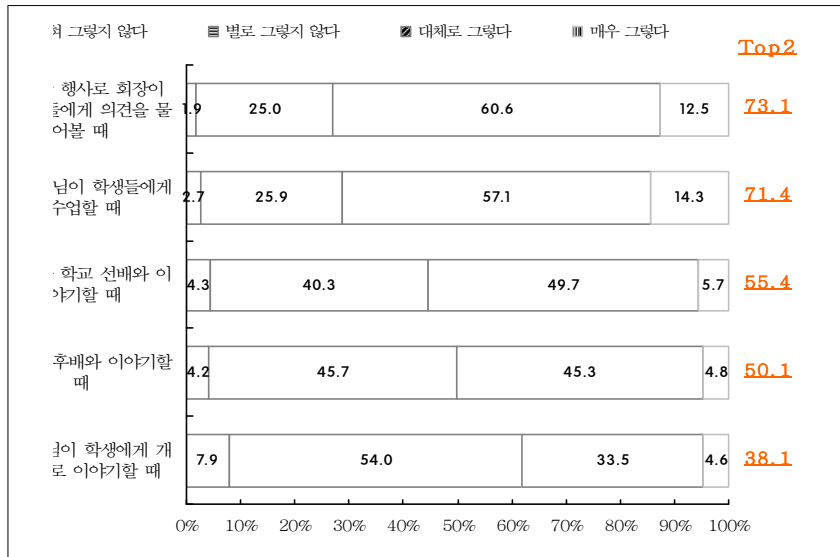
4) 학교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어에 대해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73.1%),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71.4%)에는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9.6%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8.1%로 높아짐.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7.0%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1.4%로 나타남.
-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3.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3.1%로 나타남.
-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5.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5.4%로 나타남.
- ‘낯선 후배와 이야기할 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7.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0.1%로 낮게 나타남.
- 2005년, 2010년 조사를 비교할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항목만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아진 것이 특징적임. 앞선 경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평등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두 조사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지만, 2005년 조사에서 29.6%로 긍정적 응답률이 특히 낮았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항목만이 2010년 조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 2-2-4〉 학교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2-4〉 학교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㉞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7.9	54.0	33.5	4.6	2.35점	58.71점
㉝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2.7	25.9	57.1	14.3	2.83점	70.75점
㉜ 학교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1.9	25.0	60.6	12.5	2.84점	70.92점
㉛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	4.3	40.3	49.7	5.7	2.57점	64.20점
㉚ 낯선 후배와 이야기할 때	4.2	45.7	45.3	4.8	2.51점	62.7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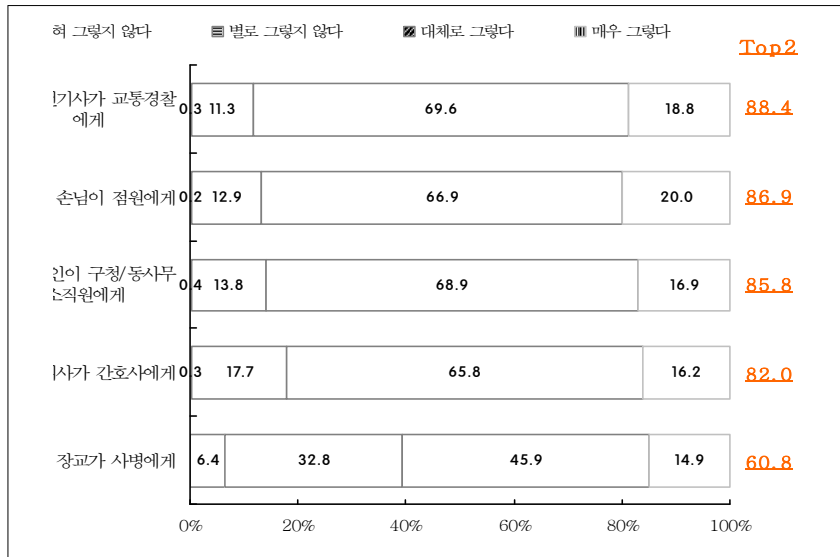
5) 기타 직업별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 기타 직업별 상황에 따른 경어 사용에 대해 ‘운전기사가 교통경찰에게’(88.4%), ‘손님이 점원에게’(86.9%),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에게’(85.8%), ‘의사가 간호사에게’(82.0%) 말을 할 경우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장교가 사병에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52.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0.8%로 높아짐.
- ‘운전기사가 교통경찰에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3.9%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88.4%로 다소 낮아짐.
- ‘손님이 점원에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4.9%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86.9%로 낮아짐.
- ‘의사가 간호사에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2.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81.9%로 낮아짐.
-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에게’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6.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85.8%로 낮아짐.
- 이는 군대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으로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2005년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경어 인식의 결과와 동일한 수치임. 사회 전반적인 평등 의식의 향상과 관련한 의식의 변화임.

〈그림 2-2-5〉 기타 직업별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2-5〉 기타 직업별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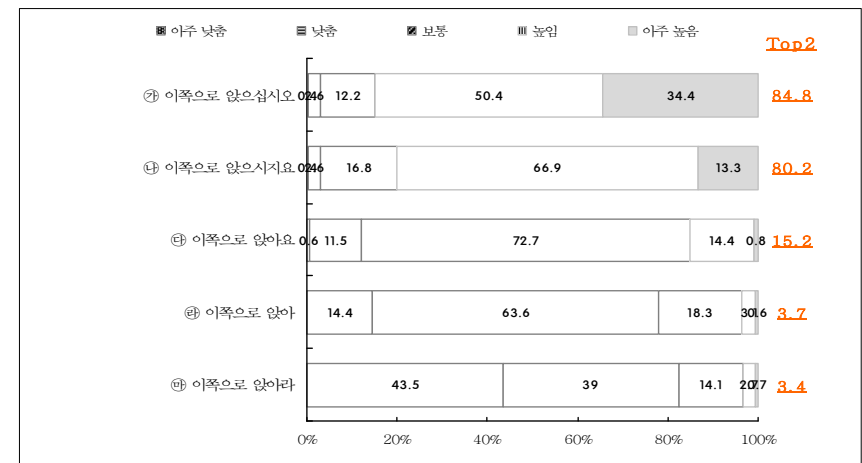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점 평균	100점 평균
장교가 사병에게	6.4	32.8	45.9	14.9	2.69점	67.34점
운전기사가 교통경찰에게	0.3	11.3	69.6	18.8	3.07점	76.73점
손님이 점원에게	0.2	12.9	66.9	20.0	3.07점	76.67점
의사가 간호사에게	0.3	17.7	65.8	16.2	2.98점	74.43점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에게	0.4	13.8	68.9	16.9	3.02점	75.59점

6) 말끝의 경어 정도에 대한 의견

- 말끝에 따른 경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이쪽으로 앉으십시오’(84.8%), ‘이쪽으로 앉으시지요’(80.2%)와 같은 말끝은 경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쪽으로 앉아요’(15.2%), ‘이쪽으로 앉아’(3.7%), ‘이쪽으로 앉아라’(3.4%)와 같은 말끝은 경어라 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이와 같이 우리말은 말끝을 달리하여 경어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음.
-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에 대한 강원권 응답자의 경어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66.0%, 55.9%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외국거주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이쪽으로 앉으십시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95.7%로 외국거주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84.7%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 2-2-6〉 말끝의 경어 정도에 대한 의견



Top 2 : 아주 높음 + 높임

〈표 2-2-6〉 말끝의 경어 정도에 대한 의견

[단위: %, Base: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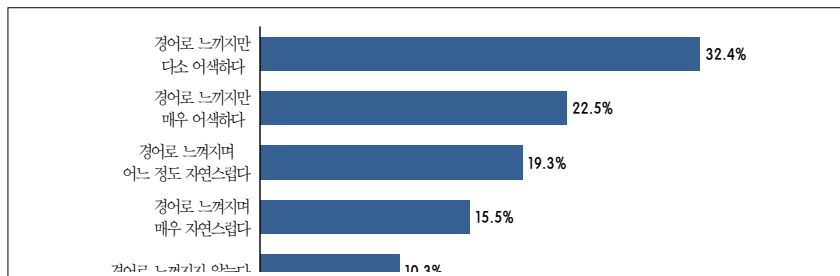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임	아주 높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0.4	2.6	12.2	50.4	34.4	4.16점	83.18점
㉡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0.4	2.6	16.8	66.9	13.3	3.90점	78.02점
㉢ 이쪽으로 앉아요	0.6	11.5	72.7	14.4	0.8	3.03점	60.65점
㉣ 이쪽으로 앉아	14.4	63.6	18.3	3.1	0.6	2.12점	42.38점
㉤ 이쪽으로 앉아라	43.5	39.0	14.1	2.7	0.7	1.78점	35.58점

7)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현들에 대한 의견

보기 요금은 2,000원이세요. 손님에게 어울리는 색은 파란색이세요.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경어로 느끼지만 다소 어색하다’라는 의견이 32.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어로 느끼지만 매우 어색하다’(22.5%), ‘경어로 느끼지며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19.3%), ‘경어로 느끼지며 매우 자연스럽다’(15.5%), ‘경어로 느껴지지 않는다’(10.3%)로 나타남.

〈그림 2-2-7〉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현들에 대한 의견



〈표 2-2-7〉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현들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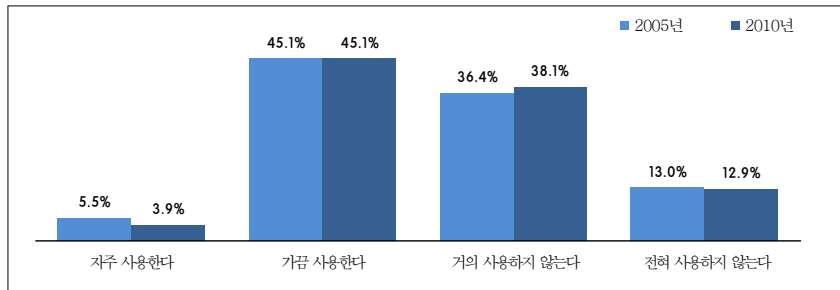
		사례수	경어로 느끼지만 다소 어색하다	경어로 느끼지만 매우 어색하다	경어로 느끼지며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	경어로 느끼지며 매우 자연스럽다	경어로 느끼지지 않는다
전체		(5000)	32.4	22.5	19.3	15.5	10.3
성별	남성	(2496)	31.9	22.5	19.6	15.9	10.1
	여성	(2504)	32.9	22.6	19.1	15.1	10.3
연령별	20대	(971)	32.5	23.2	18.9	15.8	9.6
	30대	(1050)	36.2	23.2	19.2	13.3	8.1
	40대	(1088)	32.9	22.2	17.9	16.5	10.5
	50대	(945)	31.3	21.5	20.8	15.3	11.1
	60대이상	(946)	28.4	22.5	20.0	16.6	12.5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7.4	14.1	23.5	16.4	8.6
	강원	(238)	28.6	42.0	13.9	12.2	3.3
	충청권	(745)	36.0	31.5	12.8	10.5	9.2
	전라권	(752)	21.4	37.9	20.6	16.8	3.3
	경상권	(1539)	32.6	16.1	19.4	17.2	14.7
	제주	(142)	19.0	25.4	8.5	12.0	35.1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19.7	24.7	22.2	20.1	13.3
	101~200만원	(388)	29.9	18.3	19.8	19.3	12.6
	201~250만원	(1097)	32.4	22.7	18.2	16.0	10.8
	251~350만원	(1386)	35.1	20.3	19.1	15.2	10.2
	351~550만원	(1595)	32.6	25.6	19.7	13.4	8.7
	551만원이상	(243)	33.7	18.9	18.5	17.7	11.1
	모름 / 무응답	(12)	33.3	16.7	25.0	8.3	16.7

③ 비속어

1)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정도

- 응답자 10명 중 5명 정도(49.0%)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자주사용: 3.9%, 가끔 사용: 45.1%)고 응답하였음.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3.8%)보단 남성(54.1%), 연령이 낮을수록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50.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9.0%로 나타나 2005년도 비슷한 정도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2010년 조사 모두, 젊은 세대일수록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음.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비교적 TV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TV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음.

〈그림 2-3-1〉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정도



〈표 2-3-1〉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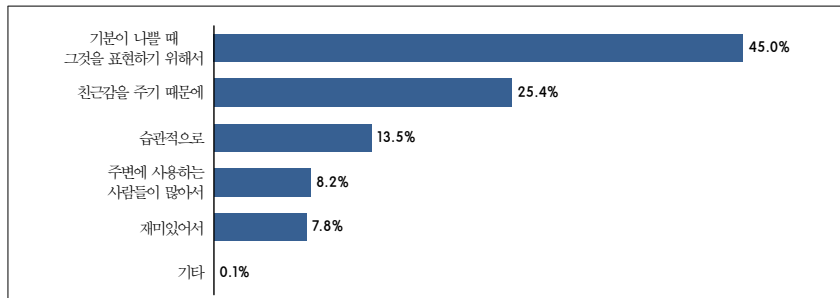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5000)	3.9	45.1	38.1	12.9
성별	남성	(2496)	4.9	49.2	35.7	10.2
	여성	(2504)	2.8	41.0	40.5	15.7
연령별	20대	(971)	6.7	55.9	30.5	6.9
	30대	(1050)	3.9	48.4	38.1	9.6
	40대	(1088)	2.9	44.4	41.0	11.7
	50대	(945)	3.2	38.3	42.4	16.1
	60대이상	(946)	2.6	37.7	38.2	21.5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2.9	43.0	38.7	15.4
	강원	(238)	3.4	46.2	34.5	15.9
	충청권	(745)	3.8	49.0	36.0	11.2
	전라권	(752)	5.6	49.5	38.4	6.5
	경상권	(1539)	4.0	43.5	38.4	14.1
	제주	(142)	4.9	38.7	43.0	13.4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4.3	38.0	39.8	17.9
	101~200만원	(388)	5.2	41.5	38.7	14.7
	201~250만원	(1097)	4.4	44.7	37.9	13.0
	251~350만원	(1386)	3.4	47.3	37.6	11.7
	351~550만원	(1595)	3.6	45.9	38.2	12.2
	551만원이상	(243)	3.3	42.0	38.3	16.5
	모름 / 무응답	(12)	0.0	50.0	25.0	25.0

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 자주 혹은 가끔 욕설/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45.0%),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25.4%), ‘습관적으로’(13.5%)라고 응답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75.4%)라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도 조사에서는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2%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3.5%로 높아짐. 이상의 큰 폭의 변화는 국민들이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해 덜 민감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대중 매체에 의한 외적 환경 변화에 의한 결과인 듯함.

〈그림 2-3-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표 2-3-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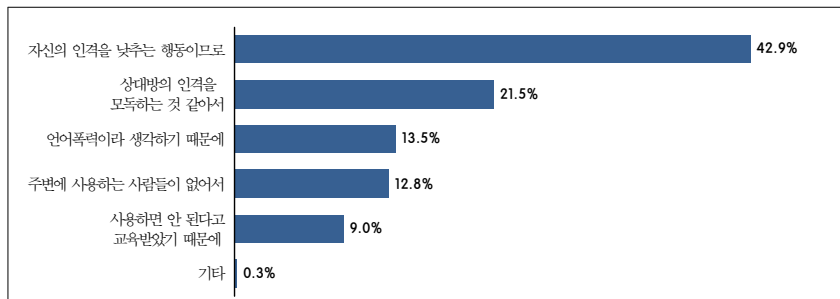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있어서	기타
전체	(2446)	45.0	25.4	13.5	8.2	7.8	0.1
성별	남성 (1349)	43.4	26.5	14.2	8.1	7.5	0.3
	여성 (1097)	46.9	24.0	12.5	8.4	8.2	0.0
연령별	20대 (608)	39.6	28.6	13.5	8.4	9.7	0.2
	30대 (549)	41.2	29.1	12.9	8.7	8.1	0.0
	40대 (515)	46.0	25.4	11.5	9.9	7.0	0.2
	50대 (392)	52.3	20.2	14.8	5.9	6.6	0.2
	60대이상 (382)	50.3	20.2	15.4	7.3	6.8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727)	34.3	28.6	17.2	8.5	11.3	0.1
	강원 (118)	75.4	10.2	10.2	2.5	1.7	0.0
	충청권 (393)	55.2	24.4	10.7	2.5	7.2	0.0
	전라권 (414)	39.6	42.3	5.6	7.0	5.3	0.2
	경상권 (732)	49.5	15.6	14.9	12.6	7.3	0.1
	제주 (62)	32.3	25.8	29.0	8.1	4.8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118)	55.1	22.0	10.2	9.3	3.4	0.0
	101~200만원 (181)	45.9	21.5	18.2	7.2	7.2	0.0
	201~250만원 (538)	47.4	24.7	13.4	7.1	7.4	0.0
	251~350만원 (703)	41.1	24.6	12.7	10.2	11.1	0.3
	351~550만원 (790)	44.2	27.8	14.2	7.8	5.9	0.0
	551만원이상 (110)	53.6	24.5	9.1	3.6	8.2	0.9
	모름 / 무응답 (6)	16.7	50.0	16.7	16.7	0.0	0.0

3)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욕설/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42.9%),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21.5%),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13.5%)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도 조사에서는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4.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2.8%로 나타나 욕설 및 비속어를 2005년에 비해 주위에서 접하는 환경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의 비율은 10.4%에서 9.0%로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 2-3-3〉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표 2-3-3〉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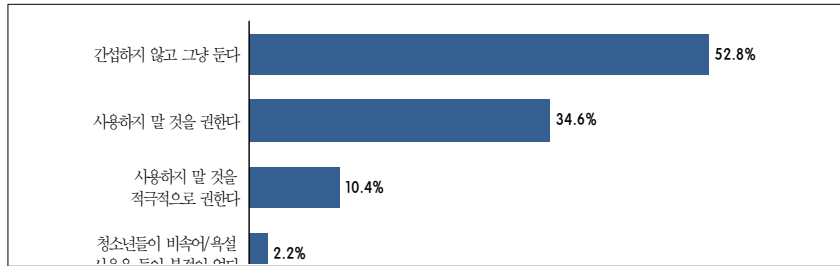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언어폭력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2554)	42.9	21.5	13.5	12.8	9.0	0.3
성별	남성	(1147)	42.6	22.5	11.8	13.9	8.9	0.3
	여성	(1407)	43.1	20.8	14.9	11.9	9.2	0.1
연령별	20대	(363)	45.5	18.5	12.9	12.7	9.6	0.8
	30대	(501)	44.1	21.6	14.8	11.6	7.9	0.0
	40대	(573)	38.9	23.6	17.1	11.5	8.7	0.2
	50대	(553)	42.5	22.4	10.7	14.3	9.8	0.3
	60대이상	(564)	44.5	20.6	11.7	13.8	9.2	0.2
	경인권	(857)	41.4	20.4	15.5	14.6	7.9	0.2
거주지역별	강원	(120)	35.0	17.5	26.7	12.5	6.7	1.6
	충청권	(352)	46.0	16.8	12.8	9.9	13.4	1.1
	전라권	(338)	45.9	15.1	13.3	16.3	9.4	0.0
	경상권	(807)	43.2	27.0	10.4	10.5	8.9	0.0
	제주	(80)	40.0	32.5	6.3	15.0	6.2	0.0
	100만원이하	(161)	41.0	19.3	9.9	19.9	9.3	0.6
가구소득별	101~200만원	(207)	45.9	16.4	16.4	12.6	8.7	0.0
	201~250만원	(559)	41.7	21.8	12.9	14.0	9.5	0.2
	251~350만원	(683)	43.8	24.7	11.0	11.7	8.6	0.1
	351~550만원	(805)	42.4	21.5	16.1	11.2	8.6	0.2
	551만원이상	(133)	43.6	15.0	12.8	14.3	12.8	1.5
	모름 / 무응답	(6)	50.0	16.7	0.0	33.3	0.0	0.0

4)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52.8%),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34.6%),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10.4%), '청소년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2.2%)라고 응답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권(61.8%), 경상권(59.3), 충청권(53.2%)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 강원(50.4%), 전라권(50.5%)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그림 2-3-4〉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표 2-3-4〉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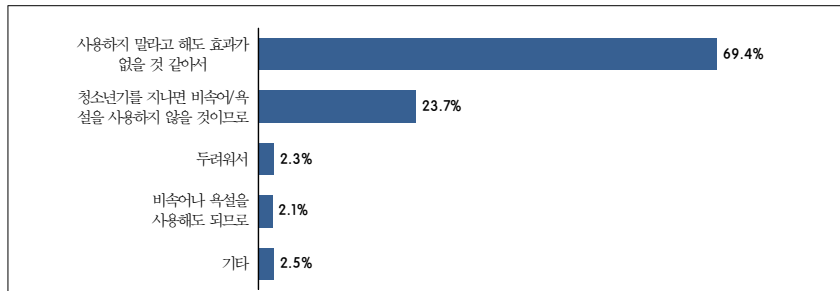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사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청소년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전체	(5000)	52.8	34.6	10.4	2.2
성별	남성 (2496)	54.4	33.2	10.2	2.2
	여성 (2504)	51.2	36.0	10.7	2.1
연령별	20대 (971)	63.0	26.2	8.0	2.8
	30대 (1050)	57.6	32.8	7.6	2.0
	40대 (1088)	47.6	39.2	11.5	1.7
	50대 (945)	48.3	37.1	12.4	2.2
	60대이상 (946)	47.6	37.3	12.8	2.3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61.8	29.7	6.3	2.2
	강원 (238)	29.0	50.4	18.1	2.5
	충청권 (745)	53.2	33.6	11.5	1.7
	전라권 (752)	32.8	50.5	12.0	4.7
	경상권 (1539)	59.3	29.6	9.9	1.2
	제주 (142)	26.1	37.3	34.5	2.1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41.9	43.4	11.5	3.2
	101~200만원 (388)	45.6	36.6	12.9	4.9
	201~250만원 (1097)	53.1	33.0	12.0	1.9
	251~350만원 (1386)	55.8	32.8	9.8	1.5
	351~550만원 (1595)	52.5	36.4	9.2	1.9
	551만원이상 (243)	62.1	25.5	9.1	3.3
	모름 / 무응답 (12)	25.0	58.3	16.7	0.0

5)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해 그냥 두는 이유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69.4%),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23.7%), ‘두려워서’(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2-3-5〉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표 2-3-5〉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그냥 두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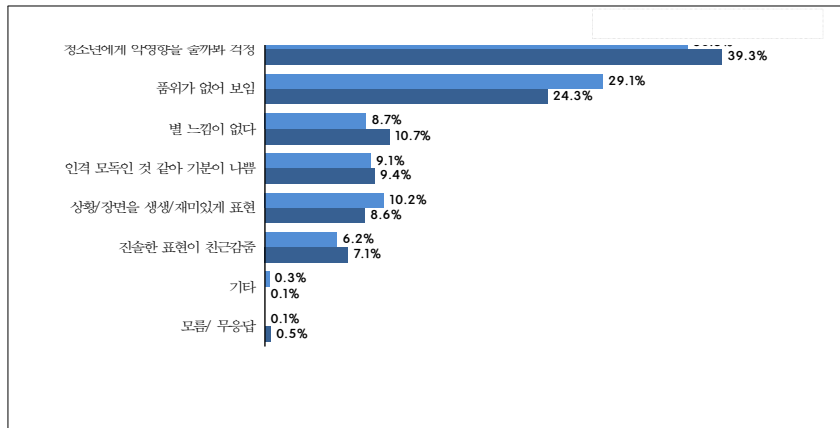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도 되므로	기타
전체		(2641)	69.4	23.7	2.3	2.1	2.5
성별	남성	(1359)	68.4	25.5	1.5	1.8	3.0
	여성	(1282)	70.4	21.8	3.3	2.4	2.1
연령별	20대	(612)	68.6	26.1	1.1	2.3	1.9
	30대	(605)	70.2	22.5	1.7	2.6	3.0
	40대	(518)	67.2	27.4	2.7	1.4	1.3
	50대	(456)	68.9	22.8	4.2	2.0	2.1
	60대이상	(450)	72.2	18.9	2.7	2.0	4.2
거주지역별	경인권	(979)	72.9	21.7	1.9	1.4	2.1
	강원	(69)	78.3	15.9	0.0	0.0	5.8
	충청권	(396)	70.2	19.2	2.0	3.0	5.6
	전라권	(247)	59.5	38.5	0.0	1.6	0.4
	경상권	(913)	67.6	24.1	3.8	2.6	1.9
	제주	(37)	59.5	35.1	0.0	2.7	2.7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117)	71.8	17.9	2.6	3.4	4.3
	101~200만원	(177)	73.4	17.5	2.3	2.3	4.5
	201~250만원	(582)	69.9	24.2	2.2	1.4	2.2
	251~350만원	(774)	65.5	28.6	1.9	2.1	1.9
	351~550만원	(837)	71.3	22.2	2.4	1.7	2.4
	551만원이상	(151)	68.9	17.9	4.6	6.0	2.6
	모름 / 무응답	(3)	100.0	0.0	0.0	0.0	0.0

6)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에서 출연자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3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품위가 없어 보임’(24.3%), ‘별 느낌이 없다’(10.7%), ‘인격 모독인 것 같아 기분이 나쁨’(9.4%)이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이 항목에 대한 2005년도 조사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다만 ‘별 느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5년 8.7%에서 이번 조사 결과 10.7%로 다소 높아졌을 뿐임.
 - 2005년, 2010년 모두 고연령대 응답자일수록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 반면, 20대 응답자는 평균(39.3%)에 훨씬 못 미치는 24.9%를 보임.

〈그림 2-3-6〉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표 2-3-6〉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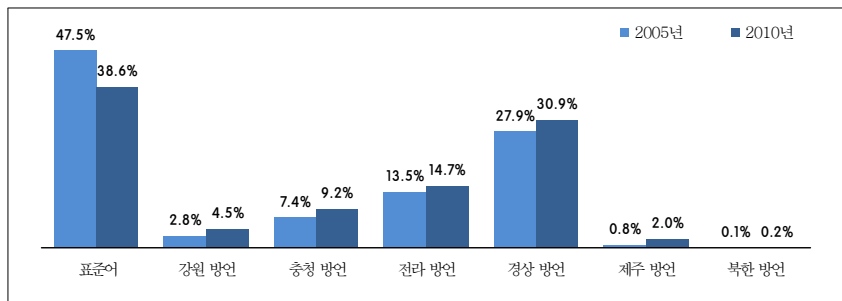
	사례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	품위가 없어보임	별 느낌이 없다	인격 모독인 것 같아 기분이 나쁨	상황/장면을 생생/재미있게 표현	진솔한 표현이 친근감 줌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5000)	39.3	24.3	10.7	9.4	8.6	7.1	0.1	0.5
성별	남성 (2496)	38.0	23.0	12.2	8.9	9.9	7.1	0.1	0.8
	여성 (2504)	40.5	25.6	9.1	9.8	7.3	7.1	0.0	0.6
연령대	20대 (971)	24.9	25.7	12.8	9.8	16.4	9.5	0.1	0.8
	30대 (1050)	36.4	27.0	10.8	9.4	8.3	7.5	0.0	0.6
	40대 (1088)	44.2	21.4	10.2	9.5	7.2	7.3	0.1	0.1
	50대 (945)	44.6	24.0	9.5	9.1	6.2	5.7	0.0	0.9
	60대이상 (946)	46.2	23.2	10.1	9.0	5.1	5.5	0.1	0.8
	경인권 (1584)	28.9	25.5	14.9	10.2	9.7	10.0	0.0	0.8
거주지역별	강원 (238)	42.4	16.4	20.6	10.5	5.9	3.4	0.0	0.8
	충청권 (745)	45.4	28.1	5.4	7.0	5.9	7.5	0.0	0.7
	전라권 (752)	44.3	31.9	8.5	6.5	4.3	3.6	0.3	0.6
	경상권 (1539)	44.7	18.0	8.8	10.3	11.1	6.8	0.1	0.2
	제주 (142)	32.4	31.0	7.0	16.2	11.3	1.4	0.0	0.7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48.4	21.5	11.8	7.2	5.7	3.9	0.4	1.1
	101~200만원 (388)	38.7	25.3	12.6	8.5	8.5	6.4	0.0	0.0
	201~250만원 (1097)	41.5	21.9	10.7	10.3	9.5	5.7	0.1	0.5
	251~350만원 (1386)	37.3	24.3	9.9	10.0	8.9	9.1	0.1	0.4
	351~550만원 (1595)	38.7	25.5	11.1	8.8	7.8	7.1	0.0	0.8
	551만원이상 (243)	34.2	27.2	8.6	9.1	11.5	7.4	0.0	2.1
	모름 / 무응답 (12)	41.7	41.7	0.0	8.3	8.3	0.0	0.0	0.0

4 표준어와 방언

1)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

- 평소 생활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를 살펴보면, 표준어 사용이 38.6% 가 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경상 방언(30.9%), 전라 방언(14.7%), 충청 방언(9.2%), 강원 방언 (4.5%), 제주 방언(2.0%), 북한 방언(0.2%)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의 분포와 일치하게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47.6%로 과반수 가까웠 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8.6%로 낮아짐. 충청권 응답자의 경우 지역 방 언 사용자 비율 대 표준어 사용 비율이 44.7%:43.4% 로 나타났음. 경상권 응답 자의 경우는 89.3%:8.7%로 지역 방언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결과는 2005년 조사 내용과도 거의 일치함.
 - 2005년, 2010년 조사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음. 이에 반해, TV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은 표준어 사용자 비율과 관련성이 낮음.

〈그림 2-4-1〉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



〈표 2-4-1〉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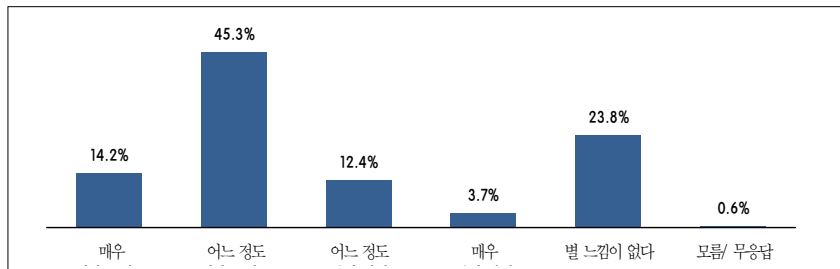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표준어	강원 방언	충청 방언	전라 방언	경상 방언	제주 방언	북한 방언
전체		(5000)	38.6	4.5	9.2	14.7	30.9	2.0	0.1
성별	남성	(2496)	38.3	4.4	9.2	15.5	30.5	1.9	0.2
	여성	(2504)	38.8	4.6	9.2	14.0	31.2	2.1	0.1
연령별	20대	(971)	50.3	3.0	6.2	11.7	27.3	1.5	0.0
	30대	(1050)	44.3	4.4	7.2	12.8	29.2	2.1	0.0
	40대	(1088)	38.4	4.0	8.4	15.1	31.9	2.0	0.2
	50대	(945)	33.5	5.2	10.4	15.7	33.5	1.7	0.0
	60대이상	(946)	25.5	6.0	14.3	18.6	32.5	2.6	0.5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74.6	2.5	6.6	8.2	7.8	0.1	0.2
	강원	(238)	32.4	59.2	1.7	1.3	5.4	0.0	0.0
	충청권	(745)	43.4	5.2	44.7	2.8	3.5	0.3	0.1
	전라권	(752)	23.5	0.4	0.1	75.8	0.2	0.0	0.0
	경상권	(1539)	8.7	0.1	1.2	0.6	89.3	0.1	0.0
	제주	(142)	25.4	0.0	0.0	2.1	3.5	67.6	1.4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25.8	9.7	9.7	28.3	21.9	4.7	0.0
	101~200만원	(388)	27.6	5.2	7.5	25.3	30.4	3.4	0.8
	201~250만원	(1097)	32.9	6.7	12.0	17.1	28.7	2.3	0.2
	251~350만원	(1386)	37.6	1.8	10.0	10.7	38.8	1.1	0.0
	351~550만원	(1595)	44.9	4.7	7.1	12.9	28.2	2.0	0.2
	551만원이상	(243)	60.5	1.2	7.8	5.8	24.7	0.0	0.0
	모름 / 무응답	(12)	41.7	0.0	0.0	25.0	16.7	16.7	0.0

2)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점에 대해 ‘편하고 친근하다’라는 의견이 59.5%(매우: 14.2%, 어느 정도: 45.3%)로 나타났으며, ‘불편하고 어색하다’라는 의견은 16.1%(매우: 3.7%, 어느 정도: 12.4%)로 나타남.

〈그림 2-4-2〉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표 2-4-2〉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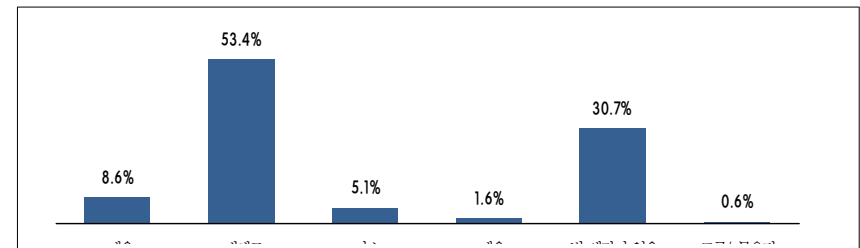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편하고 친근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	어느 정도 불편/어색	매우 불편/어색	별 느낌이 없다	모름/무응답
전체		(1929)	14.2	45.3	12.4	3.7	23.8	0.6
성별	남성	(957)	14.4	46.0	12.6	3.0	23.4	0.6
	여성	(972)	14.0	44.5	12.2	4.4	24.2	0.7
연령별	20대	(488)	13.3	43.4	11.3	3.5	28.1	0.4
	30대	(465)	13.1	47.7	11.0	2.4	24.9	0.9
	40대	(418)	15.3	44.5	13.6	4.5	21.3	0.8
	50대	(317)	14.5	43.2	12.6	5.0	24.3	0.4
	60대이상	(241)	15.8	48.1	15.4	3.7	16.6	0.4
	경인권	(1182)	12.9	45.5	13.8	4.5	22.7	0.6
거주지역별	강원	(77)	14.3	37.7	23.4	1.3	23.3	0.0
	충청권	(323)	18.6	42.7	9.6	2.8	26.0	0.3
	전라권	(177)	19.2	52.5	3.4	0.6	24.3	0.0
	경상권	(134)	10.4	44.8	15.7	5.2	22.4	1.5
	제주	(36)	8.3	41.7	2.8	2.8	44.4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72)	13.9	31.9	12.5	1.4	40.3	0.0
	101~200만원	(107)	18.7	37.4	14.0	2.8	26.2	0.9
	201~250만원	(361)	15.0	40.4	11.1	2.5	31.0	0.0
	251~350만원	(521)	17.7	45.1	13.4	1.9	21.7	0.2
	351~550만원	(716)	11.2	51.0	11.0	5.7	20.3	0.8
	551만원이상	(147)	11.6	42.9	17.7	5.4	20.4	2.0
	모름 / 무응답	(5)	20.0	20.0	20.0	0.0	40.0	0.0

3)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2.0%(매우: 8.6%, 어느 정도: 53.4%)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6.7%(매우: 1.6%, 어느 정도: 5.1%)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볼 때, 강원권은 28.6%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충청권은 75.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
- 2005년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 비율이 26.3%, 부정적 답변을 한 비율이 25.2%임. 이에 반해 이번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확인화된 가치보다는 점차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도 우리말의 일부라는 국민 인식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2005년 조사에서도 13.9%로, 201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강원권 지역이 가장 낮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임.

〈그림 2-4-3〉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표 2-4-3〉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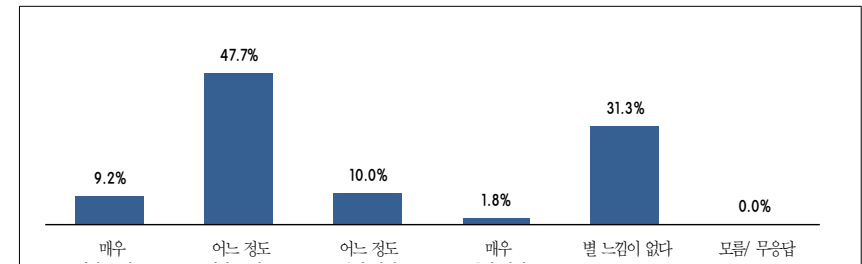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긍정적 생각	대체로 긍정적 생각	다소 부정적 생각	매우 부정적 생각	별 생각이 없다	모름/ 무응답
전체		(3071)	8.6	53.4	5.1	1.6	30.7	0.6
성별	남성	(1539)	8.1	52.4	6.1	1.9	31.0	0.5
	여성	(1532)	9.1	54.4	4.2	1.3	30.4	0.6
연령별	20대	(483)	10.6	53.2	4.8	1.4	29.8	0.2
	30대	(585)	9.2	55.9	5.5	2.4	26.8	0.2
	40대	(670)	9.0	52.4	5.2	1.0	32.1	0.3
	50대	(628)	6.2	54.0	4.9	1.4	31.8	1.7
	60대이상	(705)	8.7	51.8	5.2	1.7	32.1	0.5
거주지역별	경인권	(402)	4.0	54.7	8.5	1.7	27.4	3.7
	강원	(161)	4.3	24.2	28.0	1.2	42.3	0.0
	충청권	(422)	17.3	58.1	5.2	2.6	16.6	0.2
	전라권	(575)	5.2	49.9	2.3	1.2	41.2	0.2
	경상권	(1405)	8.6	57.8	3.0	1.4	29.1	0.1
가구소득별	제주	(106)	17.0	34.0	1.9	1.9	45.2	0.0
	100만원이하	(207)	5.8	36.7	5.3	3.4	48.8	0.0
	101~200만원	(281)	10.3	42.7	5.7	3.6	37.7	0.0
	201~250만원	(736)	9.5	51.0	6.0	1.5	31.8	0.3
	251~350만원	(865)	7.2	61.0	4.3	1.4	25.9	0.2
	351~550만원	(879)	9.6	55.5	4.9	0.8	28.7	0.6
	551만원이상	(96)	8.3	51.0	6.3	2.1	22.9	9.4
	모름 / 무응답	(7)	0.0	42.9	14.3	0.0	42.9	0.0

4)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느끼는 점에 대해 ‘편하고 친근하다’라는 의견이 56.9%(매우: 9.2%, 어느 정도: 47.7%)로 나타났으며, ‘불편하고 어색하다’라는 의견은 11.8%(매우: 1.8%, 어느 정도: 10.0%)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볼 때, 강원(25.5%)과 제주(30.2%)는 경인권(74.4%)과 충청권(68.0%)에 비하여 ‘편하고 친근하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남.

〈그림 2-4-4〉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표 2-4-4〉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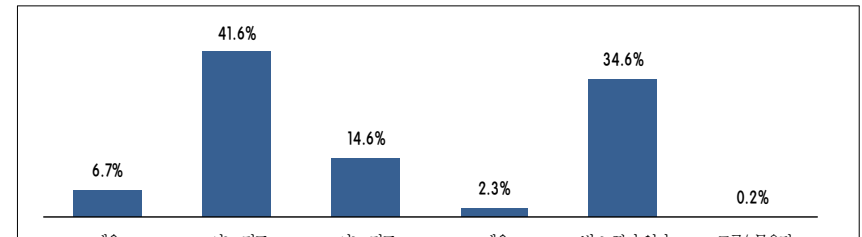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편하고 친근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	어느 정도 불편/어색	매우 불편/어색	별 느낌이 없다	모름/ 무응답
전체	(3071)	9.2	47.7	10.0	1.8	31.3	0.0
성별	남성 (1539)	8.9	47.2	9.2	2.4	32.2	0.1
	여성 (1532)	9.6	48.1	10.8	1.2	30.3	0.0
연령별	20대 (483)	11.8	47.4	9.1	2.1	29.6	0.0
	30대 (585)	8.9	44.8	12.5	2.1	31.7	0.0
	40대 (670)	6.3	49.9	8.1	1.8	33.9	0.0
	50대 (628)	9.4	49.5	10.4	1.4	29.1	0.2
	60대이상 (705)	10.5	46.5	9.9	1.8	31.3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402)	11.9	62.4	7.2	3.2	15.1	0.2
	강원 (161)	6.8	18.6	3.7	1.9	69.0	0.0
	충청권 (422)	15.2	52.8	8.3	2.4	21.3	0.0
	전라권 (575)	9.7	45.6	5.9	1.4	37.4	0.0
	경상권 (1405)	6.8	48.1	13.8	1.5	29.8	0.0
	제주 (106)	9.4	20.8	7.5	0.9	61.4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07)	4.8	32.9	9.7	3.9	48.8	0.0
	101~200만원 (281)	8.2	37.4	12.5	3.2	38.8	0.0
	201~250만원 (736)	10.6	45.7	9.1	2.2	32.5	0.0
	251~350만원 (865)	8.1	52.9	12.4	0.9	25.7	0.0
	351~550만원 (879)	10.2	51.4	7.2	1.0	30.0	0.1
	551만원이상 (96)	13.5	45.8	13.5	6.3	20.8	0.0
	모름 / 무응답 (7)	0.0	14.3	14.3	0.0	71.4	0.0

5)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느끼는 점에 대해 ‘편하고 친근하다’라는 의견이 48.3%(매우: 6.7%, 어느 정도: 41.6%)로 나타났으며, ‘불편하고 어색하다’라는 의견은 16.9%(매우: 2.3%, 어느 정도: 14.6%)로 나타남.
- 앞 항목에서 조사한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강원(14.9%), 제주(19.8%) 지역에서는 ‘편하고 친근하다’에 대해 비교적 낮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임. 한편, 경상권은 ‘불편하고 어색하다’에 대해 21.4%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2-4-5〉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표 2-4-5〉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견해

[단위: %]

		사례수	매우 편하고 친근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	어느 정도 불편/어색	매우 불편/어색	별 느낌이 없다	모름/ 무응답
전체		(3071)	6.7	41.6	14.6	2.3	34.6	0.2
성 별	남성	(1539)	6.8	40.6	14.4	2.7	35.5	0.0
	여성	(1532)	6.6	42.7	14.8	2.0	33.7	0.2
연 령 별	20대	(483)	5.2	46.0	17.6	1.7	29.4	0.1
	30대	(585)	6.8	40.7	15.2	3.8	33.5	0.0
	40대	(670)	6.0	40.7	13.7	2.1	37.2	0.3
	50대	(628)	7.8	44.6	12.3	1.6	33.6	0.1
	60대이상	(705)	7.4	37.7	14.9	2.4	37.4	0.2
거 주 지 역 별	경인권	(402)	7.2	52.5	10.2	2.0	27.4	0.7
	강원	(161)	4.3	10.6	8.1	1.2	75.8	0.0
	충청권	(422)	12.8	43.1	14.0	3.1	27.0	0.0
	전라권	(575)	9.4	40.7	9.2	3.7	36.9	0.1
	경상권	(1405)	3.9	44.2	19.4	1.9	30.6	0.0
가 구 소 득 별	제주	(106)	6.6	13.2	8.5	0.0	70.8	0.9
	100만원이하	(207)	5.3	25.6	13.5	3.4	51.7	0.5
	101~200만원	(281)	5.3	33.8	14.6	4.3	42.0	0.0
	201~250만원	(736)	6.3	41.4	14.3	2.4	35.5	0.1
	251~350만원	(865)	6.4	44.5	18.5	2.0	28.4	0.2
	351~550만원	(879)	7.8	44.6	11.0	1.7	34.7	0.1
	551만원이상	(96)	10.4	46.9	17.7	2.1	22.9	0.0
모름 / 무응답		(7)	0.0	57.1	0.0	0.0	42.9	0.0

6)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평소 국어 생활에서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7.5%),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5.4%)라고 나타남.

– 2005년에는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의견이 47.8%로 가장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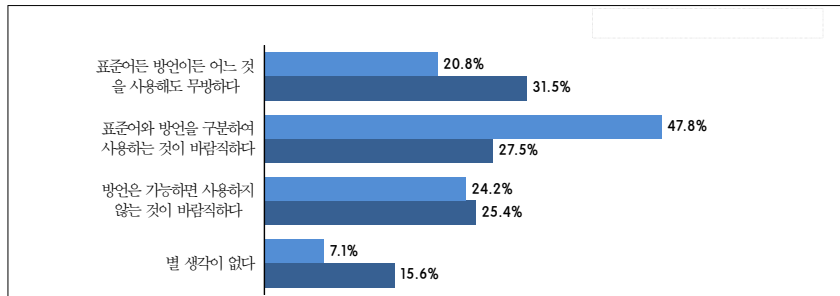
○ 2005년 – 2010년 비교

–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7.8%로 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7.5%로 낮게 나타남.

–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4.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5.4%로 나타남.

–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0.8%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1.5%로 1위를 차지함. 이는 굳이 국어의 사용 환경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의 선택적 사용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표현된 결과임. 이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방언에 대한 국민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도 관련될 수 있음.

〈그림 2-4-6〉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표 2-4-6〉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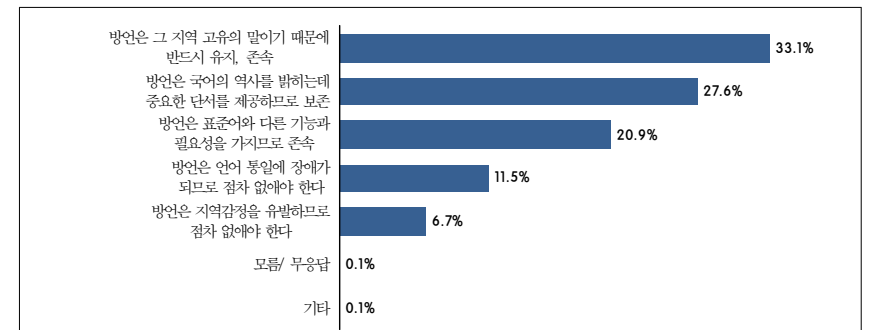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 생각이 없다
전체	(5000)	31.5	27.5	25.4	15.6
성별	남성 (2496)	31.6	26.4	27.2	14.8
	여성 (2504)	31.4	28.5	23.6	16.5
연령별	20대 (971)	30.2	29.5	26.4	13.9
	30대 (1050)	30.6	28.7	26.0	14.7
	40대 (1088)	30.6	28.9	26.7	13.8
	50대 (945)	31.5	25.8	25.9	16.8
	60대이상 (946)	35.0	24.1	21.9	19.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19.8	31.3	36.9	12.0
	강원 (238)	42.4	32.8	14.3	10.5
	충청권 (745)	32.9	33.8	21.1	12.2
	전라권 (752)	36.6	19.4	25.7	18.3
	경상권 (1539)	38.2	22.6	19.2	20.0
	제주 (142)	38.0	37.3	4.9	19.8
	모름/무응답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40.5	25.8	11.5	22.2
	101~200만원 (388)	30.4	28.1	24.0	17.5
	201~250만원 (1097)	33.9	28.9	22.5	14.7
	251~350만원 (1386)	29.3	27.2	26.6	16.9
	351~550만원 (1595)	31.1	26.0	28.7	14.2
	551만원이상 (243)	28.0	32.5	28.8	10.7
	모름 / 무응답 (12)	25.0	33.3	16.7	25.0

7)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 방언에 대해 81.6%의 응답자가 방언을 보존해야한다고 응답을 함.
 - 방언의 존속에 대해서는 ‘방언은 그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33.1%), ‘방언은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보존’(27.6%),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가지므로 존속’(20.9%)이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 결과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두 조사 모두 ‘방언은 그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 ‘방언은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보존’의 순위를 보임.
 - 거주지역별로 볼 때, 2005년 조사에서 제주 지역이 86.2%로 ‘방언은 그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2010년 조사에서도 50.0%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2-4-7〉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표 2-4-7〉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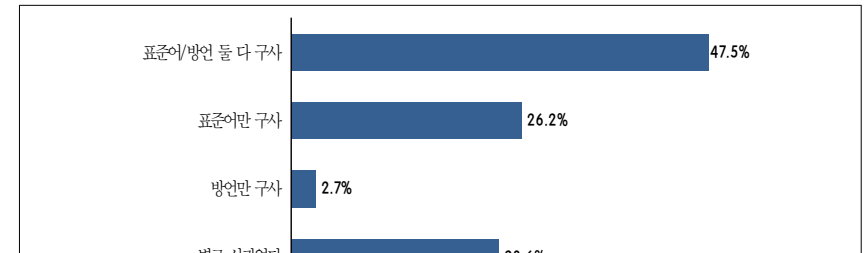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방언은 그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	방언은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보존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가지므로 존속	방언은 언어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방언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모름/무응답	기타
전체		(5000)	33.1	27.6	20.9	11.5	6.7	0.1	0.1
성별	남성	(2496)	31.9	28.6	20.4	11.8	7.1	0.1	0.1
	여성	(2504)	34.4	26.6	21.4	11.2	6.1	0.2	0.1
연령별	20대	(971)	33.6	26.1	20.2	12.9	7.0	0.2	0.0
	30대	(1050)	34.1	24.7	20.2	14.6	6.1	0.1	0.2
	40대	(1088)	32.9	30.1	19.9	10.3	6.7	0.0	0.1
	50대	(945)	30.4	29.6	23.1	9.6	7.0	0.2	0.1
	60대이상	(946)	34.6	27.3	21.5	10.0	6.4	0.1	0.1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26.8	33.0	18.7	14.1	7.2	0.1	0.1
	강원	(238)	54.6	15.1	18.5	4.6	5.9	1.3	0.0
	충청권	(745)	34.8	20.3	25.0	12.6	7.1	0.1	0.1
	전라권	(752)	33.9	27.0	19.7	11.4	7.9	0.0	0.1
	경상권	(1539)	33.6	28.3	21.9	10.0	6.0	0.1	0.1
	제주	(142)	50.0	20.4	23.9	5.7	0.0	0.0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48.4	16.1	19.0	9.3	7.2	0.0	0.0
	101~200만원	(388)	32.0	28.1	19.6	10.3	9.5	0.5	0.0
	201~250만원	(1097)	34.5	23.4	23.2	11.5	7.2	0.2	0.0
	251~350만원	(1386)	32.0	26.5	23.4	11.2	6.6	0.1	0.2
	351~550만원	(1595)	31.8	33.0	17.5	12.6	5.0	0.1	0.0
	551만원이상	(243)	25.9	30.5	23.0	10.7	9.9	0.0	0.0
	모름 / 무응답	(12)	41.7	0.0	25.0	16.7	16.7	0.0	0.0

8) 장래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 향후 자녀의 표준어 사용정도에 대해서는 ‘표준어/방언 둘 다 구사’가 47.5%로 응답이 가장 높았고, ‘표준어만 구사’가 26.2%, ‘방언만 구사’가 2.7%로 나타남.

〈그림 2-4-8〉 장래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표 2-4-8〉 장래 자녀의 표준어 사용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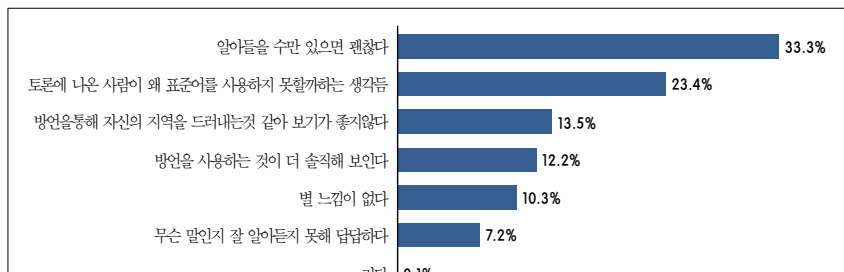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표준어/방언 둘 다 구사	표준어만 구사	방언만 구사	별로 상관없다
전체		(5000)	47.5	26.2	2.7	23.6
성별	남성	(2496)	47.6	25.7	2.6	24.1
	여성	(2504)	47.4	26.6	2.8	23.2
연령별	20대	(971)	46.0	28.5	3.3	22.2
	30대	(1050)	47.8	30.0	3.0	19.2
	40대	(1088)	49.8	25.5	2.5	22.2
	50대	(945)	45.4	23.9	2.2	28.5
	60대이상	(946)	48.2	22.6	2.5	26.7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4.3	41.7	4.1	19.9
	강원	(238)	30.3	45.0	0.0	24.7
	충청권	(745)	45.9	23.9	1.9	28.3
	전라권	(752)	63.6	14.6	4.0	17.8
	경상권	(1539)	56.7	16.1	1.8	25.4
	제주	(142)	47.2	3.5	0.7	48.6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44.1	23.7	30.1	2.2
	101~200만원	(388)	45.4	26.8	22.2	5.7
	201~250만원	(1097)	46.1	26.6	24.8	2.5
	251~350만원	(1386)	49.9	26.8	21.1	2.2
	351~550만원	(1595)	48.5	24.3	24.5	2.7
	551만원이상	(243)	43.2	33.7	20.6	2.5
	모름 / 무응답	(12)	16.7	41.7	33.3	8.3

9)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 텔레비전 대담 및 토론 프로의 토론자가 출신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45.5%)이 부정적인 의견(44.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긍정적인 의견 :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33.3%),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 (12.2%)
 - 부정적인 의견 : ‘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하는 생각들’ (23.4%),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13.5%),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 (7.2%)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에서는 방언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5%(‘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하는 생각이 든다’(31.4%),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24.4%),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 (4.7%))였던 것에 비해 긍정적 의견이 높아짐. 이 역시 방언에 대한 국민 전반적인 긍정적 인식 변화와 관련함.

〈그림 2-4-9〉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표 2-4-9〉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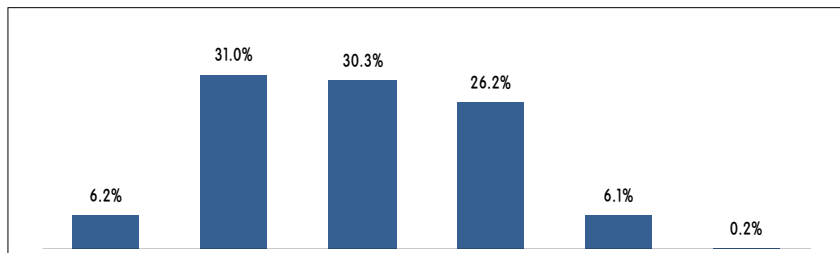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하는 생각들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	별 느낌이 없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	기타
전체		(5000)	33.3	23.4	13.5	12.2	10.3	7.2	0.1
성별	남성	(2496)	34.0	23.0	14.1	12.3	9.7	6.7	0.2
	여성	(2504)	32.5	23.7	12.9	12.1	10.9	7.8	0.1
연령별	20대	(971)	30.8	21.9	13.9	15.0	11.0	7.0	0.4
	30대	(1050)	31.6	24.9	14.3	13.2	8.8	7.1	0.1
	40대	(1088)	31.8	25.9	14.7	10.6	9.7	7.3	0.0
	50대	(945)	33.9	22.9	12.1	10.8	11.4	8.8	0.1
	60대이상	(946)	38.7	20.8	12.1	11.3	11.1	5.8	0.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1.2	21.1	15.7	16.0	7.8	7.9	0.3
	강원	(238)	26.5	23.9	15.5	7.1	14.7	12.2	0.1
	충청권	(745)	31.7	25.0	15.6	10.5	10.5	6.6	0.1
	전라권	(752)	45.9	13.4	10.6	8.4	12.6	9.0	0.1
	경상권	(1539)	31.9	30.7	9.8	12.0	9.9	5.5	0.2
	제주	(142)	23.9	12.7	28.2	8.5	23.2	3.5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39.4	16.5	10.0	10.4	15.8	7.2	0.7
	101~200만원	(388)	36.9	19.6	10.8	10.1	12.6	9.5	0.5
	201~250만원	(1097)	35.9	21.3	12.8	11.5	11.1	7.2	0.2
	251~350만원	(1386)	33.1	26.6	14.7	10.6	9.7	5.3	0.0
	351~550만원	(1595)	30.5	23.6	13.5	14.2	9.8	8.3	0.1
	551만원이상	(243)	25.9	27.6	18.1	16.5	4.1	7.4	0.4
	모름 / 무응답	(12)	58.3	8.3	0.0	8.3	16.7	8.3	0.0

10) 표준어 구사 정도

-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67.5%)은 표준어를 어려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매우 잘 구사: 6.2%, 잘 구사: 31.0%, 어느 정도 구사: 30.3%)으로 나타난 반면, 3명(32.3%) 정도는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이가 많을수록 표준어를 구사하는 정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젊은 세대일수록 학교 현장에서의 표준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경상권 응답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표준어 구사 정도가 낮다고 응답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준어 구사 정도가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의 경우가 가장 높은 표준어 구사 정도를 보임.

〈그림 2-4-10〉 표준어 구사 정도



〈표 2-4-10〉 표준어 구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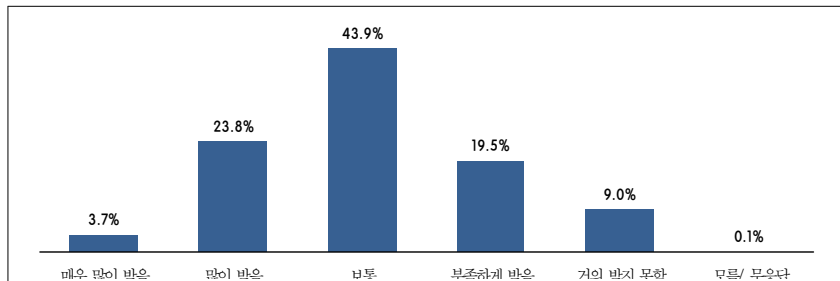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잘 구사	잘 구사하는 편	어느 정도 구사	잘 구사하지 못함	거의 구사하지 못함	모름/ 무응답
전체		(5000)	6.2	31.0	30.3	26.2	6.1	0.2
성별	남성	(2496)	6.2	31.0	29.8	27.0	5.8	0.2
	여성	(2504)	6.2	31.0	30.8	25.4	6.4	0.2
연령별	20대	(971)	10.8	34.8	30.5	20.3	3.4	0.2
	30대	(1050)	6.4	37.5	29.7	21.7	4.4	0.3
	40대	(1088)	4.2	34.2	30.3	26.3	5.0	0.0
	50대	(945)	4.8	27.7	30.3	29.5	7.6	0.1
	60대이상	(946)	4.9	19.2	30.5	33.8	11.3	0.3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9.7	44.3	30.9	12.9	1.9	0.3
	강원	(238)	7.1	52.9	29.8	9.2	1.0	0.0
	충청권	(745)	8.5	34.9	40.8	13.7	1.7	0.4
	전라권	(752)	3.2	22.3	29.9	43.2	1.2	0.2
	경상권	(1539)	2.3	15.5	25.0	40.9	16.3	0.0
가구소득별	제주	(142)	12.0	38.7	27.5	19.0	2.8	0.0
	100만원이하	(279)	5.4	25.8	25.8	31.9	11.1	0.0
	101~200만원	(388)	5.4	24.5	29.6	33.2	7.0	0.3
	201~250만원	(1097)	5.3	31.3	30.0	26.9	6.3	0.3
	251~350만원	(1386)	6.5	29.1	30.8	26.5	6.8	0.3
	351~550만원	(1595)	5.9	33.3	31.0	25.0	4.8	0.1
	551만원이상	(243)	12.8	40.7	29.2	11.9	5.3	0.0
	모름 / 무응답	(12)	0.0	33.3	41.7	16.7	8.3	0.0

11) 표준어 교육

- 표준어 교육을 받은 정도에 대해서는 ‘많이 받음’이 27.5%(매우 많이 받음: 3.7%, 많이 받음: 23.8%)로 나타났으며, ‘부족하게 받음’이 28.5%(부족하게 받음: 19.5%, 거의 받지 못함: 9.0%)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권(36.1%)과 충청권(35.4%)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47.5%)과 제주(41.5%)의 경우 교육을 부족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나이가 많을수록 표준어 교육을 부족하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준어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응답 결과는 문항 10)의 표준어 구사 정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됨. 나이가 많을수록 표준어 구사 정도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표준어 교육과 표준어 구사 정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자료를 통해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11〉 표준어 교육



〈표 2-4-11〉 표준어 교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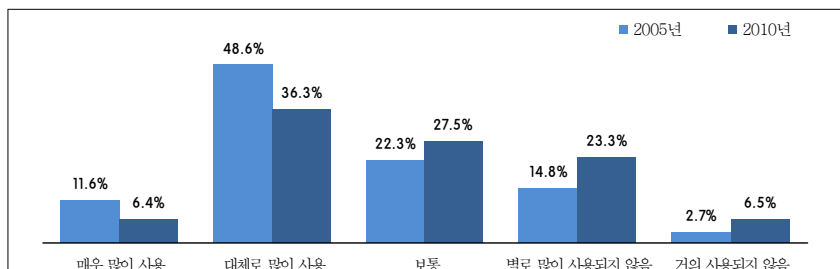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많이 받음	많이 받음	보통	부족하게 받음	거의 받지 못함	모름/무응답
전체	(5000)	3.7	23.8	43.9	19.5	9.0	0.1
성별	남성 (2496)	3.7	24.6	43.5	19.2	8.8	0.2
	여성 (2504)	3.6	23.0	44.2	19.8	9.2	0.2
연령별	20대 (971)	5.1	31.4	41.7	15.7	5.8	0.3
	30대 (1050)	4.5	29.1	46.1	15.1	5.2	0.0
	40대 (1088)	2.9	25.3	45.1	20.1	6.6	0.0
	50대 (945)	2.6	19.4	44.4	23.2	10.2	0.2
	60대 이상 (946)	3.1	12.6	41.5	24.1	18.4	0.3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5.5	30.6	47.7	11.6	4.1	0.5
	강원 (238)	4.2	15.5	63.9	8.4	8.0	0.0
	충청권 (745)	5.9	29.5	50.1	9.4	5.1	0.0
	전라권 (752)	3.7	18.2	45.9	25.0	7.2	0.0
	경상권 (1539)	0.8	19.0	32.7	31.3	16.2	0.0
	제주 (142)	1.4	12.0	45.1	23.9	17.6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3.9	7.9	47.0	20.8	20.1	0.4
	101~200만원 (388)	3.1	20.9	38.9	20.1	16.8	0.3
	201~250만원 (1097)	3.2	21.4	47.3	18.7	9.4	0.0
	251~350만원 (1386)	3.9	27.0	42.3	19.3	7.4	0.1
	351~550만원 (1595)	3.1	25.4	44.0	20.7	6.6	0.2
	551만원이상 (243)	8.6	28.8	39.9	14.8	7.4	0.4
	모름/무응답 (12)	0.0	8.3	58.3	16.7	8.3	8.3

수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1)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42.7%)이 평소 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용되지 않는다’ 응답자는 39.8%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에서는 ‘매우 많이 사용된다’(11.6%)와 ‘대체로 많이 사용된다’(48.6%)에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60.2%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42.7%로 많이 낮아짐. (2005년 부정적 답변 17.4%) 이는 우리말 사용에 대한 국민 의식의 긍정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우리말에 대한 인상 평가’ 조사 문항(p.28)에서 ‘품위가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2005년 조사에 비해 상승한 결과에 주목할 수 있음. 외래어·외국어 사용보다도 우리말 사용이 ‘품위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그 원인임. 또한 TV이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우리말 다듬기의 노력이 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2005년, 2010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외래어·외국어 사용에 대한 국민 의식이 세대별·계층별 기준에 의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됨.

〈그림 2-5-1〉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표 2-5-1〉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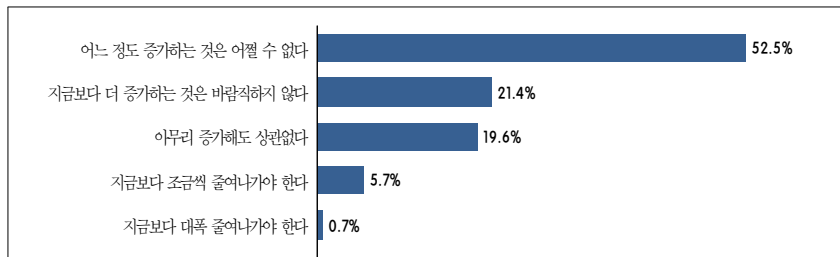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많이 사용	대체로 많이 사용	보통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음	거의 사용되지 않음
전체		(5000)	6.4	36.3	27.5	23.3	6.5
성별	남성	(2496)	5.9	37.8	28.0	22.7	5.6
	여성	(2504)	6.9	34.8	27.1	23.8	7.4
연령별	20대	(971)	9.4	46.2	26.2	16.2	2.0
	30대	(1050)	6.8	40.0	28.9	21.0	3.3
	40대	(1088)	5.5	36.5	27.6	25.1	5.3
	50대	(945)	5.9	32.2	26.9	26.6	8.4
	60대이상	(946)	4.5	25.9	28.1	27.6	13.9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7.2	41.8	28.3	16.5	6.2
	강원	(238)	7.1	36.1	19.7	23.9	13.2
	충청권	(745)	9.3	31.8	34.2	20.1	4.6
	전라권	(752)	7.7	41.4	25.1	23.3	2.5
	경상권	(1539)	3.6	30.5	26.5	30.7	8.7
	제주	(142)	4.9	34.5	20.4	33.8	6.4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6.1	31.9	17.6	27.2	17.2
	101~200만원	(388)	7.2	34.5	22.4	26.5	9.3
	201~250만원	(1097)	5.2	35.8	27.3	24.8	6.9
	251~350만원	(1386)	5.8	39.5	29.4	20.2	5.2
	351~550만원	(1595)	6.4	34.0	29.8	24.5	5.3
	551만원이상	(243)	15.2	42.4	23.9	15.6	2.9
	모름 / 무응답	(12)	0.0	58.3	8.3	25.0	8.3

2)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해 과반수 이상(52.5%)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1.4%),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19.6%),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5.7%), '지금보다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0.7%)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와 비교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다만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1%에서 52.5%로 소폭 감소하였고,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는 비율이 11.0%에서 19.6%로 소폭 증가함.

〈그림 2-5-2〉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표 2-5-2〉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증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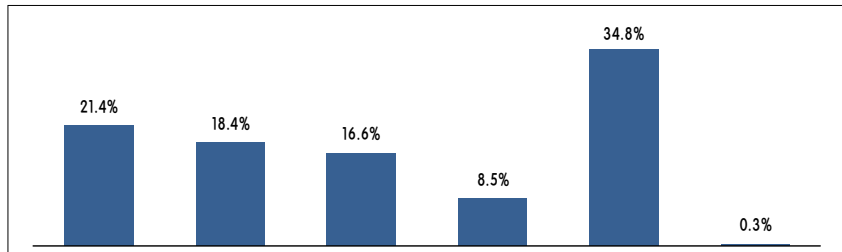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보다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3513)	52.5	21.4	19.6	5.7	0.7	0.1
성별	남성	(1789)	54.3	21.4	18.9	4.8	0.5	0.1
	여성	(1724)	50.6	21.5	20.3	6.7	0.8	0.1
연령	20대	(794)	56.2	15.9	21.8	5.5	0.5	0.1
	30대	(794)	54.0	21.2	19.1	5.0	0.7	0.0
	40대	(757)	52.3	21.7	20.1	5.4	0.5	0.0
	50대	(614)	49.7	25.2	18.4	5.5	0.8	0.4
	60대이상	(554)	48.4	25.1	17.9	7.3	1.3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225)	57.1	22.1	16.0	4.4	0.3	0.1
	강원	(150)	55.3	25.3	12.0	6.0	1.4	0.0
	충청권	(561)	48.8	20.3	23.7	6.4	0.8	0.0
	전라권	(558)	43.2	20.1	31.2	4.8	0.5	0.2
	경상권	(934)	54.3	22.2	14.7	7.5	1.2	0.1
가구소득별	제주	(85)	47.1	11.8	36.5	4.6	0.0	0.0
	100만원이하	(155)	52.3	18.7	21.9	6.5	0.6	0.0
	101~200만원	(249)	50.6	22.5	18.5	6.4	2.0	0.0
	201~250만원	(749)	50.6	21.4	20.2	7.1	0.8	0.0
	251~350만원	(1034)	51.8	22.0	20.0	5.3	0.6	0.3
	351~550만원	(1120)	54.7	21.8	18.1	4.8	0.5	0.0
	551만원이상	(198)	52.5	16.7	24.2	6.1	0.5	0.0
모름 / 무응답		(8)	62.5	37.5	0.0	0.0	0.0	0.0

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21.4%), ‘세련된 느낌이 든다’(18.4%), ‘학식이 높아 보인다’(16.6%), ‘유치해 보인다’(8.5%)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별 느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5년 조사에서 39.9%로 나타난 것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34.8%로 가장 높음.
 - 2005년, 2010년 조사 모두, 젊은 세대일수록 ‘세련된 느낌이 든다’고 응답한 데 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식이 높아 보인다’라고 응답함. 세대별로 포착되는 이러한 차이가 주목됨. 그러나 큰 틀에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세대를 불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끈다는 점은 우리말에 대한 국민 의식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항임.

〈그림 2-5-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표 2-5-3〉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단위: %]

		사례수	잘난 척하는 느낌	세련된 느낌	학식이 높아 보임	유치해 보임	별 느낌이 없다	기타
전체		(5000)	21.4	18.4	16.6	8.5	34.8	0.3
성별	남성	(2496)	22.3	19.1	13.9	8.4	36.1	0.2
	여성	(2504)	20.5	17.7	19.4	8.5	33.6	0.3
연령별	20대	(971)	16.0	22.8	14.4	10.1	36.6	0.1
	30대	(1050)	21.8	20.2	13.1	9.6	34.7	0.6
	40대	(1088)	21.5	19.0	15.1	8.5	35.7	0.2
	50대	(945)	22.6	14.3	20.0	7.2	35.8	0.1
	60대이상	(946)	25.2	15.3	21.2	6.8	31.4	0.1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28.0	19.2	14.3	9.8	28.4
거주지역별	강원	(238)	34.9	7.6	17.6	1.3	38.2	0.4
	충청권	(745)	16.2	15.6	28.7	11.3	27.9	0.3
	전라권	(752)	12.5	34.6	4.4	4.3	44.1	0.1
	경상권	(1539)	20.5	13.5	19.6	9.4	36.9	0.1
	제주	(142)	9.2	9.9	11.3	3.5	65.5	0.6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16.5	15.4	17.9	6.5	43.7	0.0
	101~200만원	(388)	25.8	21.1	13.4	6.4	32.5	0.8
	201~250만원	(1097)	23.1	17.5	14.9	9.0	35.6	0.0
	251~350만원	(1386)	18.5	21.2	20.3	7.6	32.1	0.3
	351~550만원	(1595)	22.4	16.4	15.5	8.7	36.7	0.3
	551만원이상	(243)	23.0	18.9	16.0	15.2	26.7	0.0
	모름 / 무응답	(12)	16.7	8.3	0.0	8.3	66.7	0.0

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 외래어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28.2%),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15.1%),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13.5%)라고 응답함.

– 2005년에는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39.9%)가 가장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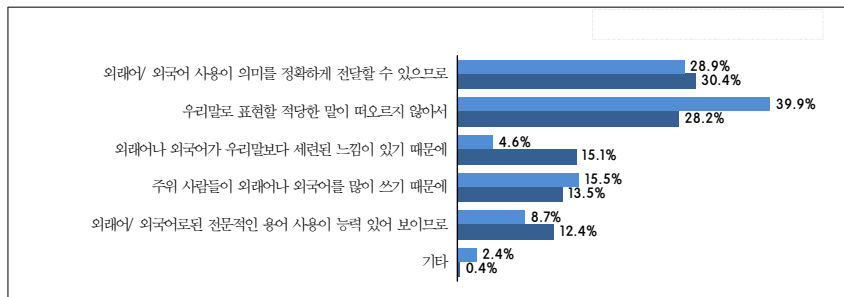
○ 2005년 – 2010년 비교

–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8.9%로 2번째 이유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0.4%로 1번째 이유로 나타남.

–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39.9%로 1번째 이유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8.2%로 2번째 이유를 차지함.

– 2005년, 2010년 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한 항목들은 모두 정확한 의미 전달과 표현을 위한 것이었음. 반면 세련된 느낌이나 주변 의식에 의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은 응답률이 비교적 낮았음. 즉,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이 어감과 같은 표현 외적 요인보다는 어휘의 의미와 같은 표현 내적 요인의 정확성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5-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표 2-5-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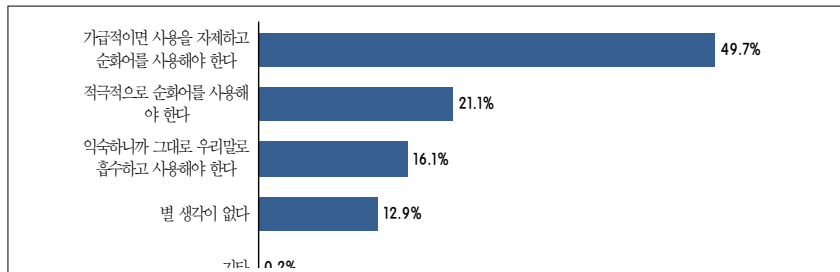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외래어/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	기타
전체		(5000)	30.4	28.2	15.1	13.5	12.4	0.4
성별	남성	(2496)	31.2	28.5	15.3	13.5	11.0	0.5
	여성	(2504)	29.7	27.8	15.0	13.5	13.7	0.3
연령별	20대	(971)	34.0	27.3	14.5	10.7	13.1	0.4
	30대	(1050)	31.1	24.5	17.9	14.4	11.8	0.3
	40대	(1088)	31.5	27.0	15.2	15.6	10.7	0.0
	50대	(945)	29.8	30.1	13.5	14.7	11.5	0.4
	60대이상	(946)	25.4	32.6	14.2	11.6	15.0	1.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28.3	30.2	21.2	10.0	9.7	0.6
	강원	(238)	17.6	37.0	5.9	8.8	30.3	0.4
	충청권	(745)	31.8	31.1	7.7	14.8	14.2	0.4
	전라권	(752)	37.1	26.3	16.5	9.2	10.4	0.5
	경상권	(1539)	32.4	23.8	14.1	18.3	11.2	0.2
	제주	(142)	12.0	32.4	5.6	23.2	26.1	0.7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24.7	38.4	6.8	12.2	16.5	1.4
	101~200만원	(388)	25.8	34.5	12.6	12.9	13.9	0.3
	201~250만원	(1097)	26.4	28.8	16.4	14.4	13.3	0.6
	251~350만원	(1386)	34.5	26.9	14.0	13.5	11.0	0.1
	351~550만원	(1595)	31.7	25.1	17.0	13.8	12.0	0.4
	551만원이상	(243)	32.1	29.6	16.5	9.5	11.9	0.4
	모름 / 무응답	(12)	8.3	41.7	25.0	16.7	0.0	8.3

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

- 우리가 자주 쓰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49.7%)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21.1%),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흡수하고 사용해야 한다’(16.1%)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흡수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5.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6.1%로 다소 높아짐. 국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외국어로서의 일본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 그 외의 항목은 2005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2-5-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



〈표 2-5-5〉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식 말들에 대한 조치 방안

[단위: %]

		사례수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흡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별 생각이 없다	기타
전체		(5000)	49.7	21.1	16.1	12.9	0.2
성별	남성	(2496)	49.9	21.1	15.3	13.5	0.2
	여성	(2504)	49.5	21.1	16.9	12.3	0.2
연령	20대	(971)	49.9	20.1	17.3	12.4	0.3
	30대	(1050)	52.4	21.8	14.2	11.3	0.3
	40대	(1088)	51.1	20.5	16.5	11.9	0.0
	50대	(945)	49.0	22.6	13.3	14.9	0.2
	60대이상	(946)	45.6	20.6	19.3	14.3	0.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52.9	17.3	16.2	13.4	0.2
	강원	(238)	67.6	13.0	9.2	10.2	0.0
	충청권	(745)	44.2	26.7	20.7	8.3	0.1
	전라권	(752)	47.2	12.5	23.4	16.4	0.5
	경상권	(1539)	49.2	28.1	11.8	10.8	0.1
	제주	(142)	31.7	17.6	10.6	39.4	0.7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39.1	13.3	20.8	26.5	0.4
	101~200만원	(388)	45.4	22.9	14.4	17.0	0.3
	201~250만원	(1097)	48.3	22.9	15.2	13.4	0.2
	251~350만원	(1386)	48.9	22.5	16.5	11.8	0.2
	351~550만원	(1595)	54.5	19.7	15.0	10.7	0.1
	551만원이상	(243)	49.0	20.2	22.6	7.8	0.4
	모름 / 무응답	(12)	33.3	33.3	8.3	2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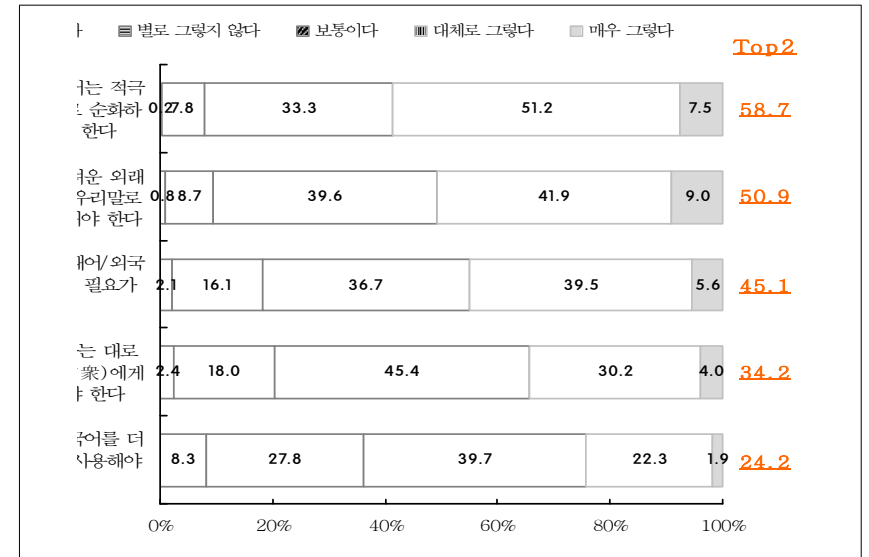
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 국어 순화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외래어나 외국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58.7%),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50.9%)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5.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8.7%로 높게 나타남. TV와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말 다듬기가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3.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5.1%로 비슷하게 나타남.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6.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0.9%로 낮아짐. 이 결과는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항목의 수치 상승과 관련함.
-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 두어 언중에게 사용을 맡겨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19.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4.2%로 다소 높아짐. 이 결과는 방언에 대한 국민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과도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음. 표준어, 즉 규범화된 언어가 아닌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말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식이 증가했듯이, 규범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 의식이 확인됨. 전라권 응답자의 55.2%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외래어와 외국어를 더 많이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4.2%로 많이 높아짐. 특히 전라권 응답자의 44.7%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그림 2-5-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5-6〉 국어 순화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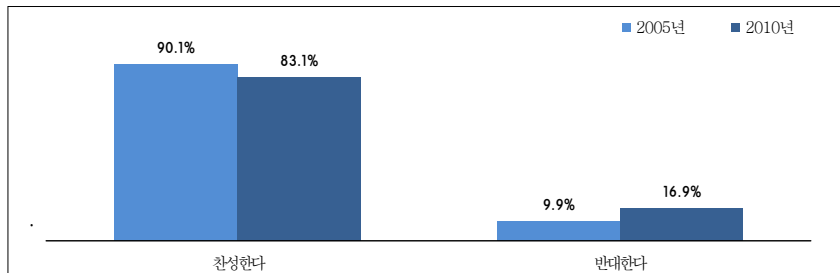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외래어·외국어를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0.2	7.8	33.3	51.2	7.5	3.58점	71.59점
㉡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를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2.1	16.1	36.7	39.5	5.6	3.30점	66.09점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0.8	8.7	39.6	41.9	9.0	3.50점	69.94점
㉣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 두어 언중(言衆)에게 사용을 맡겨야 한다	2.4	18.0	45.4	30.2	4.0	3.15점	63.07점
㉤ 외래어와 외국어를 더 많이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	8.3	27.8	39.7	22.3	1.9	2.82점	56.36점

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순화어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말

- 응답자의 10명 중 8명(83.1%)이 외래어,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진 순화어 사용에 대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에는 10명 중 9명이 순화어 사용에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순화어 사용을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2005년 조사에서 90.1%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83.1%로 다소 낮아짐.

〈그림 2-5-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표 2-5-7〉 순화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5000)	83.1	16.9
성별	남성	(2496)	82.4	17.6
	여성	(2504)	83.8	16.2
연령별	20대	(971)	80.3	19.7
	30대	(1050)	84.4	15.6
	40대	(1088)	84.3	15.7
	50대	(945)	83.9	16.1
	60대이상	(946)	82.5	17.5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81.7	18.3
	강원	(238)	87.4	12.6
	충청권	(745)	86.8	13.2
	전라권	(752)	74.1	25.9
	경상권	(1539)	86.0	14.0
가구소득별	제주	(142)	89.4	10.6
	100만원이하	(279)	70.3	29.7
	101~200만원	(388)	81.2	18.8
	201~250만원	(1097)	83.5	16.5
	251~350만원	(1386)	84.6	15.4
	351~550만원	(1595)	85.5	14.5
	551만원이상	(243)	74.5	25.5
	모름 / 무응답	(12)	91.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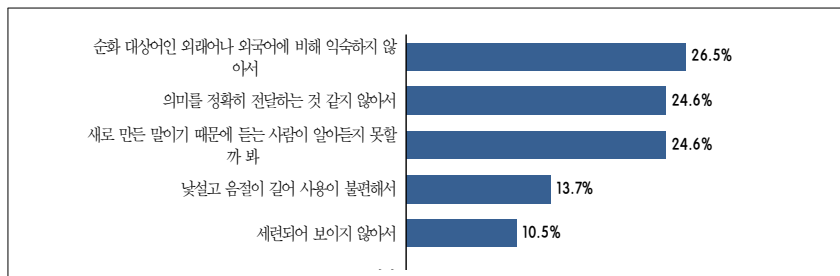
8) 순화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 순화어 사용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반대 이유는 ‘순화 대상어인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아서’가 26.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같지 않아서’, ‘새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가 24.6%, ‘낯설고 음절이 길어 사용이 불편해서’가 13.7%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10년 조사 결과는 2005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다만 2005년 조사에서는 ‘순화어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음.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원인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언어 표현을 위한 내적 요인이 국민의 언어 사용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순화어가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이 2005년 조사에서 2.9%였던 것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는 10.5%로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 2-5-8〉 순화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표 2-5-8〉 순화어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사례수	순화 대상어인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아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같지 않아서	새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낯설고 음절이 길어 사용이 불편해서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서	기타
전체		(844)	26.5	24.6	24.6	13.7	10.5	0.1
성별	남성	(439)	31.7	24.4	21.6	12.3	9.8	0.2
	여성	(405)	21.0	24.9	27.9	15.3	10.9	0.0
연령별	20대	(191)	30.9	16.2	21.5	17.8	13.6	0.0
	30대	(164)	22.0	26.8	22.0	14.0	14.6	0.6
	40대	(171)	26.3	24.0	27.5	14.6	7.6	0.0
	50대	(152)	27.0	27.6	25.0	12.5	7.9	0.0
	60대이상	(166)	25.9	30.1	27.7	9.0	7.3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290)	27.2	27.9	17.9	10.7	16.3	0.0
	강원	(30)	40.0	23.3	20.0	13.3	3.4	0.0
	충청권	(98)	19.4	27.6	30.6	17.3	4.1	1.0
	전라권	(195)	28.7	14.4	39.0	10.3	7.6	0.0
	경상권	(216)	24.1	27.3	19.0	20.4	9.2	0.0
가구소득별	제주	(15)	40.0	40.0	20.0	0.0	0.0	0.0
	100만원이하	(83)	33.7	19.3	25.3	13.3	8.4	0.0
	101~200만원	(73)	23.3	16.4	37.0	9.6	12.3	1.4
	201~250만원	(181)	32.6	21.0	26.0	11.6	8.8	0.0
	251~350만원	(213)	23.5	30.5	21.6	13.1	11.3	0.0
	351~550만원	(231)	25.5	27.7	23.8	13.0	10.0	0.0
	551만원이상	(62)	17.7	19.4	19.4	30.6	12.9	0.0
	모름 /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⑥ 대중매체의 언어

1)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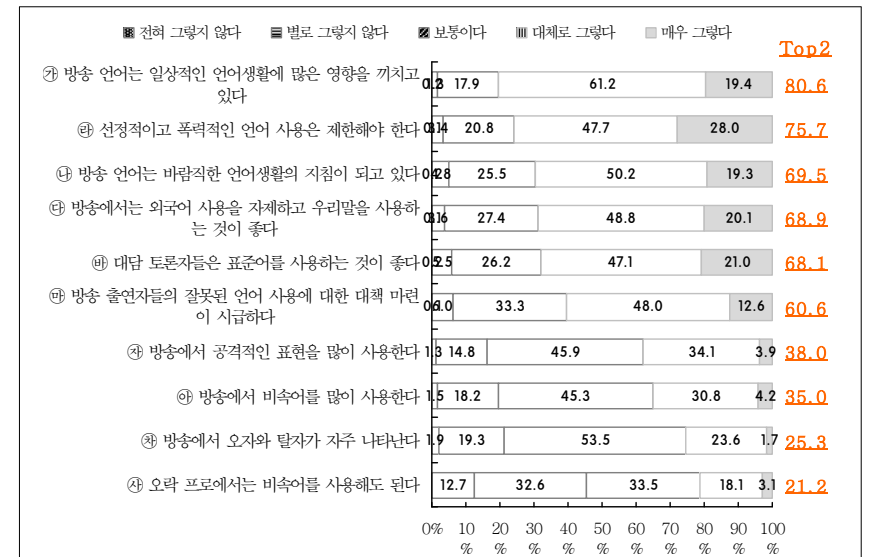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방송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80.6%),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75.7%), ‘방송 언어는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69.5%), ‘방송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68.9%), ‘방송 출연자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68.1%)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방송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0.9%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80.6%로 다소 낮게 나타남.
- ‘방송 언어는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7.8%, 이번 조사에서는 69.5%로 비슷하게 나타남.
- ‘방송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9.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8.9%로 다소 낮아짐.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제한해야 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1.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5.8%로 낮아짐.
- ‘방송 출연자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0.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0.6%로 낮게 나타남.
- ‘대담 토론자들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4.6%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8.2%로 낮아짐.
- ‘오락 프로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해도 좋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1.6%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5.3%로 많이 낮아짐.
- ‘방송에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항목은 긍정적 답변이 35.0%, 보통이 45.1%, 부정적이 19.7%로 나타남.

- ‘방송에서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항목은 긍정적 답변이 38.0%, 보통이 45.7%, 부정적이 16.1%로 나타남.
- ‘방송에서 오자와 탈자가 자주 나타난다’라는 항목은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6-1〉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6-2〉 통신 언어 인지도 및 사용 정도

[단위: %]

		사례수	잘 모르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잘 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싶지만 잘 모른다	모름/무응답	기타
전체		(5000)	54.6	26.8	9.2	8.9	0.4	0.1
성별	남성	(2496)	53.6	27.5	9.7	8.8	0.4	0.0
	여성	(2504)	55.5	26.1	8.6	9.1	0.6	0.1
연령	20대	(971)	19.6	49.5	24.9	5.4	0.4	0.2
	30대	(1050)	47.8	35.3	9.5	7.0	0.3	0.1
	40대	(1088)	59.7	22.8	5.5	11.8	0.2	0.0
	50대	(945)	71.3	14.3	3.5	10.2	0.7	0.0
	60대이상	(946)	75.4	11.0	2.5	10.3	0.8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51.5	30.2	9.8	8.0	0.5	0.0
	강원	(238)	51.3	21.0	21.0	5.9	0.4	0.4
	충청권	(745)	48.9	28.5	10.2	11.4	1.1	-0.1
	전라권	(752)	62.6	22.1	4.4	10.5	0.4	0.0
	경상권	(1539)	55.2	27.0	8.8	8.6	0.2	0.2
가구소득별	제주	(142)	75.4	12.0	6.3	5.6	0.7	0.0
	100만원이하	(279)	71.7	10.4	3.9	12.5	1.1	0.4
	101~200만원	(388)	64.9	19.1	5.7	9.8	0.3	0.3
	201~250만원	(1097)	56.1	23.5	9.0	10.8	0.5	0.1
	251~350만원	(1386)	54.3	28.7	8.7	8.2	0.1	0.1
	351~550만원	(1595)	49.5	31.8	10.7	7.3	0.8	0.0
	551만원이상	(243)	45.7	29.6	14.8	9.1	0.8	0.0
	모름 / 무응답	(12)	66.7	8.3	8.3	16.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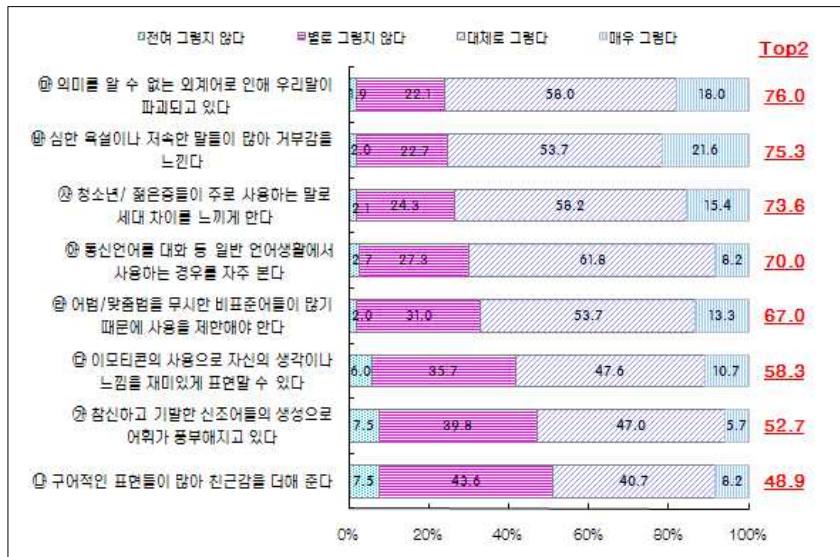
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로 인해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76.0%),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75.3%),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73.6%)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남.
- ‘참신하고 기발한 신조어들의 생성으로 어휘가 풍부해지고 있다’, ‘이모티콘의 사용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음. 고연령대일수록 신조어 생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기존 어휘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을 띠며. 거주지역별로는 제주가 73.2%, 57.0%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보수적인 모습을 보임. 직업별로는 학생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61.0%, 80.0%로 다소 높았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참신하고 기발한 신조어들의 생성으로 어휘가 풍부해지고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4.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2.7%로 이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의견이 과반수를 넘음. 신조어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의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통신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축소되고, 통신 언어로부터 형성된 어휘들도 일반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점진적인 의식 변화를 보여줌.
 - ‘구어적인 표현들이 많아 친근감을 더해 준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0.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8.9%로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 관점이 많음.
 - ‘이모티콘의 사용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0.8%, 이번 조사에서는 58.2%로 비슷한 결과를 보임.
 - ‘어법/맞춤법을 무시한 비표준어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7.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6.9%로 다소 낮아짐.
 -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로 인해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6.0%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6.0%로 나타남. 방언과 순화어에 대한 국민 의식에서 보았듯이 절대적 규범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

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2.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5.3%로 나타남.

- ‘청소년/젊은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90.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3.5%로 낮아짐. 이는 통신 언어가 특정 세대에서만 통용되던 시기로부터 벗어나 점차 국민적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줌. TV와 인터넷의 보급률 증가와 사용 연령의 확대에 의한 결과임.
- ‘통신언어를 대화 등 일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0.0%로 연령이 젊을수록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젊은 연령대에서 통신언어를 일반 언어생활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6-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6-3〉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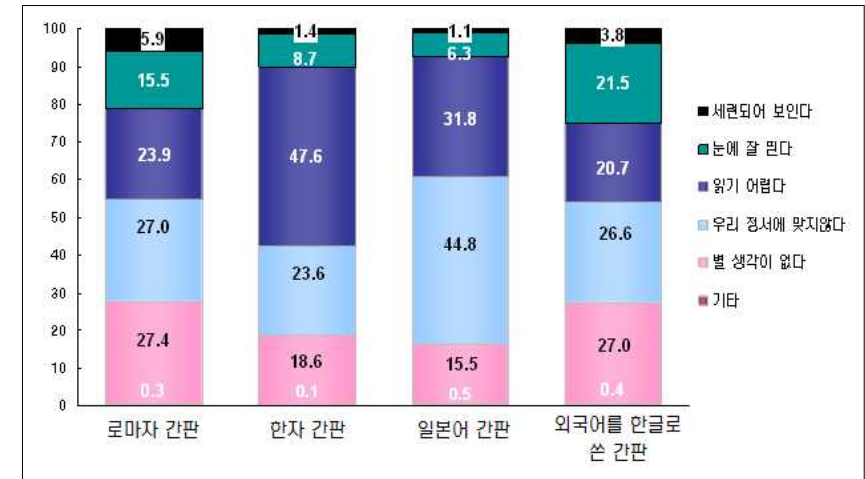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참신하고 기발한 신조어들의 생성으로 어휘가 풍부해지고 있다	7.5	39.8	47.0	5.7	2.51점	62.71점
㉡ 구어적인 표현들이 많아 친근감을 더해 준다	7.5	43.6	40.7	8.2	2.50점	62.39점
㉢ 그림말(이모티콘)의 사용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6.0	35.7	47.6	10.7	2.63점	65.74점
㉤ 어법이나 맞춤법을 무시한 비표준어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2.0	31.0	53.7	13.3	2.78점	69.54점
㉥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로 인해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	1.9	22.1	58.0	18.0	2.92점	73.01점
㉦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	2.0	22.7	53.7	21.6	2.95점	73.73점
㉢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2.1	24.3	58.2	15.4	2.87점	71.69점
㉣ 통신언어를 대화 등 일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2.7	27.3	61.8	8.2	2.76점	68.88점

7 외국 문자 사용

1)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상

-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어로 된 간판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한자 간판'의 경우 '읽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로마자 간판'(27.0%), '일본어 간판'(44.8%), '외국어를 한글로 쓴 간판'(26.6%)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고연령대일수록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음. '로마자 간판'은 고연령대에서 '읽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한자 간판, 일본어 간판'은 젊은 세대일수록 '읽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로마자 간판'에 대한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 '별 생각이 없다', '읽기 어렵다' 등의 의견이 고루 나옴.
 - '한자 간판'에 대한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41.0%)와 마찬가지로 '읽기 어렵다'는 비율이 47.6%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일본어 간판'에 대한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48.0%)와 비슷하게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율이 44.8%로 나타남.
 - '외국어를 한글로 쓴 간판'에 대한 항목은 '별 생각이 없다'(27.0%),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26.6%), '눈에 잘 띈다'(21.5%), '읽기 어렵다'(20.5%) 등으로 '세련되어 보인다'(3.8%)를 제외한 모든 의견이 고루 나타남.

〈그림 2-7-1〉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상



〈표 2-7-1〉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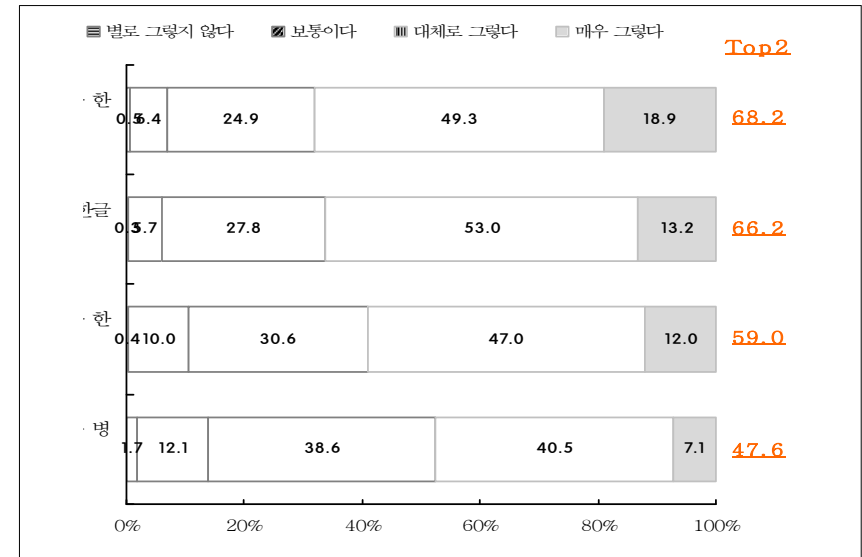
[단위: %]

	세련되어 보인다	눈에 잘 띈다	읽기 어렵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	별 생각이 없다	기타
㉠ 로마자 간판	5.8	15.5	23.9	27.0	27.4	0.3
㉡ 한자 간판	1.2	8.7	47.6	23.6	18.6	0.1
㉢ 일본어 간판	0.9	6.2	31.8	44.8	15.5	0.5
㉣ 외국어를 한글로 쓴 간판	3.8	21.5	20.5	26.6	27.0	0.4

2)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선호도

-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어로 된 간판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일본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한자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66.2%), ‘로마자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59.0%),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47.6%)로 나타남.
- '로마자 간판/한자 간판/일본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의 세 항목에서 모두 20대 응답자의 긍정적인 비율이 평균 이하로 나타남. 거주지역별로는 강원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61.8%/82.4%/78.2%)을 보임.
- 2005년 - 2010년 비교
 - ‘로마자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3.0%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9.0%로 나타남.
 - ‘한자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1.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6.2%로 나타남.
 - ‘일본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4.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8.2%로 나타남.
 -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47.7%로 과반수를 넘지는 못함. 한편, 전라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률(60.0%)이 나타남.
 - 전체적으로, 로마자·한자·일본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00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줄어들었음. 이는 앞선 항목들과 평행하게 해석 가능한 결과임. 국제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외국어로서의 일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끼친 영향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7-2〉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선호도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2-7-2〉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선호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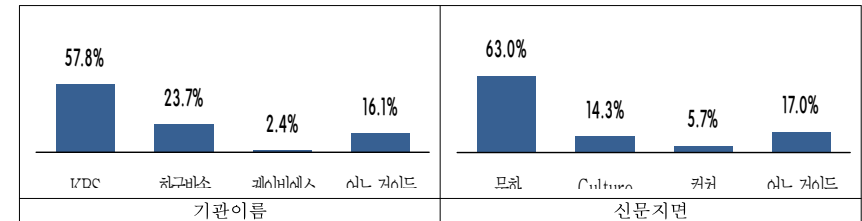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로마자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	0.4	10.0	30.6	47.0	12.0	3.60점	72.07점
㉡ 한자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	0.3	5.7	27.8	53.0	13.2	3.73점	74.62점
㉢ 일본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을 쓰는 것이 좋다	0.5	6.4	24.9	49.3	18.9	3.80점	75.93점
㉣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1.7	12.1	38.6	40.5	7.1	3.39점	67.87점

3)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기관이름/신문지면

- 외국 문자를 이용한 표기와 한글 표기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사용 유형별로 알아본 결과, 방송국과 같은 기관 이름 표기에 있어 'KBS, MBC, EBS'와 같은 '로마자 표기'가 좋다는 의견이 57.8%로 나타남.
- 신문의 주제별 구분 표기에 있어서는 '문화, 의견, 경제'와 같은 한글 표기가 좋다는 의견이 63.0%로 나타남.
- 기관이름과 신문지면에 대한 설문 모두 '케이비에스, 엠비시', '컬처, 오피니언, 이코노미'와 같은 표기에 대한 응답률이 2.4%, 5.7%로 높지 않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기관이름의 경우, 이번 조사의 결과도 2005년과 마찬가지로 'KBS, MBC', '한국방송, 문화방송'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남. 간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표현성이 높은 항목이 높은 수치를 보임.
- 신문지면의 경우, 이번 조사의 결과도 2005년과 마찬가지로 '문화, 의견, 스포츠'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 'Culture, Opinion, Sports'에 대한 응답률이 2005년에는 6.6%였던 것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는 14.3%로 나타남.

〈그림 2-7-3〉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기관이름/신문지면



〈표 2-7-3〉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기관이름/신문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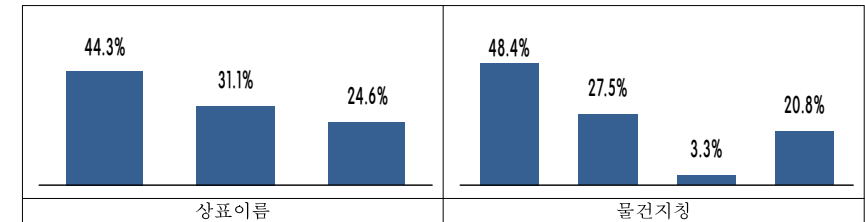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기관이름				신문지면			
		KBS, MBC, EBS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케이비에스, 엠비시, 이비에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문화, 의견, 경제	Culture, Opinion, Economy	컬처, 오피니언, 이코노미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전체	(5000)	57.8	23.7	2.4	16.1	63.0	14.3	5.7	17.0
성별	남성 (2496)	57.9	22.8	2.4	16.9	61.5	14.6	6.3	17.7
	여성 (2504)	57.8	24.5	2.4	15.3	64.5	13.9	5.2	16.4
연령별	20대 (971)	65.4	15.6	2.2	16.8	50.6	23.6	7.2	18.6
	30대 (1050)	61.0	18.2	2.4	18.4	58.8	16.9	5.7	18.7
	40대 (1088)	61.7	21.8	1.8	14.7	64.8	13.9	5.9	15.4
	50대 (945)	54.2	28.1	3.0	14.7	68.8	10.1	5.6	15.6
	60대이상 (946)	45.9	35.7	2.5	15.9	72.5	6.4	4.2	16.8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62.7	22.0	4.5	10.8	56.6	18.2	12.6	12.6
	강원 (238)	58.8	25.6	0.8	14.8	56.3	29.8	1.7	12.2
	충청권 (745)	58.1	20.9	1.1	19.9	68.5	7.9	3.0	20.7
	전라권 (752)	39.9	30.6	2.5	27.0	66.1	6.1	3.3	24.5
	경상권 (1539)	63.0	22.2	1.1	13.7	66.5	15.4	2.2	15.9
가구소득별	제주 (142)	40.1	32.4	0.0	27.5	61.3	8.5	2.1	28.2
	100만원이하 (279)	39.8	41.6	1.4	17.2	76.7	3.9	3.2	16.1
	101~200만원 (388)	45.4	36.3	2.1	16.2	69.8	7.0	2.6	20.6
	201~250만원 (1097)	56.2	25.2	1.7	16.9	65.7	12.5	4.3	17.5
	251~350만원 (1386)	62.8	20.9	2.7	13.5	61.2	18.0	6.1	14.6
	351~550만원 (1595)	60.2	20.3	2.6	16.9	59.9	15.5	7.4	17.2
	551만원이상 (243)	62.6	14.4	2.9	20.2	54.7	16.9	7.0	21.4
	모름 / 무응답 (12)	41.7	16.7	0.0	41.7	58.3	0.0	8.3	33.3

4)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상표이름/물건지칭

- 상표 이름을 표기 할 때에는 '맥심, 폴로'와 같은 한글 표기가 좋다는 의견이 44.3%로 나타남. 그러나 세대별로 살펴보면, 'Maxim, Polo'에 대해 20대 응답자는 45.3%, 60대 이상 응답자는 15.9%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맥심, 폴로'에 대해 20대 응답자는 29.4%, 60대 이상 응답자는 59.5%로 반대의 결과를 보임. 로마자에 익숙한 젊은 세대일수록 한글보다 로마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을 표기 할 때에는 'TV, PC'와 같이 익숙한 '로마자 표기'가 좋다는 의견이 48.4%로 나타남. 그러나 세대별로 살펴보면, 'TV, PC'에 대해 20대 응답자는 57.1%, 60대 이상 응답자는 35.5%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20대 응답자는 17.7%, 60대 이상 응답자는 42.8%로 반대의 결과를 보임. 고연령대일수록 한글 표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의 경우, 'TV, PC'를 선호하는 비율이 40.1%,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를 선호하는 비율이 40.2%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에 비해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더 익숙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런 경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7-4〉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상표이름/물건지칭



〈표 2-7-4〉 분야별 적절한 표기 방법 - 상표이름/물건지칭

[단위: %]

	사례수	상표이름			물건지칭			
		맥심 폴로	Maxim Polo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TV PC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티브이 피시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전체	(5000)	44.3	31.1	24.6	48.4	27.5	3.2	20.8
성별	남성 (2496)	42.9	31.4	25.8	48.6	26.4	3.1	21.9
	여성 (2504)	45.7	30.9	23.4	48.3	28.7	3.3	19.7
연령별	20대 (971)	29.4	45.3	25.3	57.1	17.7	2.7	22.6
	30대 (1050)	33.7	39.1	27.1	52.1	21.0	3.3	23.6
	40대 (1088)	45.3	31.0	23.7	51.3	25.6	4.1	19.0
	50대 (945)	55.0	23.2	21.8	45.2	31.9	3.4	19.6
	60대이상 (946)	59.5	15.9	24.6	35.5	42.8	2.4	19.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45.1	38.6	16.4	51.0	29.1	6.7	13.2
	강원 (238)	38.7	40.3	21.0	56.3	29.0	0.0	14.7
	충청권 (745)	36.4	29.4	34.2	49.3	20.5	0.5	29.7
	전라권 (752)	49.6	20.9	29.5	37.8	29.8	4.3	28.2
	경상권 (1539)	45.5	28.7	25.8	50.6	26.8	1.2	21.3
가구소득별	제주 (142)	45.1	23.2	31.7	35.2	39.4	0.0	25.4
	100만원이하 (279)	59.1	14.3	26.5	29.7	50.5	1.1	18.6
	101~200만원 (388)	54.4	20.9	24.7	32.2	42.0	3.6	22.2
	201~250만원 (1097)	46.0	27.5	26.4	48.7	27.6	2.6	21.1
	251~350만원 (1386)	43.0	33.7	23.3	53.0	23.8	4.0	19.2
	351~550만원 (1595)	41.1	35.3	23.6	50.0	24.8	3.1	22.1
	551만원이상 (243)	32.5	41.6	25.9	58.8	17.3	3.7	20.2
	모름 / 무응답 (12)	25.0	25.0	50.0	41.7	8.3	8.3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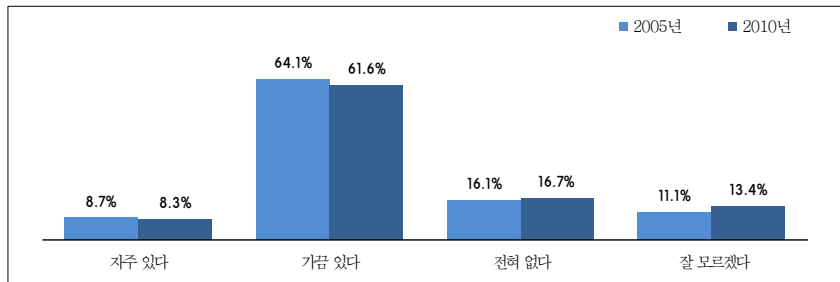
4.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① 국어 교육

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

-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69.9%)는 자주 또는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1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3.4%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에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한 비율이 72.7%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2010년 조사의 결과도 69.9%로 큰 차이가 없음.

〈그림 3-1-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



〈표 3-1-1〉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을 접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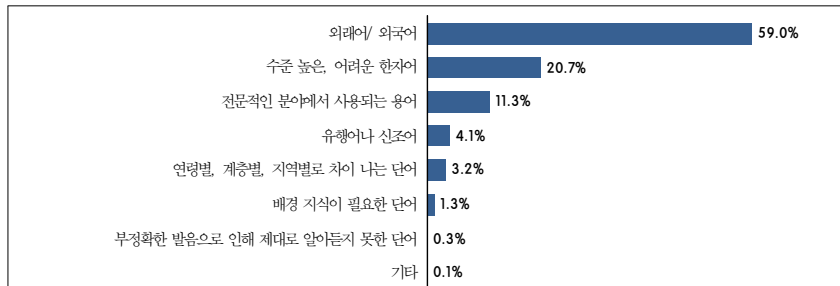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5000)	8.3	61.6	16.7	13.4
성별	남성	(2496)	7.5	60.5	18.2	13.8
	여성	(2504)	9.1	62.7	15.1	13.1
연령별	20대	(971)	3.6	63.1	20.2	13.1
	30대	(1050)	4.2	65.1	19.8	10.9
	40대	(1088)	5.8	63.1	17.7	13.4
	50대	(945)	10.8	59.9	13.9	15.4
	60대이상	(946)	18.1	55.9	11.1	14.9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5.0	50.1	28.9	16.0
	강원	(238)	8.8	70.6	3.4	17.2
	충청권	(745)	7.8	61.1	13.3	17.8
	전라권	(752)	10.4	66.4	15.8	7.4
	경상권	(1539)	9.7	70.6	8.2	11.5
가구소득별	제주	(142)	20.4	53.5	16.2	9.9
	100만원이하	(279)	26.5	49.8	7.5	16.1
	101~200만원	(388)	12.6	60.3	12.4	14.7
	201~250만원	(1097)	8.7	61.6	14.4	15.3
	251~350만원	(1386)	6.1	66.7	14.2	12.9
	351~550만원	(1595)	6.1	60.8	21.8	11.3
	551만원이상	(243)	5.8	52.7	25.1	16.5
	모름 / 무응답	(12)	8.3	66.7	0.0	25.0

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 중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말은 ‘외래어/ 외국어’(5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20.7%),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11.3%)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항목을 2005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37.4%)하였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11.3%밖에 선택을 하지 않았고, ‘외래어/외국어’ 항목을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59.0%)한 것에 반해 2005년 조사에서는 19.2%밖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함. 이는 어려운 ‘외래어/외국어’가 최근 5년간에 늘었다는 것을 보여줌.
 - ‘유행어나 신조어’에 대한 응답이 2005년 17.8%였던 것에 반해, 2010년 조사에서는 4.1%로 큰 차이가 나타남. 앞에서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신조어에 대한 국민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과도 관련성이 높음. 더 폭넓은 사회적 계층에서 신조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1-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



〈표 3-1-2〉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

[단위: %]

		사례수	외래어/ 외국어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유행어나 신조어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차이 나는 단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어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단어	기타
전체		(3494)	59.0	20.7	11.3	4.1	3.2	1.3	0.3	0.1
성별	남성	(1696)	58.8	21.8	9.7	4.0	3.7	1.6	0.3	0.1
	여성	(1798)	59.3	19.6	12.7	4.2	2.8	1.0	0.3	0.1
연령별	20대	(648)	46.6	33.2	11.0	2.9	4.0	1.9	0.3	0.2
	30대	(728)	54.5	22.8	12.9	4.5	3.3	1.5	0.5	0.0
	40대	(750)	59.2	18.8	14.1	3.2	3.6	0.8	0.2	0.1
	50대	(668)	67.1	13.8	9.9	5.2	2.5	1.0	0.4	0.1
	60대이상	(700)	67.4	15.4	8.1	4.4	2.7	1.3	0.7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873)	52.7	19.9	12.9	6.6	4.5	2.5	0.7	0.2
	강원	(189)	70.4	10.6	8.5	6.9	2.5	1.1	0.0	0.0
	충청권	(513)	59.1	17.5	14.8	3.3	3.5	1.2	0.4	0.2
	전라권	(577)	58.6	18.9	14.6	1.9	4.3	1.4	0.3	0.0
	경상권	(1237)	61.4	25.2	7.6	3.3	1.7	0.5	0.3	0.0
가구소득별	제주	(105)	65.7	16.2	10.5	1.9	4.8	0.9	0.0	0.0
	100만원이하	(213)	73.2	11.3	7.0	2.3	3.3	1.9	0.5	0.5
	101~200만원	(283)	61.1	22.3	8.8	3.5	2.8	0.7	0.7	0.0
	201~250만원	(771)	60.6	20.5	10.5	4.3	2.2	1.2	0.8	0.0
	251~350만원	(1010)	59.2	19.9	11.7	4.5	3.4	1.3	0.1	0.0
	351~550만원	(1066)	56.8	22.7	11.4	3.5	4.0	1.2	0.2	0.2
	551만원이상	(142)	43.7	21.8	21.1	7.7	2.8	2.8	0.0	0.0
	모름 / 무응답	(9)	22.2	33.3	33.3	11.1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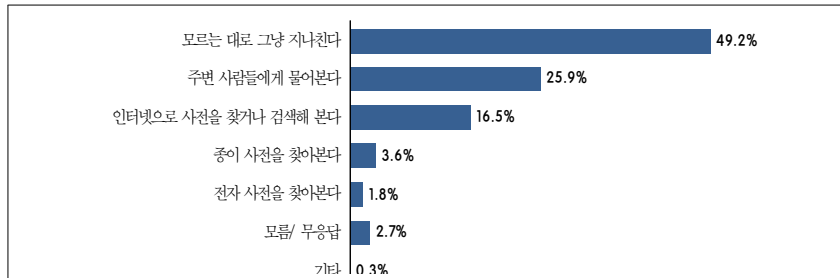
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과반수 정도(49.2%)의 응답자가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25.9%), ‘인터넷으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16.5%)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조사 결과가 비슷함. 다만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에 대한 2005년의 응답 비율이 59.4%인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9.2%로 낮아져 응답자들이 이전에 비해 모르는 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음.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 검색이 용이해졌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백과 사전이나 신어 사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질문과 대담을 통한 소통의 공간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 나이가 많을수록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는 비율과, 나이가 젊을수록 ‘인터넷으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그림 3-1-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표 3-1-3〉 신문·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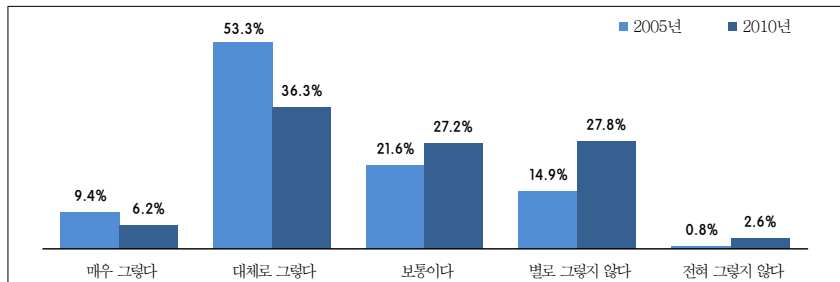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	주변 사람들에 게 물어본다	인터넷으 로 사전을 찾거나 검색해 본다	종이 사전을 찾아본다	전자 사전을 찾아본다	모름/ 무응답	기타
전체		(3494)	49.2	25.9	16.5	3.6	1.8	2.7	0.3
성별	남성	(1696)	48.9	25.6	17.2	3.8	1.9	2.4	0.2
	여성	(1798)	49.4	26.3	16.0	3.4	1.7	3.0	0.2
연령	20대	(648)	37.5	25.8	28.9	2.2	3.1	2.2	0.3
	30대	(728)	39.0	27.6	24.9	3.0	2.7	2.5	0.3
	40대	(750)	46.1	28.5	15.5	4.3	1.6	3.6	0.4
	50대	(668)	57.5	26.0	9.6	3.6	1.0	2.3	0.0
	60대이상	(700)	65.9	21.4	4.3	4.7	0.6	3.0	0.1
	경인권	(873)	45.0	29.9	16.3	4.6	2.2	2.0	0.0
거주지역별	강원	(189)	38.1	11.1	40.2	1.1	2.6	6.9	0.0
	충청권	(513)	42.5	16.0	26.1	6.0	3.7	5.3	0.4
	전라권	(577)	61.7	26.9	5.9	2.8	0.0	2.6	0.1
	경상권	(1237)	50.9	28.1	14.4	2.9	1.6	1.5	0.6
	제주	(105)	46.7	37.1	13.3	0.0	0.0	2.9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13)	69.0	15.5	8.0	3.8	0.5	2.8	0.5
	101~200만원	(283)	62.5	24.0	10.2	1.4	0.4	1.4	0.0
	201~250만원	(771)	49.2	25.7	16.9	4.0	1.6	2.3	0.4
	251~350만원	(1010)	41.5	30.0	18.5	5.0	1.8	3.0	0.3
	351~550만원	(1066)	50.1	25.0	16.7	2.7	2.5	2.9	0.1
	551만원이상	(142)	39.4	25.4	26.1	2.1	2.1	4.2	0.7
	모름 / 무응답	(9)	66.7	22.2	0.0	0.0	11.1	0.0	0.0

4)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

- ‘최근 한국인의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42.5%)는 ‘그렇다’(매우: 6.2%, 대체로: 36.3%)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7.2%, ‘그렇지 않다’는 30.4%(별로: 27.8%, 전혀: 2.6%)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이 조사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2.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2.5%로 많이 낮아짐.
 - 2005년, 2010년 두 조사 모두, 젊은 세대일수록 ‘최근 한국인의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음.

〈그림 3-1-4〉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



〈표 3-1-4〉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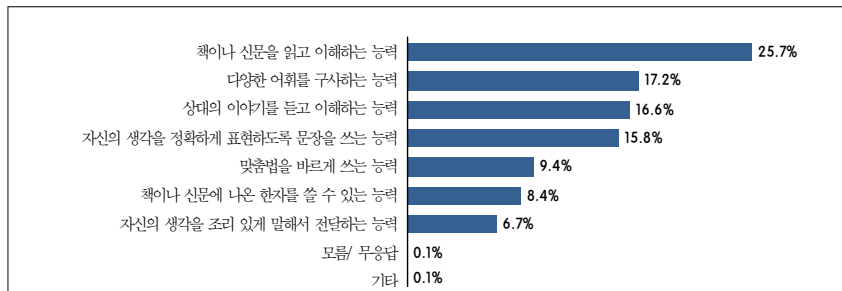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0)	6.2	36.3	27.2	27.8	2.5
성별	남성 (2496)	6.1	36.2	25.8	29.2	2.7
	여성 (2504)	6.2	36.4	28.6	26.4	2.4
연령별	20대 (971)	4.8	38.8	25.7	28.9	1.8
	30대 (1050)	5.6	39.0	26.3	26.9	2.2
	40대 (1088)	5.6	36.5	27.7	27.2	3.0
	50대 (945)	6.9	34.8	26.6	28.9	2.8
	60대이상 (946)	8.0	31.8	29.8	27.2	3.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5.4	32.5	25.7	34.0	2.4
	강원 (238)	8.4	45.4	24.4	20.2	1.6
	충청권 (745)	9.7	31.3	33.8	22.4	2.8
	전라권 (752)	6.0	34.7	23.3	32.4	3.6
	경상권 (1539)	5.1	43.5	28.5	20.7	2.2
	제주 (142)	5.6	19.0	20.4	50.7	4.3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7.2	31.2	26.9	30.1	4.7
	101~200만원 (388)	8.2	33.2	25.8	29.4	3.4
	201~250만원 (1097)	6.3	35.5	27.4	27.9	2.9
	251~350만원 (1386)	4.5	37.7	28.6	26.8	2.2
	351~550만원 (1595)	6.3	36.4	27.1	28.0	2.2
	551만원이상 (243)	9.9	42.0	19.8	26.3	2.1
	모름 / 무응답 (12)	0.0	33.3	50.0	16.7	0.0

5)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 순위

- ‘최근 한국인의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 저하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책이나 신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25.7%)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능력’(17.2%),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16.6%),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문장을 쓰는 능력’(15.8%)이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의 경우 국어 능력 저하 원인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문장을 쓰는 능력’ 부분이 1순위 선택 비율이 22.0%, 1+2순위 선택 비율이 36.9%인 것에 비해 이번 조사의 경우는 1순위 15.8%(4번째), 1+2순위 32.9%(3번째)로 낮게 나타남. 이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 1순위나 1+2순위에서 가장 높은 선택을 하였던 ‘책이나 신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부분은 2005년 조사에서는 1순위, 1+2순위의 응답 비율이 각각 17.5%(3번째), 24.0%(5번째)임.
 - 두 조사 결과에서 '맞춤법을 바르게 쓰는 능력'에 대한 응답률이 18.4%에서 9.4%로 줄어든 반면,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능력'은 11.5%에서 17.2%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응답은 7.8%에서 16.6%로 상승함.

〈그림 3-1-5〉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 순위



〈표 3-1-5〉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저하 순위(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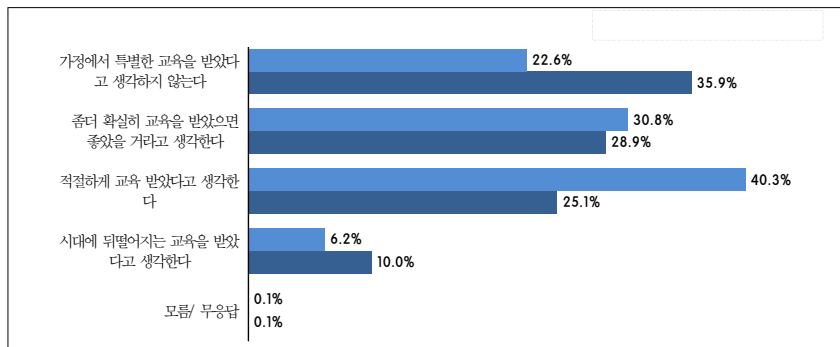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책이나 신문을 읽고 이해하 는 능력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 는 능력	상대의 이야기 를 듣고 이해하 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 게 표현하 도록 문장을 쓰는 능력	맞춤법 을 바르게 쓰는 능력	책이나 신문에 나온 한자를 쓸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서 전달하 는 능력	모름/ 무응답	기타
전체		(3482)	25.7	17.2	16.6	15.8	9.4	8.4	6.7	0.1	0.1
성별	남성	(1700)	25.4	18.0	16.1	15.3	8.6	8.5	7.8	0.2	0.1
	여성	(1782)	26.0	16.4	17.1	16.2	10.2	8.2	5.7	0.2	0.0
연령별	20대	(674)	26.7	19.1	14.2	13.2	10.5	9.5	6.2	0.6	0.0
	30대	(745)	26.8	15.8	15.6	16.5	11.0	8.7	5.2	0.3	0.1
	40대	(759)	25.0	17.0	17.7	13.8	9.2	10.1	7.0	0.2	0.0
	50대	(645)	24.0	15.5	18.8	15.8	9.9	6.4	9.3	0.2	0.1
	60대이상	(659)	25.6	18.5	16.8	19.7	6.1	6.7	6.1	0.5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007)	31.9	13.6	16.9	14.4	8.6	7.0	7.0	0.5	0.1
	강원	(186)	15.1	29.0	3.2	22.0	14.0	11.3	5.4	0.0	0.0
	충청권	(557)	28.2	13.6	15.8	15.6	15.3	4.7	6.6	0.0	0.2
	전라권	(481)	7.1	32.2	16.0	20.0	3.1	13.7	7.9	0.0	0.0
	경상권	(1187)	29.2	14.2	19.3	13.3	9.3	8.4	6.1	0.2	0.0
	제주	(64)	10.9	12.5	12.5	34.4	6.3	12.5	10.9	0.0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182)	19.2	20.9	13.2	25.3	7.1	6.6	7.7	0.0	0.0
	101~200만원	(261)	23.0	17.6	14.9	13.4	10.3	11.1	8.4	1.1	0.0
	201~250만원	(759)	29.8	17.7	16.6	14.0	6.5	7.8	7.4	0.3	0.1
	251~350만원	(983)	27.8	16.4	18.6	16.8	8.2	6.5	5.6	0.1	0.0
	351~550만원	(1113)	24.1	17.8	16.1	14.6	10.9	10.0	6.4	0.2	0.0
	551만원이상	(174)	17.8	10.3	14.4	19.5	19.5	8.6	8.6	0.6	0.6
	모름 / 무응답	(10)	10.0	30.0	20.0	0.0	20.0	10.0	10.0	0.0	0.0

6)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35.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좀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28.9%), ‘적절하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한다’(25.1%)로 나타남.
- 젊은 세대일수록 '적절하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한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와 함께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응답률도 젊은 세대가 높은 편임.
- 2005년 - 2010년 비교
 -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2.6%로 3번째 응답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5.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그 위 항목은 2005년과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임.
 - 2005년에는 ‘적절하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25.1%로 3번째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림 3-1-6〉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표 3-1-6〉 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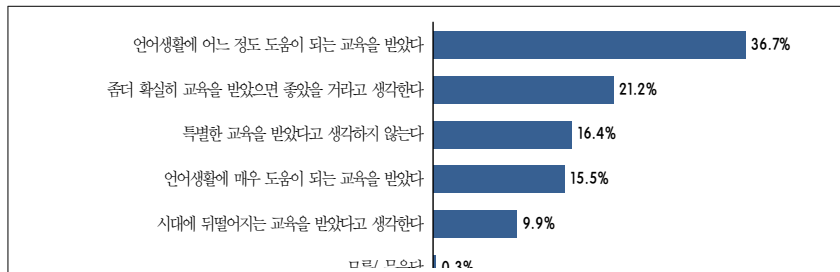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적절하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모름/ 무응답
전체	(5000)	35.9	28.9	25.1	10.0	0.1
성별	남성 (2496)	35.4	30.5	25.0	9.0	0.1
	여성 (2504)	36.3	27.3	25.1	11.1	0.2
연령	20대 (971)	29.7	28.4	36.4	5.4	0.1
	30대 (1050)	31.2	32.3	27.2	9.3	0.0
	40대 (1088)	34.5	31.3	23.7	10.2	0.3
	50대 (945)	41.0	27.6	20.4	11.0	0.0
	60대이상 (946)	43.9	24.1	17.2	14.6	0.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8.3	30.7	22.0	8.8	0.2
	강원 (238)	31.1	10.9	49.6	8.4	0.0
	충청권 (745)	31.0	33.0	30.7	5.0	0.3
	전라권 (752)	43.2	26.1	23.5	7.2	0.0
	경상권 (1539)	30.1	30.9	23.2	15.7	0.1
	제주 (142)	65.5	11.3	16.9	6.3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47.7	15.4	21.1	15.8	0.0
	101~200만원 (388)	42.5	20.4	24.0	13.1	0.0
	201~250만원 (1097)	42.1	22.6	26.2	8.9	0.2
	251~350만원 (1386)	30.7	23.7	35.5	10.1	0.1
	351~550만원 (1595)	32.3	30.0	28.1	9.4	0.2
	551만원이상 (243)	35.4	30.0	27.2	7.0	0.4
	모름 / 무응답 (12)	58.3	25.0	0.0	16.7	0.0

7)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의견이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좀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21.2%),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6.4%)라고 응답함.
-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에 대한 제주 지역의 응답률이 17.6%로 비교적 낮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 조사가 비슷한 결과를 보임. 다만 2005년 조사 항목에 없었던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16.4%인 점이 특이함.

〈그림 3-1-7〉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표 3-1-7〉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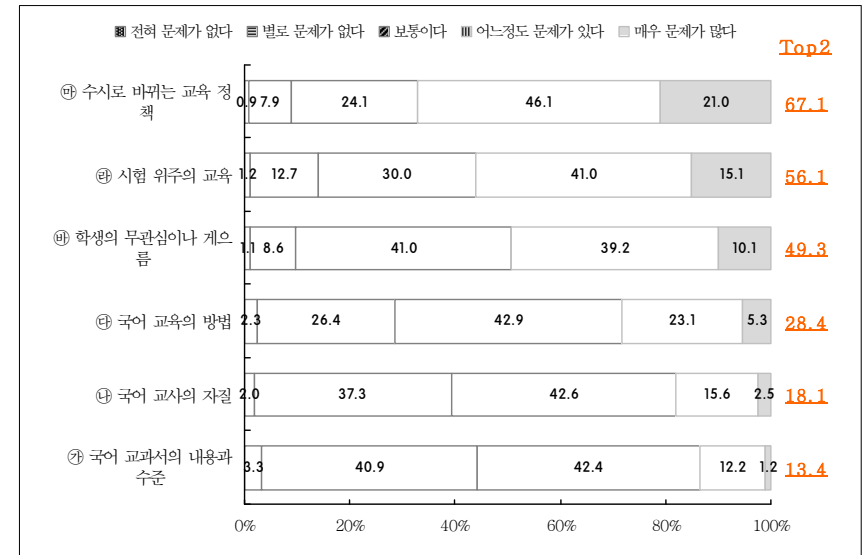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좀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5000)	36.7	21.2	16.4	15.5	9.9	0.3
성별	남성	(2496)	37.8	20.1	15.7	16.2	9.9	0.3
	여성	(2504)	35.7	22.4	17.2	14.9	9.7	0.1
연령별	20대	(971)	44.3	13.4	14.4	19.9	7.6	0.4
	30대	(1050)	39.8	21.2	14.7	16.2	7.9	0.2
	40대	(1088)	38.8	22.4	15.0	16.1	7.5	0.2
	50대	(945)	31.7	24.8	18.7	14.0	10.7	0.1
	60대이상	(946)	28.1	24.4	19.9	11.3	16.0	0.3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9.6	16.5	16.9	14.3	12.4	0.3
	강원	(238)	50.0	16.4	12.2	7.1	13.9	0.4
	충청권	(745)	41.1	22.6	9.5	19.6	7.2	0.0
	전라권	(752)	26.2	21.8	28.5	17.8	5.3	0.4
	경상권	(1539)	36.5	25.6	12.8	15.3	9.5	0.3
	제주	(142)	17.6	25.4	30.3	12.0	14.7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24.0	23.7	25.8	10.4	14.3	1.8
	101~200만원	(388)	24.7	26.0	25.0	12.4	11.9	0.0
	201~250만원	(1097)	34.8	20.0	20.1	14.8	10.4	0.0
	251~350만원	(1386)	40.8	24.2	10.1	16.5	8.3	0.1
	351~550만원	(1595)	39.7	18.9	15.7	16.1	9.5	0.3
	551만원이상	(243)	37.9	16.0	14.8	20.6	10.3	0.4
	모름 / 무응답	(12)	8.3	8.3	58.3	25.0	0.0	0.0

8)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과 '시험 위주의 교육'이 문제라고 각각 67.1%, 56.1%가 응답하였으며,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와 '국어 교사의 자질'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8.8%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3.4%로 비슷하게 나타남.
 - '국어 교사의 자질'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5.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8.1%로 높아짐.
 - '국어 교육의 방법'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16.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8.4%로 다소 높아짐.
 - '시험위주의 교육' 항목을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41.6%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6.1%로 높아짐.
 -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26.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7.1%로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선택함.
 - 2005년 조사 항목에는 없었던 '학생의 무관심이나 게으름'을 선택한 비율이 49.3%로 과반수에 가깝게 나타난 점이 특이함.
 - 두 조사 결과에서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2005년 조사에서는 '시험 위주의 교육,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국어 교육의 방법' 순이었다면, 2010년 조사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시험 위주의 교육, 학생의 무관심이나 게으름' 순이었음.

〈그림 3-1-8〉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Top 2 : 매우 문제가 많다 +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

〈표 3-1-8〉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점

[단위: %, Base: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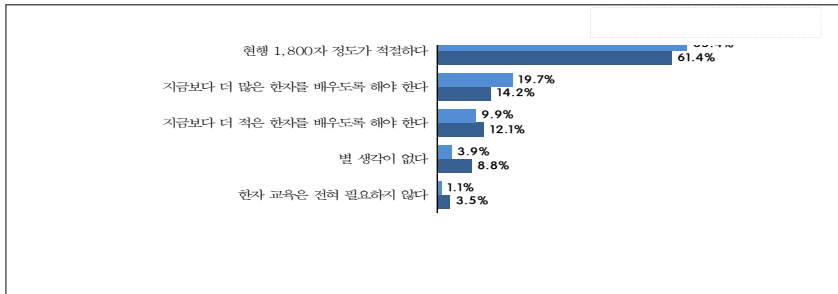
	매우 문제가 많다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	보통이다	별로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	1.2	12.2	42.4	40.9	3.3	3.33점	66.58점
㉣ 국어 교사의 자질	2.5	15.6	42.6	37.3	2.0	3.21점	64.15점
㉣ 국어 교육의 방법	5.3	23.1	42.9	26.4	2.3	2.97점	59.49점
㉡ 시험 위주의 교육	15.1	41.0	30.0	12.7	1.2	2.44점	48.80점
㉠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21.0	46.1	24.1	7.9	0.9	2.22점	44.32점
㉢ 학생의 무관심이나 게으름	10.1	39.2	41.0	8.6	1.1	2.51점	50.27점

② 한자 교육

1) 우리나라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800자의 한자를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 교육 범위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행 1,800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6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14.2%), ‘지금보다 더 적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12.1%)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세대별로도 응답률에 대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3-2-1〉 우리나라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표 3-2-1〉 우리나라 현행 한자 교육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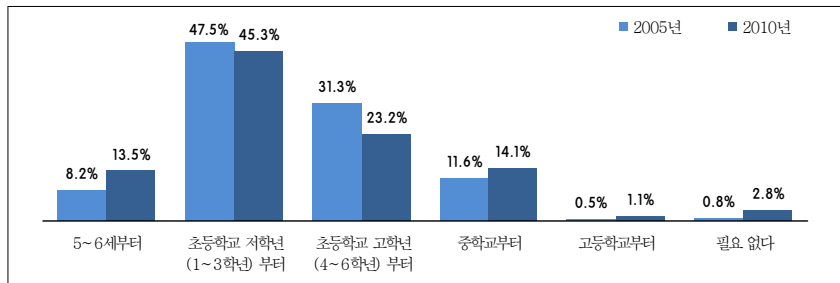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현행 1,800자 정도가 적절하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적은 한자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별 생각이 없다	한자 교육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5000)	61.4	14.2	12.1	8.8	3.5
성별	남성	(2496)	61.4	13.4	12.5	8.5	4.2
	여성	(2504)	61.4	14.9	11.8	9.1	2.8
연령별	20대	(971)	58.0	13.9	13.6	9.9	4.6
	30대	(1050)	62.0	12.9	11.6	8.9	4.6
	40대	(1088)	65.6	13.9	11.6	6.7	2.2
	50대	(945)	62.5	13.9	11.5	9.5	2.6
	60대이상	(946)	58.2	16.5	12.5	9.5	3.3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61.6	10.0	9.3	15.2
	강원	(238)	49.6	36.1	4.2	8.0	2.1
	충청권	(745)	62.0	22.0	7.2	4.8	4.0
	전라권	(752)	65.8	13.2	14.2	3.9	2.9
	경상권	(1539)	60.0	12.2	17.5	6.6	3.7
	제주	(142)	66.9	8.5	13.4	10.6	0.6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55.6	19.0	6.8	14.7	3.9
	101~200만원	(388)	54.6	17.0	13.1	11.6	3.6
	201~250만원	(1097)	59.6	16.4	10.2	10.0	3.7
	251~350만원	(1386)	65.7	12.1	13.1	6.1	3.0
	351~550만원	(1595)	61.5	13.0	13.8	8.2	3.6
	551만원이상	(243)	62.6	13.6	9.9	10.7	3.3
	모름 / 무응답	(12)	50.0	8.3	0.0	41.7	0.0

2)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 한자 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로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부터’라는 의견이 4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부터’라는 의견이 23.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초등학교부터 한자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3-2-2〉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표 3-2-2〉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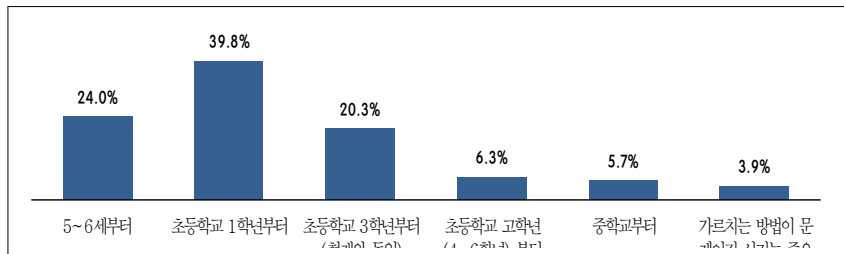
		사례수	5~6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 터	필요 없다
전체		(5000)	13.5	45.3	23.2	14.1	1.1	2.8
별성	남성	(2496)	12.7	45.2	22.4	15.9	1.2	2.6
	여성	(2504)	14.4	45.4	24.0	12.4	1.0	2.8
연령	20대	(971)	13.7	45.6	21.3	14.7	1.6	3.1
	30대	(1050)	15.9	43.5	23.6	14.1	0.6	2.3
	40대	(1088)	12.2	47.3	24.1	13.0	0.9	2.5
	50대	(945)	14.0	43.0	25.2	14.0	1.3	2.5
	60대이상	(946)	11.8	46.8	21.7	15.1	1.0	3.6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14.1	41.0	24.0	14.3	1.8	4.8
	강원	(238)	28.2	30.7	23.1	14.7	2.1	1.2
	충청권	(745)	18.3	45.9	19.5	14.4	0.7	1.2
	전라권	(752)	5.7	56.5	22.9	12.2	0.5	2.2
	경상권	(1539)	13.1	46.5	23.5	14.2	0.7	2.0
	제주	(142)	4.2	42.3	33.1	19.7	0.0	0.7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13.3	39.4	18.3	19.7	1.4	7.9
	101~200만원	(388)	14.2	41.0	22.2	18.6	0.5	3.6
	201~250만원	(1097)	14.8	45.4	22.7	13.3	1.5	2.3
	251~350만원	(1386)	11.2	47.0	24.5	13.8	1.2	2.3
	351~550만원	(1595)	15.2	45.7	23.7	12.5	0.8	2.1
	551만원이상	(243)	9.9	45.7	21.4	17.7	0.4	4.9
	모름 / 무응답	(12)	16.7	50.0	33.3	0.0	0.0	0.0

③ 외국어 교육

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영어 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라는 의견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5~6세부터’가 24.0%로 그 다음을 차지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행보다 좀 더 빨리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응답함.
- ‘현행대로’라는 의견은 20.3%로 나타났으며, 현행보다 늦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와 ‘중학교부터’라는 응답이 각각 6.3%, 5.7%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권, 강원도의 경우 ‘5~6세부터’의 항목이 34.2%, 32.8%로 평균(24.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이 두 지역만이 ‘5~6세부터’의 응답률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의 응답률보다 높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5~6세부터’라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14.2%로 3번째로 높았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4.0%로 2번째로 높은 점이 특이함. 점차 영어 교육 실시 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영어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그 실시 시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3-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표 3-3-1〉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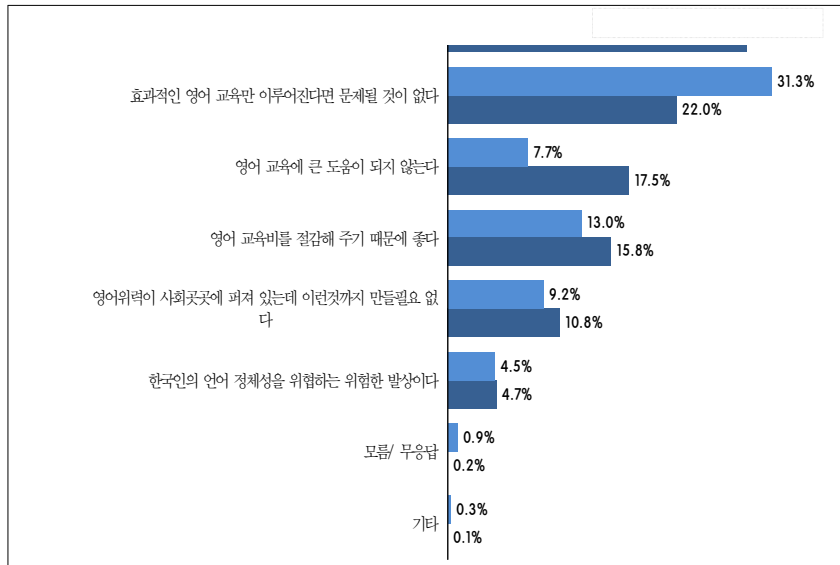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5~6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현재와 동일)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부터	중학교부터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이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전체		(5000)	24.0	39.8	20.3	6.3	5.7	3.9
성별	남성	(2496)	22.7	39.0	19.9	7.0	7.1	4.3
	여성	(2504)	25.2	40.5	20.7	5.5	4.4	3.7
연령별	20대	(971)	24.6	38.5	20.7	4.5	5.5	6.2
	30대	(1050)	27.2	40.5	17.3	5.0	6.2	3.8
	40대	(1088)	25.0	39.6	21.4	6.8	3.4	3.8
	50대	(945)	22.5	40.6	20.3	7.5	5.6	3.5
	60대이상	(946)	19.9	39.5	21.9	7.6	8.1	3.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4.2	30.7	21.9	6.9	4.0	2.3
	강원	(238)	32.8	25.6	16.8	10.1	6.7	8.0
	충청권	(745)	22.6	41.1	16.2	4.2	8.5	7.4
	전라권	(752)	16.9	43.6	23.4	7.2	4.8	4.1
	경상권	(1539)	16.8	48.0	19.5	5.7	6.4	3.6
	제주	(142)	18.3	47.2	21.8	4.9	5.6	2.2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22.6	34.8	16.8	6.1	12.2	7.5
	101~200만원	(388)	19.6	39.7	15.2	8.8	9.8	7.0
	201~250만원	(1097)	26.3	38.4	17.1	7.3	6.3	4.6
	251~350만원	(1386)	22.7	44.1	21.4	5.2	4.0	2.5
	351~550만원	(1595)	25.3	38.2	22.7	6.1	4.5	3.3
	551만원이상	(243)	20.6	37.4	24.7	4.9	7.0	5.3
	모름 / 무응답	(12)	16.7	41.7	16.7	8.3	0.0	16.7

2) 영어 마을에 대한 견해

- 수도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 마을에 대해 응답자들은 ‘효과적인 영어 교육 방법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28.9%), ‘효과적인 영어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22.0%), ‘영어 교육비를 절감해 주기 때문에 좋다’(15.8%)와 같은 긍정적인 의견이 66.7%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효과적인 영어 교육 방법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33.1%, 이번 조사에서는 28.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효과적인 영어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31.3%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2.0%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영어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7.7%로 매우 낮았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그 외 항목은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3-3-2〉 영어 마을에 대한 견해



〈표 3-3-2〉 영어 마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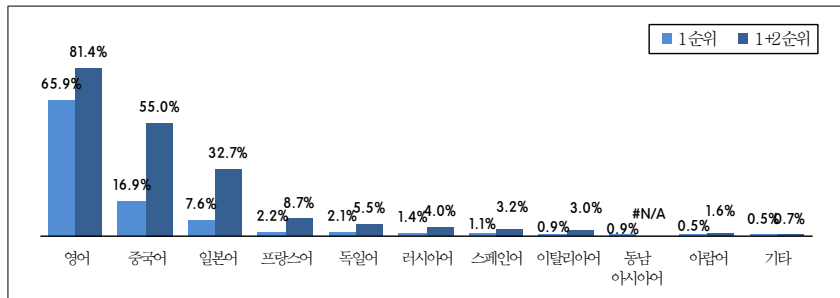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효과적인 영어 교육 방법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영어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영어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어 교육비를 절감해 주기 때문에 좋다	영어위력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 필요 없다	한국인의 언어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모름/무응답	기타
전체	(5000)	28.9	22.0	17.5	15.8	10.8	4.7	0.2	0.1
성별	남성 (2496)	29.3	21.9	18.0	15.0	10.4	5.0	0.3	0.1
	여성 (2504)	28.4	22.0	16.9	16.5	11.2	4.6	0.3	0.1
연령별	20대 (971)	29.2	24.1	17.5	14.5	9.8	4.2	0.4	0.3
	30대 (1050)	28.8	21.3	17.6	16.5	10.7	4.8	0.2	0.1
	40대 (1088)	29.4	21.0	17.7	16.5	10.0	5.1	0.2	0.1
	50대 (945)	28.0	20.8	17.0	16.2	12.0	5.7	0.3	0.0
	60대 이상 (946)	28.9	22.8	17.3	14.9	11.7	4.2	0.2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27.4	21.3	19.3	17.4	10.6	3.9	0.1	0.0
	강원 (238)	48.7	26.5	11.3	7.6	5.0	0.9	0.0	0.0
	충청권 (745)	25.5	30.9	16.5	15.4	5.6	5.2	0.5	0.4
	전라권 (752)	27.8	13.6	17.4	15.2	21.4	4.6	0.0	0.0
	경상권 (1539)	29.0	20.5	17.7	16.5	9.5	6.3	0.4	0.1
	제주 (142)	33.8	35.9	9.9	8.5	7.7	4.2	0.0	0.0
가구소득별	100만원 이하 (279)	31.5	24.0	15.1	10.0	13.6	4.7	1.1	0.0
	101~200만원 (388)	24.5	25.5	16.8	13.4	13.7	5.4	0.5	0.3
	201~250만원 (1097)	29.6	22.5	14.2	15.4	11.7	6.3	0.2	0.1
	251~350만원 (1386)	27.3	23.0	17.6	15.7	10.6	5.6	0.1	0.1
	351~550만원 (1595)	31.0	19.6	19.0	17.7	9.3	3.2	0.1	0.1
	551만원 이상 (243)	24.3	21.4	25.5	14.8	10.3	3.7	0.0	0.0
	모름/무응답 (12)	41.7	25.0	8.3	16.7	8.3	0.0	0.0	0.0

3)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 국민들이 국어 외에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는 '영어'(6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어'(16.9%), '일본어'(7.6%), '프랑스어'(2.2%)라고 응답함.
- 중복응답의 경우 '영어'(81.4%), '중국어'(55.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전라권은 '중국어'에 대한 응답률이 33.2%로 평균(16.9%)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고, 제주 지역은 '일본어'에 대한 응답률이 28.2%로 평균(7.6%)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3-3-3〉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표 3-3-3〉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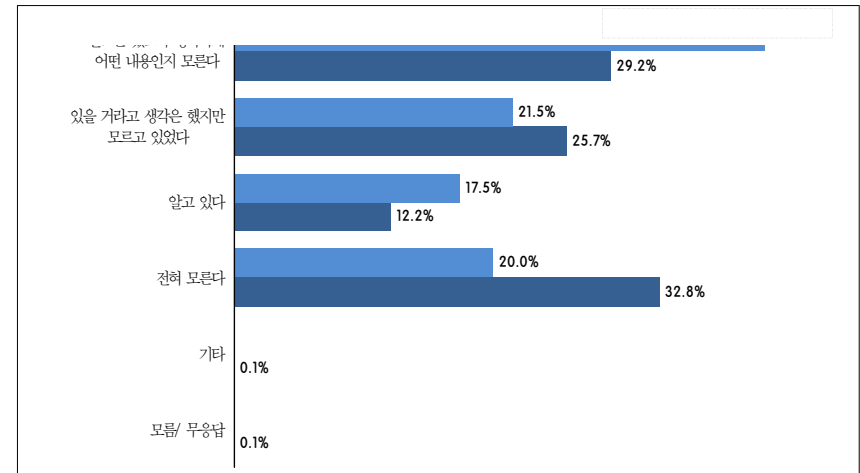
	사례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동남아시아어	아랍어	기타
전체	(5000)	65.9	16.9	7.6	2.2	2.1	1.4	1.1	0.9	0.9	0.5	0.5
성별	남성 (2496)	65.7	17.8	7.4	1.7	2.0	1.6	1.0	0.9	1.0	0.5	0.4
	여성 (2504)	66.1	16.1	7.9	2.8	2.1	1.2	1.1	1.0	0.7	0.5	0.5
연령별	20대 (971)	64.4	13.3	7.5	3.9	4.4	2.0	1.6	1.2	0.7	0.6	0.4
	30대 (1050)	65.9	15.2	9.1	2.3	1.7	1.6	1.1	1.1	1.1	0.9	0.0
	40대 (1088)	65.3	17.6	7.4	2.5	1.8	1.3	1.2	1.1	1.1	0.4	0.3
	50대 (945)	68.1	18.6	5.6	1.6	1.4	1.1	1.0	0.5	0.8	0.6	0.7
	60대이상 (946)	65.9	20.1	8.4	0.8	1.1	1.2	0.3	0.6	0.3	0.1	1.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64.2	15.5	7.3	2.7	3.3	2.4	1.0	1.9	0.8	0.6	0.3
	강원 (238)	82.4	9.2	3.9	0.8	0.0	0.4	1.3	0.4	0.8	0.4	0.4
	충청권 (745)	73.3	12.8	5.7	2.0	1.7	1.3	1.3	0.4	0.3	0.4	0.8
	전라권 (752)	41.9	33.2	11.2	4.4	2.9	1.2	1.3	1.1	2.3	0.5	0.0
	경상권 (1539)	75.1	13.6	5.8	1.2	0.8	0.6	0.9	0.3	0.6	0.6	0.5
가구소득별	제주 (142)	45.1	18.3	28.2	0.7	2.1	1.4	0.0	0.0	0.0	0.0	4.2
	100만원이하 (279)	57.0	24.4	12.2	1.1	0.7	0.4	1.1	0.7	0.7	0.0	1.8
	101~200만원 (388)	57.5	22.7	10.6	2.8	1.8	0.8	0.3	1.0	1.3	0.0	1.3
	201~250만원 (1097)	68.0	16.7	7.0	2.0	1.6	1.6	0.6	0.8	0.7	0.7	0.1
	251~350만원 (1386)	71.5	15.2	5.3	1.9	1.5	1.3	1.2	0.3	1.1	0.4	0.3
	351~550만원 (1595)	64.5	16.3	8.0	2.4	2.9	1.8	1.2	1.1	0.7	0.7	0.4
	551만원이상 (243)	58.0	14.4	10.7	4.9	3.7	0.0	2.5	3.7	0.8	0.4	0.8
	모름 / 무응답 (12)	50.0	25.0	16.7	0.0	0.0	0.0	0.0	0.0	0.0	0.0	8.3

4 어문 규범

1) 어문 규범 인지도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같은 국어 어문 규범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4명(41.4%)이었으며, 이 중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이며,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 반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5%)은 어문 규범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르고 있었다’(25.7%), ‘전혀 모른다’(32.8%)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에는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모른다’의 경우 2005년 19.9%였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3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 조사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어문 규범을 모르고 있다고 선택한 비율이 41.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8.5%로 높게 나옴. 앞선 조사 항목에서 방언과 순화어 등과 관련하여 규범의 강제성에 대한 국민 의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그림 3-4-1〉 어문 규범 인지도



〈표 3-4-1〉 어문 규범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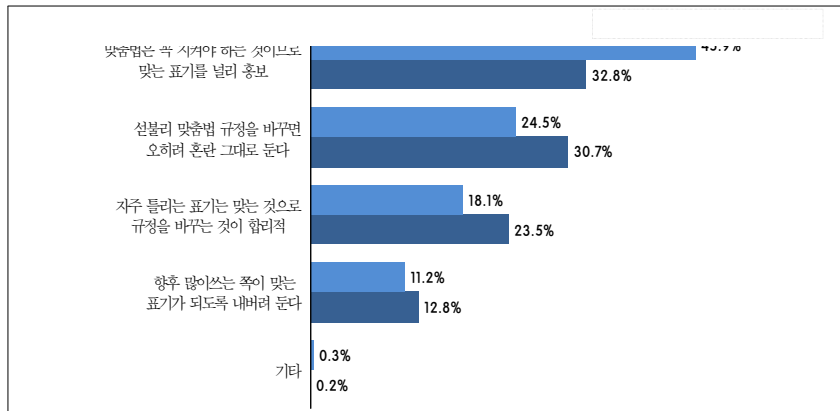
		사례수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기타
전체		(5000)	29.2	25.7	12.2	32.8	0.1
성별	남성	(2496)	30.7	25.6	13.1	30.3	0.3
	여성	(2504)	27.6	25.8	11.2	35.4	0.0
연령별	20대	(971)	40.1	21.4	18.3	19.9	0.3
	30대	(1050)	36.4	28.2	13.3	22.0	0.1
	40대	(1088)	29.6	30.1	11.3	28.9	0.1
	50대	(945)	21.9	25.7	9.8	42.6	0.0
	60대이상	(946)	16.8	22.1	7.8	53.3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1.4	25.4	9.3	33.9	0.0
	강원	(238)	29.4	17.6	27.3	25.7	0.0
	충청권	(745)	27.9	26.2	18.5	27.1	0.3
	전라권	(752)	24.3	29.5	10.3	35.9	0.0
	경상권	(1539)	29.2	26.1	10.1	34.5	0.1
	제주	(142)	35.9	15.7	17.8	30.6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12.9	20.8	11.1	54.5	0.7
	101~200만원	(388)	30.7	23.5	8.2	37.6	0.0
	201~250만원	(1097)	28.2	22.8	12.3	36.6	0.2
	251~350만원	(1386)	29.9	30.7	11.3	28.0	0.1
	351~550만원	(1595)	32.3	24.7	12.8	30.1	0.1
	551만원이상	(243)	26.3	25.1	19.8	28.8	0.0
	모름 / 무응답	(12)	8.3	33.3	16.7	41.7	0.0

2)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예: 찌개(x) ⇒ 찌개(○), 갈래(x) ⇒ 갈래(○)

- 자주 틀리는 한글에 대해 맞춤법 규정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맞춤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맞는 표기를 널리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선풍리 맞춤법 규정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 그대로 둔다'(30.7%), '자주 틀리는 표기는 맞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23.5%), '향후 많이 쓰는 쪽이 맞는 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12.8%)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맞춤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맞는 표기를 널리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5년 45.9%로, 2010년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풍리 맞춤법 규정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므로 그대로 둔다'에 대한 의견이 2005년 24.5%에서 2010년 30.7%로 다소 높게 나타남.
 - 2005년, 2010년 두 조사에서 '선풍리 맞춤법 규정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므로 그대로 둔다', '자주 틀리는 표기는 맞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 '향후 많이 쓰는 쪽이 맞는 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53.8%, 67%로 과반수를 넘음. 이 결과 역시 규범 적용의 강제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앞선 조사 항목 가운데 방언, 순화어와 관련한 결과와 관련성이 높음.

〈그림 3-4-2〉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표 3-4-2〉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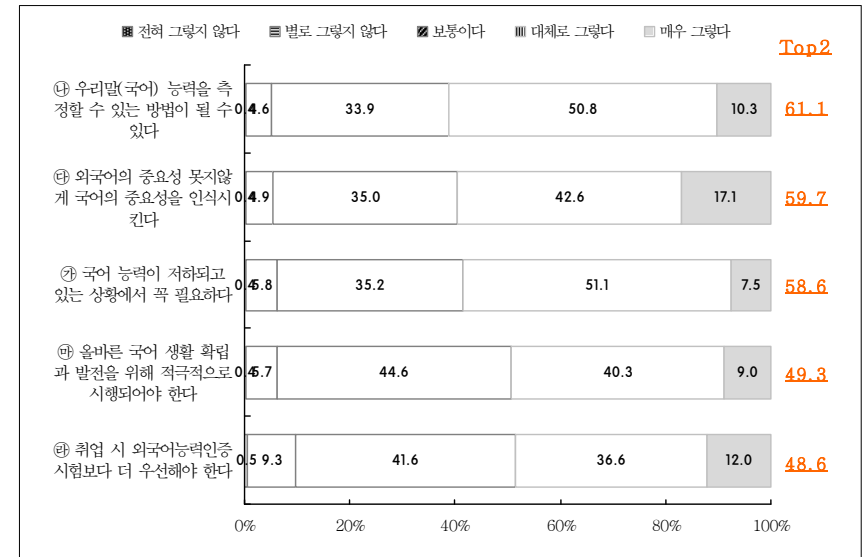
		사례수	맞춤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맞는 표기를 널리 홍보	선풍리 맞춤법 규정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 그대로 둔다	자주 틀리는 표기는 맞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	향후 많이 쓰는 쪽이 맞는 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	기타
전체		(5000)	32.8	30.7	23.5	12.8	0.2
성별	남성	(2496)	33.5	29.0	24.4	12.9	0.2
	여성	(2504)	32.1	32.3	22.6	12.7	0.3
연령별	20대	(971)	35.2	30.8	24.6	9.3	0.1
	30대	(1050)	38.5	29.0	22.4	10.1	0.0
	40대	(1088)	31.3	31.9	22.6	14.0	0.2
	50대	(945)	29.2	30.1	25.1	15.3	0.3
	60대이상	(946)	29.5	31.6	23.3	15.4	0.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3.4	31.0	22.7	12.8	0.1
	강원	(238)	56.7	18.5	16.8	8.0	0.0
	충청권	(745)	35.2	25.6	25.4	13.4	0.4
	전라권	(752)	18.0	41.5	27.1	13.4	0.0
	경상권	(1539)	35.7	30.7	22.6	10.8	0.2
	제주	(142)	21.8	15.5	26.1	36.6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25.4	23.7	25.1	25.1	0.7
	101~200만원	(388)	28.1	27.3	25.0	19.3	0.3
	201~250만원	(1097)	32.1	27.4	24.7	15.7	0.1
	251~350만원	(1386)	32.4	32.5	25.0	10.0	0.1
	351~550만원	(1595)	35.4	33.5	21.1	9.9	0.2
	551만원이상	(243)	38.3	29.6	21.4	10.7	0.0
	모름 / 무응답	(12)	25.0	25.0	41.7	8.3	0.0

수 언어 정책

1) 우리말(국어) 능력 종합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 우리말 능력 종합 평가 시험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우리말(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61.1%), ‘외국어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59.7%)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70.6%, 71.8%, 76.5%, 59.2%, 65.1%).
- 2005년 - 2010년 비교
 -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5.0%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8.6%로 나타남.
 - ‘우리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7.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1.1%로 나타남.
 - ‘외국어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5.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59.7%로 나타남.
 - ‘취업 시 외국어능력시험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58.1%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8.5%로 나타남.
 - ‘올바른 국어 생활 확립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6.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9.3%로 나타남.
 - 2005년 조사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함. 무엇보다도 규범 차원의 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그림 3-5-1〉 우리말(국어) 능력 종합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Top 2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표 3-5-1〉 우리말(국어) 능력 종합 평가 시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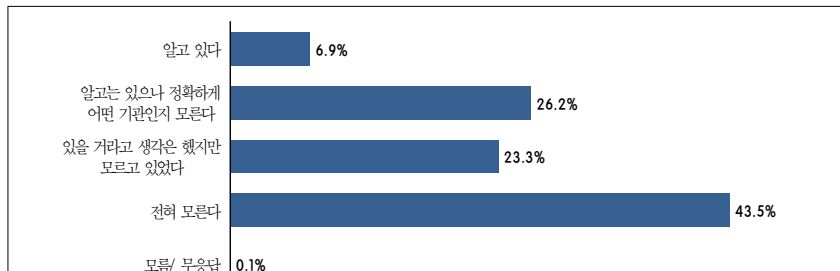
[단위: %, Base: 5,000]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 국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0.4	5.8	35.2	51.1	7.5	3.59점	71.89점
㉠ 우리말(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0.4	4.6	33.9	50.8	10.3	3.66점	73.21점
㉡ 외국어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0.4	4.9	35.0	42.6	17.1	3.71점	74.20점
㉤ 취업 시 외국어능력시험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	0.5	9.3	41.6	36.6	12.0	3.50점	70.06점
㉣ 올바른 국어 생활 확립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0.4	5.7	44.6	40.3	9.0	3.52점	70.35점

2) 국어문화원 인지도

-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국어문화원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33.1%)이었으며, 이 중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9%이며,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6.2%로 나타남.
- 반면 응답자의 66.8%는 국어문화원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르고 있었다'(23.3%), '전혀 모른다'(43.5%)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알고 있다'에 대해 제주(16.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반면 강원(1.7%)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직업별로는 '알고 있다'에 대해 학생(11.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3-5-2〉 국어문화원 인지도



〈표 3-5-2〉 국어문화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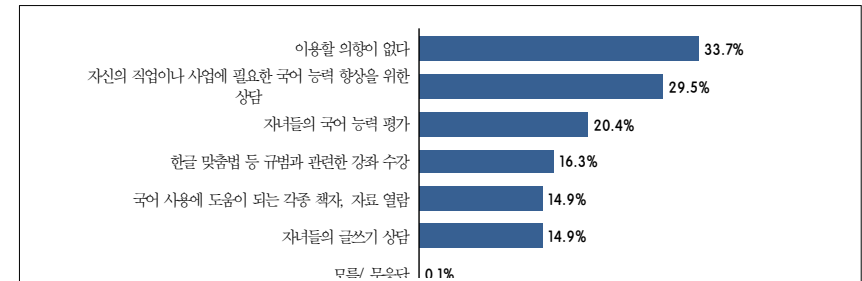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알고 있다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모른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른다	모름/ 무응답
전체	(5000)	6.9	26.2	23.3	43.5	0.1
성별	남성 (2496)	7.6	26.7	23.0	42.6	0.1
	여성 (2504)	6.2	25.6	23.6	44.6	0.0
연령별	20대 (971)	10.6	35.3	18.2	35.7	0.2
	30대 (1050)	7.7	31.4	25.6	35.3	0.0
	40대 (1088)	6.7	27.4	27.9	37.9	0.1
	50대 (945)	5.1	19.5	23.6	51.7	0.1
	60대이상 (946)	4.2	16.3	20.5	59.0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8.5	30.2	24.1	37.2	0.0
	강원 (238)	1.7	40.8	15.5	42.0	0.0
	충청권 (745)	7.1	23.4	27.0	42.4	0.1
	전라권 (752)	6.9	22.6	27.3	43.2	0.0
	경상권 (1539)	5.1	23.2	21.3	50.2	0.2
가구소득별	제주 (142)	16.2	22.5	9.9	51.4	0.0
	100만원이하 (279)	1.8	20.1	14.0	64.2	0.0
	101~200만원 (388)	5.7	23.2	25.5	45.6	0.0
	201~250만원 (1097)	5.9	24.2	21.9	47.9	0.0
	251~350만원 (1386)	7.1	28.2	28.0	36.4	0.2
	351~550만원 (1595)	8.0	27.8	22.0	42.2	0.1
	551만원이상 (243)	10.7	25.5	19.3	44.4	0.0
	모름 / 무응답 (12)	8.3	8.3	25.0	58.3	0.0

3) 국어문화원 이용 희망 형태에 대한 의견

- 가까운 곳에 국어문화원이 있다면 이용 희망 형태에 대해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3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 필요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29.5%), '자녀들의 국어 능력 평가'(20.4%), '한글 맞춤법 등 규범과 관련한 강좌 수강'(16.3%)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연령대일수록 '이용할 의향이 없다'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60대 이상: 48.9%, 20대: 26.4%). 한편,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 필요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60대 이상: 24.7%, 20대: 37.4%).
- 2005년 - 2010년 비교
 - '자녀들의 국어 능력 평가'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29.6%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0.4%로 나타남.
 - '자녀들의 글쓰기 상담'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4.9%로 낮게 나타남.
 - '한글 맞춤법 등 규범과 관련한 강좌 수강'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30.4%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6.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국어 사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책자, 자료 열람'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27.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4.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 필요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항목은 2005년 조사의 경우 선택한 비율이 29.7%로 이번 조사의 결과 역시 29.5%로 비슷하게 나타남.
 - 2010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이용할 의향이 없다'에 대한 응답률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됨.

〈그림 3-5-3〉 국어문화원 이용 희망 형태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표 3-5-3〉 국어문화원 이용 희망 형태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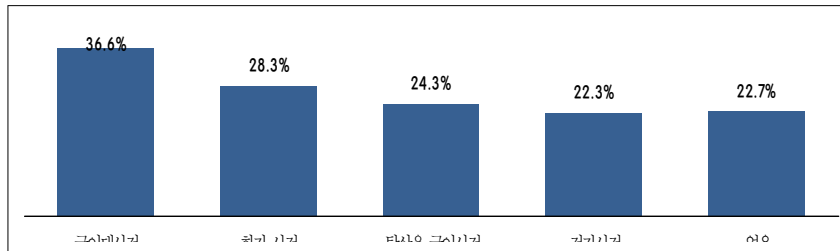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이용할 의향이 없다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 필요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자녀들의 국어 능력 평가	한글 맞춤법 등 규범과 관련한 강좌 수강	국어 사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책자, 자료 열람	자녀들의 글쓰기 상담	모름/ 무응답
전체	(5000)	33.7	29.5	20.4	16.3	14.9	14.9	0.1
성별	남성 (2496)	33.9	30.5	18.8	15.8	15.3	12.9	0.2
	여성 (2504)	33.5	28.5	22.0	16.8	14.5	16.8	0.1
연령별	20대 (971)	26.4	37.4	15.4	17.4	17.9	13.9	0.4
	30대 (1050)	23.8	32.7	26.3	17.1	16.7	19.2	0.0
	40대 (1088)	30.2	26.5	26.6	16.5	13.8	18.7	0.2
	50대 (945)	41.0	26.0	18.2	15.0	13.1	11.5	0.0
	60대 이상 (946)	48.9	24.7	14.1	15.3	12.8	9.9	0.1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5.5	24.6	18.5	17.7	13.7	13.0	0.1
	강원 (238)	16.0	21.4	18.5	49.2	14.7	9.2	0.0
	충청권 (745)	22.1	34.1	28.7	18.7	22.0	16.2	0.3
	전라권 (752)	42.0	36.3	10.0	14.4	14.1	14.6	0.0
	경상권 (1539)	35.6	30.3	24.6	10.3	13.0	17.4	0.1
가구소득별	제주 (142)	38.7	28.9	10.6	8.5	15.5	11.3	0.7
	100만원이하 (279)	59.5	18.6	5.7	15.1	8.2	5.0	0.0
	101~200만원 (388)	45.4	24.5	12.4	16.5	13.9	9.0	0.0
	201~250만원 (1097)	39.9	23.8	19.9	14.8	13.6	12.2	0.1
	251~350만원 (1386)	27.0	33.2	24.5	16.7	18.6	16.5	0.0
	351~550만원 (1595)	28.4	33.5	21.3	16.7	13.9	17.8	0.4
	551만원이상 (243)	30.5	28.4	23.9	18.5	15.6	18.5	0.0
	모름 / 무응답 (12)	33.3	25.0	8.3	25.0	8.3	25.0	0.0

4)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국어사전

- 응답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어사전의 종류를 살펴보면, ‘국어대사전’을 36.6%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옥편’(28.3%), ‘탁상용 국어사전’(24.3%), ‘전자사전’(22.3%)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도 조사에서는 ‘옥편’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탁상용 국어사전’(53.7%), ‘국어대사전’(48.0%)이었던 점에 비취 본다면 2010년 조사에서 28.3%로 나타난 ‘옥편’의 보유 비율이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탁상용 국어사전(중사전)이 53.7%에서 24.3%로, 국어대사전이 48.0%에서 36.6%로 모두 낮아짐. 반면, 2010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자사전'에 대한 응답률이 22.3%로 높게 나타남. 실제 사용면에서 점차 종이 인쇄 사전에서 전자사전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 조사에 '사전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5%에 불과했는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2.7%로 비교적 높게 나옴. 인터넷 사전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3-5-4〉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국어사전(복수응답)



〈표 3-5-4〉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국어사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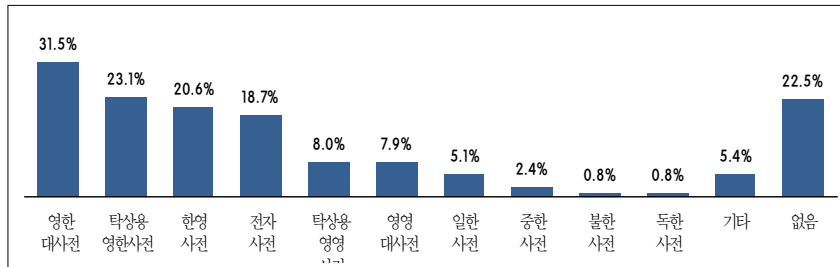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국어대사전	한자사전(옥편)	탁상용 국어사전(중사전)	전자사전	없음
전체		(5000)	36.6	28.3	24.3	22.3	22.7
성별	남성	(2496)	37.1	29.6	24.6	21.9	20.9
	여성	(2504)	36.1	27.0	24.1	22.7	24.4
연령	20대	(971)	39.6	27.0	27.7	36.7	14.4
	30대	(1050)	37.0	27.6	26.2	25.9	17.9
	40대	(1088)	43.6	31.0	26.6	25.4	13.7
	50대	(945)	35.8	30.2	23.1	15.0	27.6
	60대이상	(946)	25.7	25.7	17.5	7.4	41.8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1.1	21.7	21.2	21.0	30.4
	강원	(238)	60.1	48.3	19.7	18.9	9.2
	충청권	(745)	47.7	38.4	23.5	26.6	15.6
	전라권	(752)	29.1	27.7	28.3	9.2	21.7
	경상권	(1539)	36.1	26.7	27.9	28.8	20.3
가구소득별	제주	(142)	45.1	37.3	12.0	19.7	26.8
	100만원이하	(279)	26.2	25.1	14.3	8.6	43.4
	101~200만원	(388)	23.5	32.0	18.0	10.3	34.3
	201~250만원	(1097)	34.3	28.6	25.8	19.0	26.3
	251~350만원	(1386)	42.1	26.9	23.2	26.0	18.3
	351~550만원	(1595)	38.9	27.6	26.6	26.2	18.2
	551만원이상	(243)	34.2	36.6	31.3	25.9	18.1
	모름 / 무응답	(12)	16.7	50.0	8.3	16.7	25.0

5)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외국어사전

- 외국어사전의 보유를 살펴보면, ‘영한대사전’을 31.5%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탁상용 영한사전’(23.1%), ‘한영사전’(20.6%), ‘전자사전’(18.7%)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탁상용 영한사전의 보유 비율이 2005년의 59.0%와 비교해 볼 때, 2010년에는 23.1%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 이에 반해 영한대사전의 보유 비율은 2005년의 33.4%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보유하고 있는 사전이 없다는 항목의 비율이 2005년 12.9%에서 이번 조사 22.5%로 2배 가까이 늘었음.
 - 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종이사전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짐. 반면, 전자사전에 대한 응답률이 2005년 4.8%에서 2010년 18.7%로 큰 상승폭을 보임.
 - 종이사전보다는 전자사전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전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전을 보유하지 않은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그림 3-5-5〉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외국어사전(복수응답)



〈표 3-5-5〉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외국어사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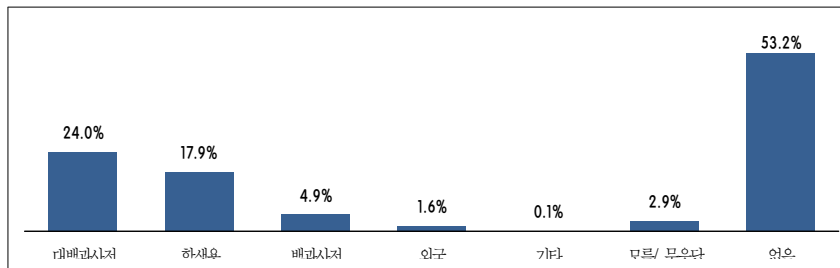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영한대사전	탁상용 영한사전	한영사전	전자사전	탁상용 영영사전	영영대사전	일한사전	중한사전	불한사전	독한사전	기타	없음
전체	(5000)	31.5	23.1	20.6	18.7	8.0	7.9	5.1	2.4	0.8	0.8	5.4	22.5
성별	남성 (2496)	32.0	24.1	20.6	18.8	8.7	8.0	5.1	2.6	0.8	1.0	5.3	21.8
	여성 (2504)	30.9	22.0	20.6	18.6	7.4	7.8	5.1	2.3	0.8	0.6	5.5	23.2
연령별	20대 (971)	34.9	26.3	26.1	29.5	11.2	10.6	7.1	2.8	0.8	1.1	3.3	11.4
	30대 (1050)	33.4	23.8	23.1	23.0	8.4	9.2	5.6	2.8	0.9	1.1	4.3	15.9
	40대 (1088)	39.0	24.9	24.7	21.6	8.7	9.3	5.8	2.4	1.4	0.8	3.0	15.3
	50대 (945)	29.2	23.8	17.5	12.2	6.1	6.6	4.6	2.6	0.3	0.7	6.2	28.7
	60대이상 (946)	19.3	16.1	10.8	6.0	5.4	3.4	2.1	1.6	0.6	0.1	10.7	43.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0.2	18.9	21.3	16.3	8.5	7.4	5.2	2.1	0.9	0.4	3.9	26.6
	강원 (238)	49.2	21.4	19.3	13.0	6.3	5.5	3.4	7.1	1.7	1.7	6.7	8.8
	충청권 (745)	21.6	29.3	23.5	31.5	8.2	5.6	7.0	2.0	1.6	2.1	7.9	22.0
	전라권 (752)	42.4	16.4	27.5	8.8	8.2	12.9	2.9	2.0	0.7	0.5	6.6	16.2
	경상권 (1539)	28.0	29.0	16.5	20.3	7.8	6.6	4.7	2.3	0.3	0.6	3.1	24.6
가구소득별	제주 (142)	46.5	11.3	8.5	23.2	6.3	16.2	11.3	4.2	0.7	0.0	26.1	12.7
	100만원이하 (279)	24.4	8.6	9.0	6.1	3.6	3.6	2.9	2.9	0.7	0.0	17.2	40.9
	101~200만원 (388)	23.2	13.4	12.4	13.4	2.8	3.6	3.4	2.3	0.5	1.0	10.3	36.1
	201~250만원 (1097)	27.3	23.5	16.0	16.8	7.7	5.7	3.9	1.6	0.8	0.5	5.7	27.7
	251~350만원 (1386)	32.8	26.5	22.7	21.9	9.7	10.0	5.8	2.5	0.6	0.6	3.5	18.5
	351~550만원 (1595)	36.0	23.9	24.8	20.1	7.8	8.7	4.8	2.4	0.9	0.9	3.9	17.4
	551만원이상 (243)	34.2	28.0	29.2	23.0	14.0	13.2	13.2	5.3	1.6	2.9	4.5	12.3
	모름 / 무응답 (12)	33.3	25.0	25.0	16.7	25.0	0.0	8.3	8.3	0.0	0.0	16.7	25.0

6)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기타사전

- 기타사전의 보유를 살펴보면, ‘대백과사전’을 24.0%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생용 백과사전’(17.9%), ‘백과사전 시디롬’(4.9%), ‘외국 백과사전’(1.6%)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3-5-6〉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기타사전(복수응답)



〈표 3-5-6〉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 - 기타사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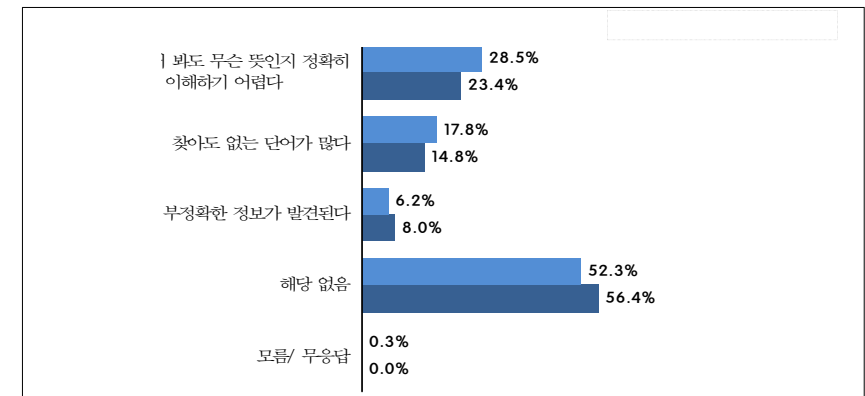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대 백과사전	학생용 백과사전	백과사전 시디롬	외국 백과사전	기타	모름/ 무응답	없음
전체		(5000)	24.0	17.9	4.9	1.6	0.1	2.9	53.2
성 별	남성	(2496)	23.6	17.1	5.0	1.3	0.1	2.9	54.2
	여성	(2504)	24.4	18.6	4.7	1.8	0.2	2.9	52.2
연 령 별	20대	(971)	24.3	21.0	5.7	2.9	0.4	2.7	48.4
	30대	(1050)	25.9	19.5	6.8	1.5	0.1	4.2	47.3
	40대	(1088)	29.1	24.1	5.7	1.3	0.0	2.3	43.8
	50대	(945)	22.3	13.9	4.1	0.8	0.1	2.9	58.8
	60대이상	(946)	17.2	9.6	1.8	1.3	0.0	2.4	69.7
거 주 지 역 별	경인권	(1584)	22.9	14.6	5.6	2.5	0.0	3.2	54.7
	강원	(238)	39.1	34.5	4.6	3.8	0.4	2.1	26.1
	충청권	(745)	26.6	21.9	5.9	1.7	0.3	3.8	45.2
	전라권	(752)	8.2	17.3	6.4	0.7	0.3	2.9	66.6
	경상권	(1539)	30.1	17.2	2.9	0.5	0.0	2.3	52.0
	제주	(142)	14.8	16.2	5.6	2.1	0.7	3.5	64.8
가 구 소 득 별	100만원이하	(279)	14.3	10.8	2.9	0.4	0.4	3.2	73.5
	101~200만원	(388)	10.1	9.5	3.1	1.8	0.3	2.8	74.2
	201~250만원	(1097)	22.1	17.1	4.5	1.1	0.2	2.9	55.4
	251~350만원	(1386)	28.1	19.9	6.4	1.4	0.0	2.3	46.8
	351~550만원	(1595)	26.8	18.9	4.5	1.6	0.1	3.2	50.0
	551만원이상	(243)	24.7	24.7	5.8	4.9	0.0	4.1	42.0
모름 / 무응답		(12)	8.3	0.0	0.0	8.3	8.3	0.0	75.0

7)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

- 이용하는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사항은 ‘뜻을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23.4%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찾아도 없는 단어가 많다’(14.8%),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다’(8.0%)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3-5-7〉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복수응답)



〈표 3-5-7〉 이용 중인 국어사전에 대한 불만 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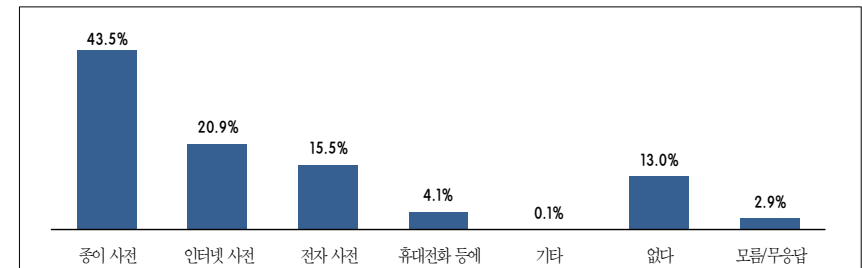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뜻을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찾아도 없는 단어가 많다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다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5000)	23.4	14.8	8.0	56.4	0.3
성별	남성 (2496)	24.0	14.1	8.4	56.2	0.3
	여성 (2504)	22.9	15.6	7.6	56.5	0.3
연령별	20대 (971)	26.6	15.1	10.4	50.6	0.2
	30대 (1050)	24.5	16.2	9.6	52.7	0.6
	40대 (1088)	26.4	16.9	8.2	52.7	0.1
	50대 (945)	22.5	12.7	6.8	59.6	0.5
	60대이상 (946)	16.5	12.7	4.7	67.4	0.2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23.4	12.9	10.9	55.5	0.2
	강원 (238)	46.2	26.5	7.1	30.3	0.0
	충청권 (745)	26.0	20.8	6.3	50.3	0.5
	전라권 (752)	11.0	6.6	4.7	77.5	0.7
	경상권 (1539)	23.9	15.2	7.7	55.6	0.3
	제주 (142)	32.4	24.6	7.0	37.3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16.1	9.0	3.2	72.0	0.0
	101~200만원 (388)	16.5	14.2	3.4	67.8	0.0
	201~250만원 (1097)	21.0	14.9	5.4	60.9	0.5
	251~350만원 (1386)	26.3	16.5	9.1	52.5	0.1
	351~550만원 (1595)	25.7	15.3	10.4	50.8	0.4
	551만원이상 (243)	23.0	10.3	10.3	57.2	0.4
	모름 / 무응답 (12)	8.3	0.0	8.3	83.3	0.0

8) 주로 사용하는 사전

- 주로 사용하는 사전으로는 '종이 사전'이 43.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전'(20.9%), '전자 사전'(15.5%)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종이 사전'에 대한 응답률이 24.9%로 평균인 43.5%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인터넷 사전'(33.7%), '전자 사전'(28.2), '휴대전화 등에 탑재된 사전'(7.6%)의 경우는 평균(20.9%, 15.5%, 4.1%)보다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볼 때, 학생의 경우는 '종이 사전' 응답률이 20.6%이나, '인터넷 사전'과 '전자 사전'이 각각 30.9%, 39.2%로 높게 나타남.

〈그림 3-5-8〉 주로 사용하는 사전



〈표 3-5-8〉 주로 사용하는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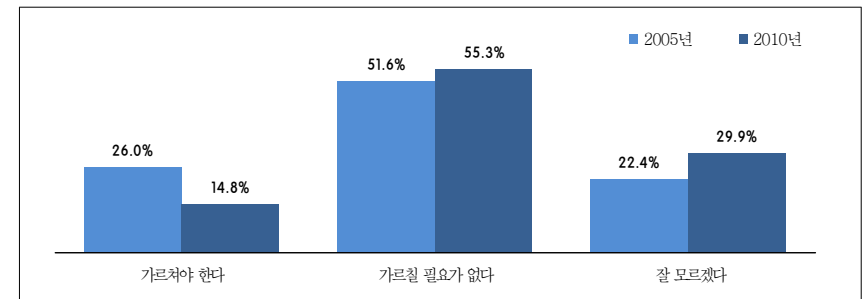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종이 사전	인터넷 사전	전자 사전	휴대전화 등에 탑재된 사전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전체		(5000)	43.5	20.9	15.5	4.1	0.1	13.0	2.9
성별	남성	(2496)	44.4	21.1	16.1	4.2	0.1	12.0	2.1
	여성	(2504)	42.6	20.6	15.0	4.0	0.2	14.0	3.6
연령대	20대	(971)	24.9	33.7	28.2	7.6	0.0	5.3	0.3
	30대	(1050)	31.3	33.8	20.5	5.6	0.0	8.2	0.6
	40대	(1088)	52.6	19.6	16.0	3.8	0.2	6.6	1.2
	50대	(945)	56.8	10.3	8.6	2.1	0.3	17.0	4.9
	60대이상	(946)	52.3	5.5	3.5	1.4	0.1	29.6	7.6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40.0	22.6	14.3	3.5	0.0	17.0	2.6
	강원	(238)	29.4	29.4	25.6	5.5	0.4	7.1	2.6
	충청권	(745)	39.9	29.0	13.6	4.0	0.3	9.0	4.2
	전라권	(752)	66.9	14.6	7.7	1.5	0.3	7.8	1.2
	경상권	(1539)	39.4	17.2	20.4	6.0	0.1	14.2	2.7
가구소득별	제주	(142)	45.1	18.3	11.3	3.5	0.0	13.4	8.4
	100만원이하	(279)	43.4	10.8	6.8	1.8	0.7	30.5	6.1
	101~200만원	(388)	45.4	17.0	6.7	2.8	0.3	22.7	5.2
	201~250만원	(1097)	46.1	17.2	13.5	3.3	0.1	16.4	3.4
	251~350만원	(1386)	43.2	23.2	16.3	4.5	0.1	10.8	1.9
	351~550만원	(1595)	42.3	22.4	19.7	5.1	0.1	8.3	2.2
	551만원이상	(243)	38.7	31.7	17.3	4.5	0.0	5.8	2.1
	모름 / 무응답	(12)	41.7	33.3	8.3	0.0	0.0	8.3	8.3

9)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말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8%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55.3%)의 응답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연령대와 저연령대에 큰 차이가 없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 조사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26.0%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가르쳐야 한다'가 14.8%로 많이 줄어들었음.

〈그림 3-5-9〉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



〈표 3-5-9〉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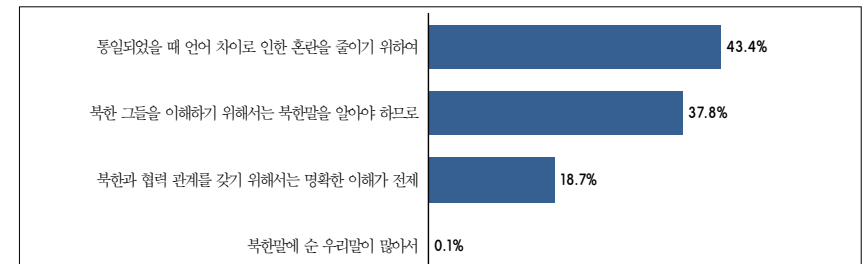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5000)	14.8	55.3	29.9
성별	남성	(2496)	15.5	57.3	27.2
	여성	(2504)	14.0	53.3	32.7
연령별	20대	(971)	14.5	60.1	25.4
	30대	(1050)	16.1	55.0	28.9
	40대	(1088)	15.1	55.5	29.4
	50대	(945)	14.7	53.8	31.5
	60대이상	(946)	13.2	52.0	34.8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16.4	51.6	32.0
	강원	(238)	9.2	54.6	36.2
	충청권	(745)	14.2	48.5	37.3
	전라권	(752)	21.0	58.1	20.9
	경상권	(1539)	11.5	61.5	27.0
가구소득별	제주	(142)	11.3	51.4	37.3
	100만원이하	(279)	10.8	50.2	39.1
	101~200만원	(388)	16.8	53.4	29.9
	201~250만원	(1097)	13.4	56.7	29.9
	251~350만원	(1386)	15.6	56.3	28.1
	351~550만원	(1595)	15.4	54.1	30.5
	551만원이상	(243)	14.4	59.3	26.3
	모름 / 무응답	(12)	0.0	83.3	16.7

10) 북한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

- 북한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말을 알아야 하므로’(37.8%), ‘북한과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전제’(18.7%), ‘북한말에 순 우리말이 많아서’(0.1%)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라는 항목은 58.1%에서 43.4%로 줄었고, ‘북한과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전제’라는 항목은 10.2%에서 18.7%로 소폭 늘었음.

〈그림 3-5-10〉 북한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



〈표 3-5-10〉 북한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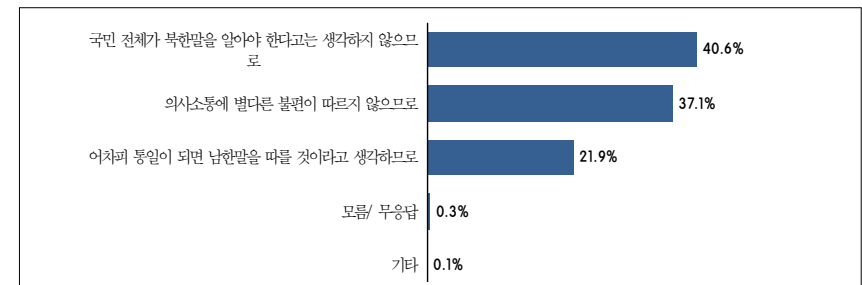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북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말을 알아야 하므로	북한과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전제	북한말에 순 우리말이 많아서
전체		(738)	43.4	37.8	18.7	0.1
성별	남성	(387)	44.2	34.4	21.2	0.2
	여성	(351)	42.5	41.6	15.9	0.0
연령별	20대	(141)	51.8	35.5	12.7	0.0
	30대	(169)	37.3	39.6	22.5	0.6
	40대	(164)	42.7	36.6	20.7	0.0
	50대	(139)	39.6	42.4	18.0	0.0
	60대이상	(125)	47.2	34.4	18.4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259)	34.4	46.3	19.3
강원		(22)	50.0	31.8	18.2	0.0
충청권		(106)	45.3	34.0	19.8	0.9
전라권		(158)	57.6	29.1	13.3	0.0
경상권		(177)	40.1	36.7	23.2	0.0
제주		(16)	62.5	31.3	6.2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30)	40.0	33.3	26.7	0.0
	101~200만원	(65)	44.6	35.4	20.0	0.0
	201~250만원	(147)	42.9	40.8	16.3	0.0
	251~350만원	(216)	43.1	36.1	20.4	0.5
	351~550만원	(245)	44.1	38.8	17.1	0.0
	551만원이상	(35)	42.9	37.1	20.0	0.0
	모름 / 무응답	-	-	-	-	-

11) 북한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북한말 교육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교육이 불필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민 전체가 북한말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37.1%),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남한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21.9%)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국민 전체가 북한말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에 대한 응답률이 2005년, 2010년 두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남한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에 대한 응답률은 2005년 30.4%, 2010년 21.9%의 결과를 보임.

〈그림 3-5-11〉 북한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표 3-5-11〉 북한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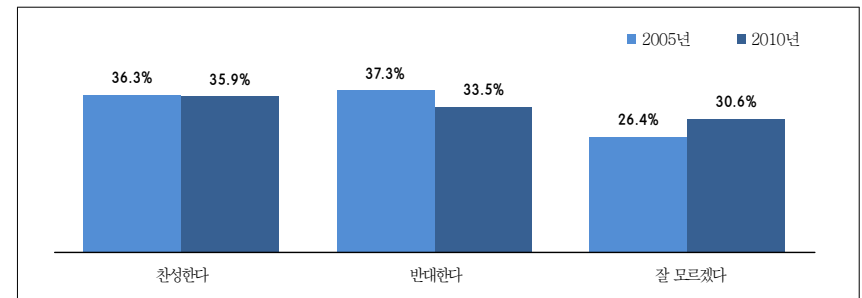
		사례수	국민 전체가 북한말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남한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모름/ 무응답	기타
전체		(2766)	40.6	37.1	21.9	0.3	0.1
성별	남성	(1431)	41.1	36.1	22.6	0.2	0.0
	여성	(1335)	40.1	38.1	21.1	0.6	0.1
연령별	20대	(584)	41.4	31.7	26.0	0.7	0.2
	30대	(578)	41.0	34.9	23.5	0.6	0.0
	40대	(604)	40.2	39.6	19.9	0.2	0.1
	50대	(508)	43.5	36.8	19.7	0.0	0.0
	60대이상	(492)	36.8	43.1	19.9	0.2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818)	47.3	28.9	23.6	0.2	0.0
	강원	(130)	19.2	61.5	18.5	0.0	0.8
	충청권	(361)	38.0	40.2	21.3	0.5	0.0
	전라권	(437)	21.7	47.8	30.5	0.0	0.0
	경상권	(947)	49.3	32.9	17.3	0.5	0.0
가구소득별	제주	(73)	17.8	58.9	20.5	1.4	1.4
	100만원이하	(140)	37.9	45.0	17.1	0.0	0.0
	101~200만원	(207)	35.3	42.5	21.3	0.5	0.5
	201~250만원	(622)	39.4	39.7	20.4	0.5	0.0
	251~350만원	(780)	44.2	37.6	18.1	0.1	0.0
	351~550만원	(863)	40.3	32.6	26.7	0.3	0.1
	551만원이상	(144)	38.2	34.0	27.1	0.7	0.0
	모름 / 무응답	(10)	50.0	40.0	10.0	0.0	0.0

12)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영어공용어화 정부의 각종 문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고, 국민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사용해야한다는 의견

-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찬성’이 35.9%, ‘반대’가 33.5%, ‘모르겠다’가 30.6%로 나타남.
- 나이가 젊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음.
- 가구당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음.
- 2005년 - 2010년 비교
 - ‘반대한다’는 의견이 37.3%에서 33.5%로 소폭 감소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6.4%에서 30.6%로 소폭 늘어남.

〈그림 3-5-12〉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표 3-5-12〉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5000)	35.9	33.5	30.6
성별	남성	(2496)	34.8	34.6	30.6
	여성	(2504)	37.0	32.5	30.5
연령별	20대	(971)	40.7	33.8	25.5
	30대	(1050)	39.9	30.3	29.8
	40대	(1088)	38.7	33.8	27.5
	50대	(945)	32.4	35.6	32.0
	60대이상	(946)	27.0	34.5	38.5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1.4	35.5	33.1
	강원	(238)	13.0	16.0	71.0
	충청권	(745)	34.0	30.6	35.4
	전라권	(752)	45.2	37.0	17.8
	경상권	(1539)	39.5	35.7	24.8
	제주	(142)	47.2	14.1	38.7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19.0	38.0	43.0
	101~200만원	(388)	25.0	37.1	37.9
	201~250만원	(1097)	31.5	35.5	33.0
	251~350만원	(1386)	38.8	36.4	24.8
	351~550만원	(1595)	41.9	28.0	30.1
	551만원이상	(243)	37.4	33.3	29.2
	모름 / 무응답	(12)	25.0	41.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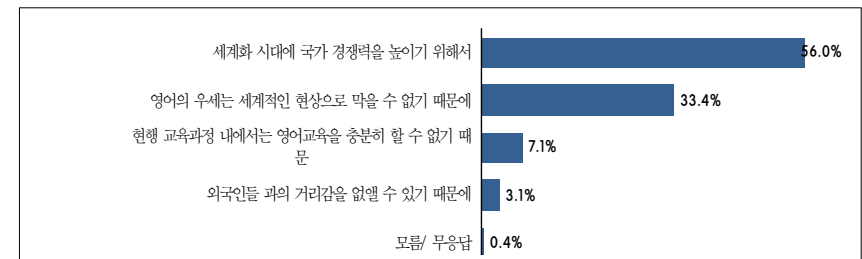
13)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

○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의 주된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56.0%)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의 우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33.4%),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는 영어교육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7.1%)이라고 응답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3-5-13〉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



〈표 3-5-13〉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

[단위: %]

		사례수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의 우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는 영어교육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	외국인들과의 거리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모름/ 무응답
전체		(1796)	56.0	33.4	7.1	3.1	0.4
성별	남성	(869)	57.2	32.2	6.6	3.3	0.7
	여성	(927)	54.8	34.4	7.6	2.9	0.3
연령별	20대	(395)	56.5	31.1	8.4	3.5	0.5
	30대	(419)	55.8	33.7	9.1	1.4	0.0
	40대	(421)	54.2	35.6	6.7	3.5	0.0
	50대	(306)	56.5	33.0	4.6	4.2	1.7
	60대이상	(255)	57.6	32.9	5.5	3.1	0.9
거주지역별	경인권	(497)	49.3	34.8	10.3	5.2	0.4
	강원	(31)	77.4	16.1	6.5	0.0	0.0
	충청권	(253)	63.2	26.5	6.7	2.8	0.8
	전라권	(340)	40.9	54.4	2.9	1.2	0.6
	경상권	(608)	62.7	26.8	7.2	2.8	0.5
가구소득별	제주	(67)	83.6	9.0	4.5	2.9	0.0
	100만원이하	(53)	54.7	34.0	5.7	5.7	0.0
	101~200만원	(97)	57.7	29.9	3.1	8.2	1.0
	201~250만원	(346)	55.2	33.5	8.7	2.0	0.6
	251~350만원	(538)	63.9	29.6	4.3	1.9	0.4
	351~550만원	(668)	50.7	37.4	8.4	3.0	0.4
	551만원이상	(91)	48.4	28.6	13.2	8.8	1.1
	모름 /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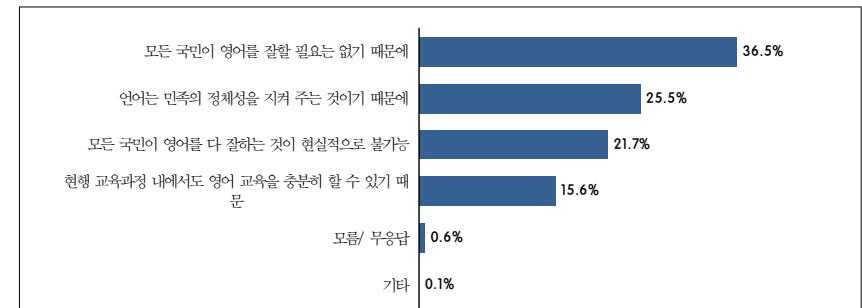
1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대해 반성하는 응답의 주된 이유는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36.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25.5%), ‘모든 국민이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21.7%)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9.2%에서 36.5%로 늘었고, ‘모든 국민이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36.0%에서 21.7%로 대폭 줄었음. 나머지 의견은 2005년 조사와 같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3-5-1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표 3-5-14〉 영어공용어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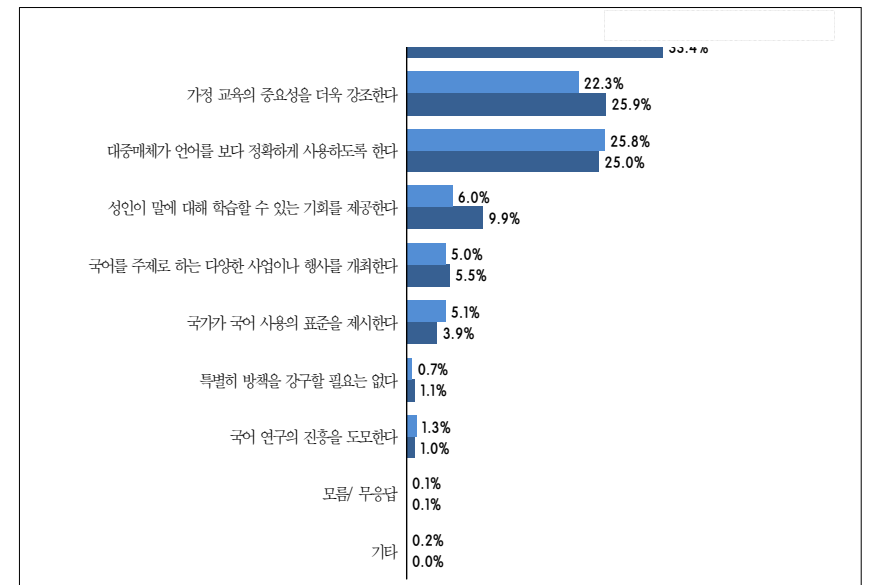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주는 것이기에 때문에	모든 국민이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영어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	모름/ 무응답	기타
전체		(1676)	36.5	25.5	21.7	15.6	0.6	0.1
성별	남성	(863)	36.2	25.0	21.7	16.7	0.3	0.1
	여성	(813)	36.8	26.1	21.6	14.4	0.9	0.2
연령별	20대	(328)	36.6	25.9	19.8	16.2	1.5	0.0
	30대	(318)	36.5	25.5	18.2	19.2	0.3	0.3
	40대	(368)	36.4	25.5	22.6	15.2	0.3	0.0
	50대	(336)	36.9	23.2	23.8	15.5	0.6	0.0
	60대이상	(326)	35.9	27.6	23.6	12.0	0.3	0.6
거주지역별	경인권	(563)	48.0	21.1	13.0	17.6	0.3	0.0
	강원	(38)	34.2	34.2	23.7	7.9	0.0	0.0
	충청권	(228)	24.1	43.0	21.5	9.6	0.9	0.9
	전라권	(278)	23.7	28.4	27.0	19.1	1.4	0.4
	경상권	(549)	36.6	20.6	27.3	15.1	0.4	0.0
	제주	(20)	30.0	30.0	35.0	5.0	0.0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106)	35.8	19.8	29.2	14.2	0.9	0.0
	101~200만원	(144)	38.2	28.5	20.8	10.4	0.7	1.4
	201~250만원	(389)	36.5	28.0	20.8	13.6	1.0	0.0
	251~350만원	(504)	33.1	26.4	21.8	18.1	0.6	0.0
	351~550만원	(447)	40.5	23.3	19.0	17.0	0.0	0.2
	551만원이상	(81)	29.6	24.7	30.9	13.6	1.2	0.0
	모름 / 무응답	(5)	80.0	0.0	20.0	0.0	0.0	0.0

15)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학교 교육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33.4%),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25.9%),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19.2%) 등으로 나타남.
- 2005년 - 2010년 비교
 - 2005년과 2010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3-5-15〉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표 3-5-15〉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단위: %]

		사례수	학교 교육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성인이 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전체		(5000)	33.4	25.9	19.2	9.9	5.5
성별	남성	(2496)	33.3	26.3	19.2	9.6	5.6
	여성	(2504)	33.6	25.4	19.2	10.1	5.4
연령별	20대	(971)	33.6	24.3	20.5	9.7	5.6
	30대	(1050)	30.8	23.6	22.7	10.3	5.9
	40대	(1088)	34.6	25.1	20.7	8.0	5.7
	50대	(945)	34.0	26.1	17.4	11.3	5.0
	60대이상	(946)	34.5	30.5	14.1	10.3	5.3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36.2	19.8	22.4	8.2	5.5
	강원	(238)	33.2	38.2	17.2	3.4	3.4
	충청권	(745)	28.5	32.1	20.4	9.4	5.0
	전라권	(752)	44.5	13.0	16.2	12.5	7.2
	경상권	(1539)	28.3	34.8	15.8	11.8	4.4
	제주	(142)	25.4	11.3	32.4	7.0	15.5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39.1	33.0	14.7	5.4	3.2
	101~200만원	(388)	39.9	25.0	16.8	10.8	2.6
	201~250만원	(1097)	35.6	26.4	17.1	9.5	5.5
	251~350만원	(1386)	33.0	24.0	19.2	11.3	6.1
	351~550만원	(1595)	30.8	26.6	21.9	9.3	5.7
	551만원이상	(243)	25.5	23.0	19.8	10.7	7.8
	모름 / 무응답	(12)	50.0	8.3	8.3	0.0	8.3

〈표 3-5-16〉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 계속

[단위: %]

		사례수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을 제시한다	특별히 정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국어 연구의 진흥을 도모한다	모름/ 무응답	기타
전체		(5000)	3.9	1.1	1.0	0.1	0.0
성별	남성	(2496)	3.7	1.1	1.0	0.2	0.0
	여성	(2504)	4.0	1.0	1.0	0.3	0.0
연령별	20대	(971)	3.7	1.0	1.1	0.5	0.0
	30대	(1050)	4.1	1.1	1.1	0.2	0.2
	40대	(1088)	3.6	1.6	0.7	0.0	0.0
	50대	(945)	4.7	0.6	0.8	0.1	0.0
	60대이상	(946)	3.4	0.8	1.0	0.1	0.0
거주지역별	경인권	(1584)	4.6	1.8	1.2	0.3	0.0
	강원	(238)	3.4	0.4	0.4	0.0	0.4
	충청권	(745)	2.8	0.3	1.2	0.2	0.1
	전라권	(752)	4.1	0.8	1.5	0.2	0.0
	경상권	(1539)	3.6	0.8	0.4	0.1	0.0
	제주	(142)	4.2	2.1	2.1	0.0	0.0
가구소득별	100만원이하	(279)	2.5	0.7	1.1	0.4	0.0
	101~200만원	(388)	3.1	0.8	0.8	0.0	0.3
	201~250만원	(1097)	3.2	2.2	0.4	0.1	0.0
	251~350만원	(1386)	4.5	0.9	0.9	0.0	0.1
	351~550만원	(1595)	3.5	0.6	1.3	0.3	0.0
	551만원이상	(243)	8.2	1.2	2.5	1.2	0.0
	모름 / 무응답	(12)	8.3	0.0	8.3	8.3	0.0

Ⅲ. 해외 사례

일본의 언어 의식 조사

일본의 언어 의식 조사는 크게 나누어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와 문화청에서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사가 있다. 국립국어연구소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겠지만 1945년 일본 패전 직후 일본어 개혁을 위한 일본어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개인 연구에서는 할 수 없는 대규모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어의 현재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간접적으로 언어 정책에 반영되는 형태를 취해 왔다.¹⁾ 한편, 문화청에서는 국제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언어정책 수립을 위해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국립국어연구 조사와는 달리 순수 일반인의 일본어에 대한 의식 조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언어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립국어연구소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이들 조사의 특징이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조사가 일본의 언어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일본 문화청에서 1995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의 개별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이번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2장에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최근에 수행한 몇 가지 연구 조사를 소개하여 연구 차원에서 어떤 여론 조사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장에서는 이상의 기술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여기에서 ‘간접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정부의 요청으로 외래어 바꾸어 말하기와 같은 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정책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2000년대까지 국립국어연구소는 순수 연구 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 문화청,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

1995년부터 문화청에서는 매년 일본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된 조사의 내용은 일본어 사용 현황에 대한 문항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일본어의 모습에 대해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이다.²⁾

이 조사는 일본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이 조사의 결과는 문화청 산하의 심의 기구인 국어심의회 및 구체적인 심의와 제안을 작성하는 문화 심의회 국어분과회에 제출되어 심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와 다른 점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각각 조사 년도에 따라 시의에 맞는 질문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연도별 조사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하의 기술에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사를 약 5년씩 잘라 2010년까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보기로 한다.

1기: 1995년~1999년

2기: 2000년~2004년

3기: 2005년~2010년

1-1. 1기 : 1995년~1999년

이 시기에 일본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경어, 외래어, 한자어, 국제화로 정리될 수 있다. 일본어는 경어가 상대방에 따라 섬세하게 구별을 해야 하고 장면에 따른 적절한 표현이 발달되어 있어서 적절한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매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점차 난해한 한자어를 외래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일본어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증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어의 위상 상승 등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하 각 연도별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1〉 문화청 “국어에 관한 의식 조사” 주요 내용(1995년~2001년)

(전(全)년도, 16세 이상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

	조사 시기 ³⁾	조사 항목	조사 목적
1-1-1	1995.4.6 -4.17	국제화시대의 일본어 등	언어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언어 사용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예에 관해, 또한 국제화 시대의 일본어, 워드 프로세서 등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국민의 의식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시책에 참고로 한다.
1-1-2	1997.1.10 -1.21	경어, 외래어 등	일상생활에서의 경어나 그 외 언어 사용에 관해, 또한 외래어 이해도에 관해 국민의 의식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시책에 참고로 한다.
1-1-3	1997.11.28 -12.17	경어, 외래어 등	일상생활에서의 경어나 그 외 언어 사용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또한 외래어 등의 이해도에 관해, 국민의 의식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국어심의회의 심의에서 참고 자료로써 사용하는 등 앞으로의 시책에 참고로 한다.
1-1-4	1998.1.8 -1.22	경어, 한자, 외래어 등	경어나 언어 사용, 한자의 자체, 외래어 이해도 등에 관해 국민의 의식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국어 심의회의 심의에서 참고 자료로써 사용하는 등 앞으로의 시책에 참고로 한다.
1-1-5	2000.1.7 -1.18	국제화시대의 일본어 등	경어나 언어 사용, 국제화 시대의 일본어에 관한 것 등에 대해 국민의 의식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국어심의회의 심의에서 참고 자료로써 사용하는 등 앞으로의 시책에 참고로 한다.

1-1-1. 1995년

1) 보다 나은 언어 사용을 위한 마음가짐

- ‘상대방이나 상황에 어울리는 경어를 사용한다(59.8%)’, ‘마음이 담긴 말을 사용한다(59.7%)’, ‘평이하고 쉬운 말을 사용한다(54.5%)’를 선택한 사람이 50%를 넘어서 있다.

2) 언어에 관한 의식

- 언어에 대한 의견 7 항목 중, ‘그렇게 생각한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의 언어 사용은 어린이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로, 88.4%로 나타났다.
- ‘학교에서 국어 교육에 충실’, ‘국가가 바르고 아름다운 일본어 유지에 노력’, ‘국가는 언어 사용의 소중함에 대해 완전한 기준을 제시’ 등에 대해서는 46.5%가 동의하였으며, 반대로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자연적 흐름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48.6%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yoronchousa/index.html

3) 조사 시기가 연도에 따라 어떤 해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의 경우는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이 매년 4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경어의 사용법

-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15.1%)’,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52.2%)’를 포함하면 67.3%로 높게 나타났다.

4) 마음에 걸리는 경어 표현

- 경어와 관련한 11개의 표현 중 ‘마음에 걸린다’,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마음에 걸린다’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보다 높게 나온 표현은 ‘お客様, どうぞいただきます(62.5%)’(손님, 가져주세요), ‘○○さん, おりましたら御連絡ください(56.0%)’(○○씨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先生, こちらでお待ちしてください(55.6%)’(선생님, 이쪽에서 기다려 주세요)의 세 표현으로, 겸양어를 존경 표현으로 잘못 사용하는 예이다.

5) 외국인의 일본어

- ‘외국인이 사용하는 일본어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응답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통하기만 하면 다소 이상한 일본어라도 상관없다’가 58.6%, ‘어떤 일본어라도 상관없다’가 24.2%로 외국인의 일본어에 대해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본어나 외국어에 관한 의식

- ‘일본인이 일본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가 80.6%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것은 외국어의 범람에 대한 우려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인에게 일본어 및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35.5%였다.

7) 국제 기관이나 국제 회의에서의 일본어 사용

- ‘일본어가 국제 기관이나 국제 회의 등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42.0%가 찬성, 3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일본어의 국제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1996년

1) 경어를 사용할 때

- ‘지위 등이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에 경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상과 대화할 때(79.2%)’, ‘존경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69.7%)’,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5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1.8%였다.

2) 경어에 대한 의견

- ‘경어는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84.4%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에서 경어에 대한 충분한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77.2%로 높게 나타났다.

3) 외래어(가타카나로 된 말)에 대한 인식

- ‘ボランティア’(볼런티어)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99.2%, ‘의미를 이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95.4%에 달했으며, 반대로 ‘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인폼드 콘센트)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약 40%, 의미를 이해하는 비율은 20%로 8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외래어(가타카나로 된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래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는 질문에 ‘자주 있다’가 17.1%, ‘때때로 있다’가 37.5%, ‘가끔 있다’가 34.6%로 약 90%가 외래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 1997년

1) 인간관계와 경어

- 경어를 사용하여 대화해야 하는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학생이 교사에게(83.7%)’였으며, ‘점원이 손님에게(75.9%)’, ‘부탁을 하는 입장의 사람이 부탁 받는 입장의 사람에게(75.8%)’, ‘환자가 의사에게(74.7%)’,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68.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의 경우는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왔으며, ‘상황에 따른다’는 의견이 약 30%에 해당하여, 연령, 상황, 화제 등에 따라 경어 사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성별과 언어 사용

- 상대가 자신과 동성인 경우와 이성인 경우 자신의 언어 사용의 정중함 등이 변하느냐는 질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가 56.2%, ‘변한다고 생각한다’는 34.6%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변한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남성은 연령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점점 일본어 경어 사용에 있어서 성별 구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래어 등에 대한 인식

- ‘JA’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비율(이하 ‘인지도’라 함)은 82.1%, ‘의미를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하 ‘이해도’라 함)은 71.9%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 면에서는 ‘エコロジー(76.6%)’(에콜로지), ‘アイテム(62.4%)’(아이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해도는 약 30%대로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래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게 나와 외래어가 일본어에 있어서 현재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1-1-4. 1998년

1) 제3자에게의 경어 표현

- 친구가 자신의 지인을 높여 말하는 경우에 대해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가 40.2%, ‘친구에게 중요한 사람일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가 50.6%로 나타났다.

2) 한자에 대한 의식

- 한자에 대해 어떻게 의식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일본어의 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자이다(72.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자를 보면 바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61.7%)’, ‘워드 프로세서 등이 있더라도 한자 학습은 확실히 해야 한다(5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워드 프로세서 등이 있으므로 한자를 직접 쓸 필요가 적어졌다’는 9.3%, ‘한자를 외우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되도록 쓰지 않는 편이 좋다’는 3.7%에 그쳤다.

1-1-5. 1999년

1) 외래어의 사용

- 일상 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섞어서 말하거나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람직하다’가 13.3%,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35.5%, ‘별로 상관 없다’가 48.8%, ‘모르겠다’가 2.4%로 나타났다.
-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68.3%)’, ‘외래어나 외국어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39.6%)’, ‘일본어나 일본문화가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18.8%)’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외래어나 외국어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64.2%)’, ‘일본어의 본래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49.9%)’ 등이었다.

2) 영어와 일본어의 국제화

-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어가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공용 언어가 되어가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세계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가 공통의 언어로서 사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43.4%)’, ‘전세계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로서 영어가 사용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18.8%)’, ‘전세계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로 영어와 일본어 등의 다른 언어도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7.8%)’, ‘전세계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로 영어 외의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2000년~2004년

이 시기는 1-1의 기간과 마찬가지로 경어 및 외래어, 한자에 대한 조사는 마찬가지로 있지만 국어 능력, 정보기기 사용 등이 추가 되었다. 국어 능력은 외래어의 범람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보수적 성격이 강했던 고이즈미 총리가 강조한 일본어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나아가 한자에 대한 의식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상용한자표 1945자에 한자를 추가하는 움직임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즉, 일본어 능력 > 국어능력 > 상용한자표 추가라는 정책적인 흐름을 이 시기의 조사 항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표3-2〉 문화청 “국어에 관한 의식 조사” 주요 내용(2000년~2004년)

	조사 시기	조사 항목	조사 목적
1-2-1	2001.1.10 -1.28	언어 사용, 언어 환경 등	언어 사용의 혼란이나 일상적인 인사말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것, 언어 예의범절이나 언어 환경에 관한 것, 정보기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 등에 대해 국민의 의식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국어 정책에 참고로 한다.
1-2-2	2002.1.10 -1.30	외래어, 일본어 능력 등	외래어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일본어의 소중함이나 ‘아름다운 일본어’, 일본인의 일본어 능력 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국어 정책에 참고로 한다.
1-2-3	2002.11.14 -12.2	국어 능력 등	일본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과제, 독서 현황에 관한 국민의 의식, 관용구나 가타카나로 된 말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사용률 등을 조사하고, 국어의 정책에 참고로 한다.
1-2-4	2004.1.16 -2.3	표기, 정보기기에서 의 언어사용 등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 경어의 필요성, 표기법,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이 언어나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고, 국어의 정책을 진행시키는 데 참고로 한다.
1-2-5	2005.1.14 -2.7	경어, 한자, 정보기기에서 의 표기 등	언어 사용이나 경어, 한자 등에 관한 의식, 자필에 의한 표기와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등에 의한 표기에 대한 의식이나 차후 편지의 마땅한 작법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고, 국어의 정책을 진행시키는 데 참고로 한다.

1-2-1. 2000년

1) 언어 사용과 그 혼란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람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사람 등의 언어 사용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다(31.5%)’, ‘때때로 있다(20.1%)’, ‘가끔 있다(17.3%)’, ‘없다(9.7%)’, ‘모르겠다(1.4%)’로,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는 비율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
-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언어 사용(50.3%)’, ‘인사말 등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48.4%)’,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44.9%)’, ‘곱지 않은 말을 사용할 때(43.1%)’, ‘경어를 잘못 사용할 때(35.9%)’로 나타났다.

2) 가정에서의 인사나 어린이의 언어 환경

-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92.6%) 중에 다음의 6가지 상황에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얼굴을 마주할 때(68.5%)’, ‘식사를 시작할 때(64.0%)’, ‘식사를 마칠 때(63.2%)’, ‘외출할 때(83.9%)’, ‘귀가할 때(80.3%)’, ‘밤에 자기 전에(58.6%)’로 나타났다.
-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가정에서 언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주의 받았다(21.1%)’, ‘때때로 주의 받았다(25.2%)’, ‘가끔 주의 받았다(23.0%)’,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26.8%)’로 ‘주의를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9.3%로 나타났다.
- 어린이의 언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 83.4%로 가장 높았으며, ‘모친(67.8%)’, ‘친구(62.5%)’, ‘부친(61.6%)’, ‘영화(4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2. 2001년

1) 일본어의 소중함

-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33.7%)’, ‘별로 의식한 적은 없으나, 생각해 보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35.4%)’가 전체의 69.1%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다(22.1%)’, ‘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6.8%)’, ‘모르겠다(1.2%)’ 등으로 나타났다.
- 일본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어는 자신이 일본인이기 위한 근간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어는 일본의 문화 그 자체이며, 문화 전체를 지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41.6%)’, ‘일본어에 의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39.5%)’, ‘일본어가 없다면 일본인끼리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3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름다운 일본어”

- “아름다운 일본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4.8%였는데, “아름다운 일본어”라는 것이 어떠한 일본어를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배려적인 말(64.7%)’, ‘인사말(43.9%)’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 일본인의 일본어 능력

- 최근 일본인의 일본어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매우 저하	조금 저하	저하	변화 없음	오히려 향상	모르겠음
쓰기	37.5%	50.6%	88.1%	7.7%	0.6%	3.6%
읽기	17.6%	51.2%	63.8%	25.4%	1.4%	4.4%
말하기	16.7%	42.5%	59.2%	33.1%	3.9%	3.9%
듣기	14.2%	42.8%	57.0%	35.9%	2.9%	4.2%

- 각각의 영역에서 어떠한 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읽기: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대강 이해할 수 있는 능력(60.9%)’, ‘내용이

듣는 이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음독하는 능력(25.7%)’

- 쓰기: ‘내용이 읽는 이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쓰는 능력(46.8%)’, ‘책이나 신문에 나오는 한자를 대강 쓸 수 있는 능력(25.7%)’
- 말하기: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능력(43.4%)’, ‘상대방이나 상황에 적합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32.3%)’
- 듣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59.6%)’, ‘적절한 질문에 의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능력(15.9%)’
- 종합적인 능력: ‘언어나 태도로부터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사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35.5%)’, ‘언어를 통해 면밀한 사고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19.8%)’

1-2-3. 2002년

- 일본인의 국어 능력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정리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36.0%)’, ‘경어 등에 대한 지식(35.3%)’, ‘설명하거나 발표하는 능력(33.1%)’, ‘한자나 가나의 사용 등 문자나 표기에 관한 지식(29.0%)’,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떠한 지식 및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설명하거나 발표하는 능력(17.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12.2%)’, ‘언어로 인간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욕(12.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2-4. 2003년

1) 당용한자 이외의 한자 사용

- A: 당용한자표에 없는 한자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B: 어려운 한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A에 가깝다’는 의견이 42.0%, ‘B에 가깝다’는 의견이 32.0%로 나타났다.

2) 전자 우편에서의 표현 -문16

- 전자 우편을 이용하는 사람 중, 전자 우편에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편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보다 축약된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같은 표현’, ‘이모티콘, 기호 등을 조금 이용한 표현’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 정보기기의 보급에 따른 영향 -문18

-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기기의 보급에 따라 언어나 언어 사용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33.9%)’, ‘다소 영향은 있다고 생각한다(45.0%)’를 포함하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78.9%였다.
-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자를 쓰지 않게 된다’가 60.9%로 가장 높았으며, ‘편지 등의 전통적인 쓰기가 사라진다(35.6%)’, ‘언어의 의미나 뉘앙스가 변한다(34.3%)’, ‘새로운 말이나 언어 사용이 증가한다(32.8%)’, ‘생략한 표현이 증가한다(27.0%)’의 순으로 나타났다.

1-2-5. 2004년

1) 경어 오용의 증가

- 경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43.0%)’, ‘조금 그렇다(38.0%)’를 포함하여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8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어떠한 잘못이 많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존경어(尊敬語), 겸양어(謙讓語), 공손어(丁寧語)의 사용법의 오류’와 ‘경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55.2%, 51.1%로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앞으로의 시대에서의 경어

- 앞으로의 시대에서의 경어에 대해 ‘(a)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게 경어는 간단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 (b) 경어는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일본어의 풍부한 표현으로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두 의견 중, ‘(a)의 생각에 가깝다’는 의견이 33.6%, ‘(b)의 의견에 가깝다’는 의견이 53.6%로 나타났는데, 1997년보다 ‘(b)의 생각에 가깝다’는 의견이 6.7% 증가하였다.

3) 한자에 관한 의식

- 한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어의 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자이다’가 70.9%, ‘한자를 보면 바로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가 58.3%, ‘워드 프로세서가 있더라도 한자 학습은 확실히 해야 한다’가 56.6%로 여전히 한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2005년~2009년

이 시기는 여전히 1-1과 1-2에서 조사된 경어, 한자, 국어 능력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1-2에서 한자 사용에 대한 의식 조사와는 달리 2006년, 2007년에는 정보기기를 사용할 때 한자가 어려운가(이에 대해서는 70%가 어렵지 않다고 대답)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용한자표 수록 한자 수를 늘리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나아가 2008년, 2009년에는 상용한자표 개정안이 제시된 시기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 조사가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3〉 문화청 “국어에 관한 의식 조사” 주요 내용(2005년~2009년)

	조사 시기	조사 항목	조사 목적
1-3-1	2006.2.14 -3.14	경어, 관용구 등	일본인의 경어에 관한 의식,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나 사용에 관한 의식 등을 조사하고, 국어의 시책을 진행시키는 데 참고로 한다.
1-3-2	2007.2.14 -3.11	한자 사용 등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한자 사용,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나 사용에 관한 의식 등을 조사하고, 국어의 시책을 진행시키는 데 참고로 한다.
1-3-3	2008.3.1 -3.20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관용구 등	언어 사용이나 국어 능력에 대한 생각,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가타카나로 된 말의 사용에 대한 의식, 또한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나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국어의 시책을 진행시키는 데 참고로 한다.
1-3-4	2009. 3	자국어에 대한 의식 등	일본인의 국어에 관한 의식이나 이해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국어 시책을 입안하는 데 참고한다.
1-3-5	2010. 2	자국어에 대한 의식 등	일본인의 국어에 관한 의식이나 이해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국어 시책을 입안하는 데 참고한다.

1-3-1. 2005년

1) 경어 사용의 어려움

- 경어에 대해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다(23.6%)’, ‘조금 있다(43.9%)’를 포함하여 ‘있다’는 응답이 67.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7% 높게 나타났다.
- 경어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른 경어 사용’이 78.4%로 가장 높았으며, ‘편지 등 쓰는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이 38.4%, ‘경어 표현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14.2%로 나타났다.

1-3-2. 2006년

1) 관심 있는 분야

- 관심 있는 분야를 물어본 결과, ‘일상의 언어 사용이나 화법’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어의 사용법(65.5%)’, ‘문자나 표기법 또는 문장을 쓰는 법(23.3%)’, ‘언어의 의미 및 유래나 역사(22.9%)’, ‘신어, 유행어(17.6%)’, ‘발음이나 액센트(15.4%)’, ‘외국어 및 외래어의 사용법(11.4%)’, ‘표준어와 방언(9.5%)’, ‘국어 교육이나 국어 정책(7.8%)’, ‘국제화가 국어에 미치는 영향(4.7%)’ 등의 순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문, 잡지, 웹 뉴스에서의 한자 사용

- 신문, 잡지, 웹 뉴스를 읽는 사람 중에, 그곳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신문, 잡지, 웹 뉴스 모두에서 ‘특pecially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70%를 넘어섰다. 단지 신문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도 약 20% 가까이 나타났다.

1-3-3. 2007년

1) 외국인과의 대화

-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어떤 언어로 말을 걸어 왔는지 물어본 결과, ‘주로 일본어(26.4%)’라는 응답이 ‘주로 영어(41.5%)’보다 낮게 나왔으며, ‘일본어와 영어를 반반 섞어서’라는 응답은 25.3%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로 일본어로 대답한다’가 41.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상황에 따라 일본어 또는 영어로 대답한다’는 32.4%, ‘주로 영어로 대답한다’는 18.8%로 나타났다.

1-3-4. 2008년

1) 일본어에 대한 태도

-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별로 의식한 적은 없으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6.7%로 높게 나타났다.

2)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 문어와 구어의 사용법에 대한 질문에, ‘언어는 중요한 것이므로 문어, 구어 모두 바르게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3.3%로,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33.8%)’는 의견보다 0.5% 낮게 나타났다. 이는 1999년 조사한 결과에 비해 약 10% 감소한 수치이다.

3) 관공청이나 기업 등의 홈페이지의 언어 사용의 문제점

- 관공청이나 기업 등의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특pecially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가 51.3%, ‘문어체라 딱딱한 느낌이 든다’가 22.0%, ‘알기 어렵다’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4. 2009년

1) 한자 사용

-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을 때 읽지 못하는 한자가 있어 곤란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41.0%, ‘없다’는 응답이 58.3%였다.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읽지 못하는 한자가 있을 때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보는지를 물어본 결과, ‘알아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적(29.6%)’, ‘휴대전화의 한자변환 기능(25.7%)’, ‘전자사전(12.2%)’, ‘인터넷 상의 사전(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당용한자표

- ‘당용한자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4%였으나, ‘당용한자표’가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8%에 지나지 않았다. 지명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의 추가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8.4%로 높게 나타났다.

1.4. 문화청 조사의 정리

문화청 조사의 목적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면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파악하려는 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95년 처음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전반부에서는 전자 쪽이 강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후자 쪽이 강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고이즈미, 아베로 이어지는 강경 보수파 정치인들에 의해 주장된 국어 능력, 아름다운 일본어의 신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중등 교과 과정에서 ‘국어력’, ‘아름다운 일본어’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려는 점이 발견된다. 한편, 공공언어에 있어서 한자어 조어력의 한계>외래어의 범람>행정용어의 난해함이라는 도식 속에서 알기 쉬운 일본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강하게 존재함을 문화청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에 있는 한자에 대해서는 “관습이다”, “일본문화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문화청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과 의견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매우 흥미롭다. 다만, 변화에 대해 보수적이고 그만큼 변화에 시간이 걸리는 일본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청의 조사는 현재의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 결과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살펴 볼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와 같은 연구 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거친 뒤에 문화청, 문부과학성 등 유관기관과의 오랜 검토를 마친 뒤에 비로소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본의 언어정책의 관례이다. 2장에서는 그동안 일본어를 둘러싼 문자, 표기, 어휘 등에 대해 국립국어연구소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⁴⁾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대규모 언어 조사를 기획하게 된다. 1945년 이전의 일본어는 천왕과 군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권위적 언어로 무장해 있었고 이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군부독재와 제국주의를 방관하게 한 원인이라고 규정을 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일본어, 명확한 일본어의 사용이라는 것을 우선 실천하기 위해 당시의 일본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립국어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민의 언어생활 합리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개인이 하기 힘든 대규모 언어 조사를 하게 된다. 문자, 표기, 어휘, 방언 등 각 분야별로 일본어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1947년 설립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본어의 객관적인 모습을 파악했다. 이하의 기술에서는 최근에 진행된 상용한자표 개정, 행정용어, 외래어에 대한 조사를 소개한다. 또한 상용한자표 개정에 대한 조사는 일본방송협회(NHK) 방송언어문화연구소의 조사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2-1. 상용한자표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 중 가장 일본어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이 한자 조사이다. 국립국어연구소는 그동안 신문, 잡지의 용어조사를 통해 메이저시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한자를 둘러싼 표기 문제에 대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1946년 ‘당용한자표’ 1850자가 제정이 됨으로써 일본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용한자표’가 1945년 직후의 혼란한 상황 하에서 마련 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자는 한자로 표기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자표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의 언어 생활에서 한자 표기를 1850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수행한 일본의 신문과 잡지 조사를 보면 인명과 지명을 포함하는 고유명사까지 포함하면 사용 한자는 대략 3000자에서 4000자 정도인데 이를 충족시키기엔 1850자는 너무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점유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약 2000개에도 못 미치는 한자가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한자와 가나를 섞어 쓰는 현재의 표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자로 표기하려는 욕구는 언제든 존재하게 된다. 한자로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답답함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용한자표’가 제정될 당시에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

4) 이 부분의 내용은 2010년 3월 5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표된 송영빈 ‘일본의 공공언어 정책’의 내용을 근거로 가필 수정한 것이다.

나였던 한자는 쓰기 어렵다는 주장은 정보화의 영향으로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한자는 쓰는 것이 아닌 치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일본 패전 직후의 혼란이 마무리되어갈 1960년대부터 ‘당용한자표’에 대한 무력화 내지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당용한자표’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은 1978년에 통산성 공업기술원에 의해 ‘한자에 관한 일본공업규격’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⁵⁾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교환용 한자코드’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쇄업자끼리의 한자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자 코드의 통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보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사회에서의 ‘당용한자표’의 의미와 역할은 점점 약화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1981년 1945자로 구성된 ‘상용한자표’가 공표되고 ‘상용한자표’ 1945자에서 「銑」 「鍾」 「勺」 「匆」 「脹」 다섯 글자를 빼고 새로이 한자를 196개의 한자⁶⁾를 추가한 2136자의 ‘신상용한자표(新常用漢字表)’가 2009년 11월 10일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에서 승인되어 2010년 내각 고시될 예정이다.⁷⁾

‘신상용한자표’에서 추가된 191개⁸⁾ 한자에 대해 일본방송협회(NHK) 방송문화연구소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1,494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출제는 한자가 아닌 단어 단위(한자어)로 했으며 총 353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한 결과 평균 정답율은 67.3%였다고 한다. 오답률은 18.1%였고 무응답이 14.6%였다. 한편, 정답률 80% 이상의 문제가 173문제(49.0%), 50% 이만이 108문제(30.6%)였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陶冶」 「招聘」 「領袖」 「進捗」 「忌憚」 「瘦身」 「間隙」였다.⁹⁾

‘신상용한자표’에 대한 읽기 능력 조사에서 평균 67.3%의 정답률을 높은 것으로 볼 것이냐 낮은 것으로 볼 것이냐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점에서 성인의 언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이 조사가 쓰기 능력이 아닌 그것도 단어 차원에서 읽기 능력을 측정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196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196개의 한자를 추가하는 데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을 들여 문부과학성이 심의했다는 점이다. 196개의 한자를 추가했어도 아직도 신문과 잡지에

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한자의 고작 반 정도가 ‘신상용한자표’에 들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것들을 추가하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지 보수파는 답답함을 느낄 것이고 진보파는 NHK방송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글자를 늘리는 것이 문자 학습에 대한 부담과 일본어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개탄을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며 ‘신상용한자표’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추가 작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청의 의식 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신상용한자표’에 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음과 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으나 대부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¹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한자의 추가가 계속 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반대파를 심의회에서 사전에 배제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한자 추가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일본어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보수화 움직임은 다른 측면에서 언어생활에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외래어의 범람이 바로 그것이다.

2-2. 외래어

정보화,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어는 또다시 변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인이 이미 2009년 현재 219만 명을 넘어섰고¹¹⁾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일본어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국립국어연구소는 「일본어의 현재」를 기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¹²⁾ 이 프로젝트는 현재 급변하는 일본어에 대해 실상을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된 조사 대상으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외래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어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의 실태에 대한 「의식 조사」와 「실태 조사」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식 조사」는 일본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피기 위한 조사이며 「실태 조사」는 일본어의 존재 방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아보는 조사이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실시한 「의식 조사」는 다음과 같다.

5) 일반적으로 'JIS한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1수준 2965자, 제2수준 3384자의 코드를 정한 것이다.

6) 추가된 한자에 대해서는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kanji_37/pdf/sanko1.pdf를 참조.

7)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의 그간의 활동 및 신상용한자표 제정 경위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의의 사이트를 참조.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index.html

8) 196개 한자로 최종 결원이 났으나 NHK의 조사 당시에는 191자였다.

9) NHK放送文化研究所(2009)「高校3年生は、「新・常用漢字」をどのくらい読めるか(1)~「全国高校3年生・感じ認識度調査(11,000)人回答」集計報告~, 『放送研究と調査』, NHK放送文化研究所, p. 38.

10)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kanji_37/pdf/sanko3.pdf

11) <http://www.moj.go.jp/TOUKEI/ichiran/%3C1DOCTYPE%20HTML%20PUBLIC>

12) <http://www.ninjal.ac.jp/products-k/katsudo/seika/genzai/>

의식 조사 【2003년도】

행정 정보를 발신하는 지자체의 장, 직원의 의식을 파악하는 자치단체 조사, 외래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살펴보는 전국조사, 국민에게 있어서 알기 어려운 외래어는 어떤 것인가를 조사하는 외래어 정착도 조사를 시행했다.

의식 조사 【2004년도】

두 번의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내용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어떤 어종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조사함으로써 이들 유의어 관계에 있는 다른 어종과 관련되는 심층적인 의식을 분석하는 조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료 전문가에게 바라는 화법에 대한 조사이다. 이는 전문용어의 대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조사이다. 나아가 외래어에 관한 의식조사도 생소한 분야의 외래어나 약어에 대한 학습 의욕,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이용한 번역이 한계에 이르자 이를 대신하는 것이 외래어가 되었다. 현행 외래어 표기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1991년 '외래어의 표기에 관한 내각 고시 제2호'¹³⁾이다. 이것은 1952년에 만들어진 외래어 표기 안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외래어 표기를 둘러싼 표기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복수 표기되는 상황이 점차 심화된 것이다. 참고로 괄호 안은 일본어 발음의 한글 표기이다.

〈표3-4〉 외래어 표기의 혼란

영어	일반 표기	변형 표기
team	チーム(치이무)	ティーム(테에무)
whisky	ウイスキー(우이스키)	ウィスキー(위스키)
telephone	テレホン(테레혼)	テレフォン(테레훤)

이러한 복수 표기가 범람하게 된 원인은 오랜 동안 관습화된 표기를 우선할 것이냐 원어발음에 가까운 표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1991년 개정에서는 외국어 학습자의 증가에 의해 국민이 원어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음주의 표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 의해 표기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 원인은 1991년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 머리말에서 이 기준이 어디까지나 '참고(よりどころ)'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전문 분야나 개인의 표기, 고유명사 표기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가 전문 분야나 개인의 표기까지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용한자표'에서 '상용한자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방임적 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언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의견의 제시이지 개인과 사회의 표기 및 용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분권과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일본에는 있다. 예를 들어, '성인병'이라는 용어가 '소아당뇨' 등 나이에 상관없이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1970년대에 제기되어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그 시행은 30년 뒤인 2000년대에 들어 실현되었다. 즉 관습의 존중과 그 용어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 사회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화합이란 방법을 취한 것이다.

관습의 중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신중한 접근을 통해 파행을 막고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서도 표기의 혼란이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은 일본어로는 'バイオリン'과 'ヴァイオリン'의 두 가지로 표기되는데 이에 대한 표기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표3-5〉 'バイオリン' 과 'ヴァイオリン' 의 사용 빈도

	バイオリン	ヴァイオリン
朝日新聞	6,342	505
讀賣新聞	3,559	384
毎日新聞	5,106	452
Yahoo!	82,200	85,000
goo	51,251	46,676
Google	133,300	123,000

신문의 경우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문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기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문은 나이가 많은 층에서 인터넷은 젊은 층이 주로 접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기의 혼란은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표기의 혼란이 새로 들어와서 외래어로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확실하게 외래어로 정착된 것들이라는 점이

13) <http://www.bunka.go.jp/kokugo/main.asp?fl=show&id=1000001774&cl=1000000068&cm=1000003933&cli=1000004647&cmi=1000001768>

14) NHK放送文化研究所(2002)「どうする? 外来語の表記と発音-放送と外来語 全国調査(3)」~「放送研究と調査」NHK放送文化研究所, p.55.

다. 이러한 외래어들은 연령에 따라 표기가 다르게 표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일이 쉽지 않다. 'romantic'이라는 단어의 경우, 'ロマンチック'와 'ロマンティック'로 표기하는 비율이 20대에서는 반반이었던 데 비해 60세 이상에서는 전자가 73%, 후자가 20%, 어느 쪽으로 표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7%라는 결과가 나왔다.¹⁵⁾ 정서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표기의 혼란에 대한 해결책은 앞서 예로 든 '생활습관병'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본의 언어정책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표기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간하는 백서나 공용문서에서 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어 범람의 원인으로는 한자어 조어력의 한계가 있다. 일본어에 있어서 새로운 외국의 개념을 한자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를 대신하는 것이 외래어가 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외래어는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사용어휘(type)에서 약 10%를 조금 밑도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¹⁶⁾ 또한 이러한 외래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가 낮아 외래어라고 보기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각 행정 부서 별로 이들 난해한 외래어를 알기 쉬운 일본어로 바꾸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9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후생성 장관이 행정 문서에서 외래어 추방을 선언한다. 그 후 그가 총리대신(수상)에 취임하면서 국립국어연구소에 외래어 순화 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외래어 순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2002년부터 국립국어연구소는 외래어위원회를 설치, 405개 외래어에 대한 대대적인 이해도 조사와 이를 쉬운 일본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순화 안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것은 2006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총 176개이다.¹⁷⁾

〈표3-6〉 국립국어연구소 외래어 순화안

이해도 전체	이해도 60세 이상	영어	일본어	순화어	기타 순화어 예
★☆☆☆ ¹⁸⁾	★☆☆☆	archive	アーカイブ	保存記録, 記録保存館	記録, 資料, 史料, 公文書館, 文書館, 資料館, 史料館
★★★★☆	★★☆☆	access	アクセス	(1)接續 (2)交通手段 (3)参入	(1)接近, 利用 (2)交通の便, 連絡
★☆☆☆	★☆☆☆	agenda	アジェンダ	検討課題	議題, 行動計畫
★★☆☆	★☆☆☆	initiative	イニシアチブ	(1)主導 (2)發議	(1)率先, 主導權 (2)構想, 行動計畫, 住民發議
★☆☆☆	★☆☆☆	incubation	インキュベーション	起業支援	起業家育成, 新規事業支援, 創業支援
★☆☆☆	★☆☆☆	internship	インターンシップ	就業体験	体験就業, 就業實習, 専門實習

표6을 보면 일본의 외래어 순화 방향은 한자어로 변환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하나의 외래어에 대해 여러 개의 일본어 한자어가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의어가 많은 영어 단어를 빌려 하위어를 구성하는 한자어를 외래어로 대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어의 효율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이 한계에 이른 지금 음역하는 것이 편하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자어로의 변환이 음성 언어로 용어가 유통될 때 과면의 의미의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incubation'의 순화 제안 용어는 '起業支援'인데 이 경우 일본어에서는 '企業支援'과 발음이 같다. 또한 'initiative'의 순화 어인 '主導'가 과연 'initiative'의 외래어 'イニシアチブ'(이니샤치브)를 사용하는 문맥에 어울리는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イニシアチブを取る(握る)」(이니셔티브를 쥐다(잡다))

와 같은 경우, '主導'가 아니라 '主導權'이라고 해야 어울릴 것이다.

「市のイニシアチブのもと、地域住民の参画を得て作成した地域全体の振興計画」
(시의 주도 하에 지역주민이 참여를 얻은 뒤에 작성한 지역 전체의 진흥 계획)

15) NHK放送文化研究所(2002) 전거서, p.58.

16) 山口昌也(2007)「新聞記事における語彙の時間的変化分析-語種との関係を中心に-」『国立国語研究所報告126公共媒体の外来語-「外来語」言い換え提案を支える調査研究-』
http://www.kokken.go.jp/gairaigo/Report126/report126.html#3-3a_list

17) 国立国語研究所(2006)「『「外来語」言い換え提案-分かりにくい外来語を分かりやすくするための言葉遣いの工夫-』国立国語研究所, <http://www.kokken.go.jp/public/gairaigo/index.html>

18) 검은 별이 하나인 것은 이해도 25% 미만, 둘인 것은 25% 이상 50% 미만, 세 개 인 것은 50% 이상 75% 미만, 네 개인 것은 75% 이상을 의미한다.

이라는 문장에서는 ‘主導’가 어울릴 수 있지만 앞서 본 대로 각각의 문맥에 맞게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access’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약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接近’으로는 부적절하여 ‘交通の便’(교통편)으로 해야 한다.

표6에는 없지만 ‘barrier-free’나 ‘normalization’과 같은 경우도 여러 문제가 있다. ‘barrier-free’의 의미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뜻하는 말로 이것을 ‘障壁なし(장벽 없음)’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高齢化に対応し、周辺道路を拡幅するなどして、駅からマンションまでをバリアフリーにする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는 등 역에서 아파트까지를 배리어-프리(장벽없음)(으)로 한다).

‘장벽 없음’은 단어가 아니라 구이다. 즉 단어로는 적절한 대응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로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장벽 없음’보다는 ‘장벽을 없앤다’는 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 표현이 된다. ‘normalization’의 의미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회에서 평등하게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等生化’, 혹은 ‘等しく生きる社会の実現(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等生化’라는 단어는 기존에는 없던 단어이다. ‘평등(等)하게 살(生) 수 있는 사회의 실현(化)’이란 일본어에서 부분적으로 따온 말이다. 문제는 이것의 발음인데 일본어 ‘統制下’와 발음이 같다. 즉 발음을 듣고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단어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는 globalization에서도 발견된다. 외래어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에 대해 ‘地球規模化’를 순화 용어로 하고 있는데 기타 순화어 예에서는 ‘地球一体化’, ‘全球化’라는 예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全球化’라는 용어는 역시 기존 일본어에는 없는 새로운 용어로 음으로 들었을 때 의미 파악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단어를 보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래어를 무조건 한자어로 바꾸면 일본어가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문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어 단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7은 순화 대상 외래어 176개에 대한 순화어와 기타순화어 예를 어종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3-7〉 국립국어연구소 외래어 개정안의 어종별 내역

(괄호 안 숫자는 %)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혼종어	구	합계
순화어	166 (81.77)	15 (7.39)	0 (0.0)	18 (8.87)	4 (1.97)	203 (33.17)
기타순화어 예	325 (79.46)	15 (3.67)	1 (0.24)	41 (10.02)	28 (6.85)	409 (66.83)
합계	491 (80.23)	30 (4.90)	1 (0.16)	59 (9.64)	32 (5.23)	612 (100.00)

순화어와 기타순화어 예는 모두 612개로 순화 대상 외래어 176개로 이를 나누면 한 개의 외래어 당 순화어가 3.48개가 대응하는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영어는 다의어가 많은데 비해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 하나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의 한자가 결합한 단어가 될 경우 보다 섬세한 의미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앞서 표6에서 본 ‘아카이브’의 경우 保存記録, 記録保存館, 記録, 資料, 史料, 公文書館, 文書館, 資料館, 史料館과 같이 여러 개의 대응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점이다. ‘hybrid’의 경우 複合型, 複合, 複合物, 異種混合이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권장하고 있고 ‘hybrid car’의 경우는 ‘複合動力車’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문맥에 따라 앞으로 순화안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외래어의 범람은 일일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것은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도시에서 52.7%가 나왔다.¹⁹⁾ 한자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문맥에 맞추어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지만 외래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자어로 순화할 경우, 다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음절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 한자 하나가 한 음절에 해당하지만 일본어의 경우는 2음절에 해당하여 ‘hazard map’의 경우, 외래어 ‘ハザードマップ(하자도 맵)’은 6음절이지만 한자어 ‘災害危険予測地図’는 ‘さいがいきけんよそくちず(사이가이키켄요소쿠치즈)’가 되어 12음절이 되며, ‘off-site center’의 외래어 ‘オフサイトセンター(오프사이드센타)’는 9음절이지만 ‘原子力防災センター’는 13음절, ‘緊急事態応急対策拠点施設’의 경우는 21음절, ‘原子力災害現地対策拠点’는 19음절이 된다.

이러한 길이는 이해도와와의 관계에서 항상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

19) 国立国語研究所(2004) 『行政情報を分かりやすく伝える言葉遣いの工夫に関する意識調査(自治体調査)』 国立国語研究所
http://www.kokken.go.jp/katsudo/seika/genzai/jititai/chousakekka/ippan/ip1-3.html

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 정부쪽에서는 이해도를 증시하고 있지만 실제 일본어 사용자들은 이해도보다는 짧은 음절을, 나아가 섬세한 한자어의 의미 구별을 통한 적절한 용어의 선택보다는 음역어인 외래어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외래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외래어 순화안에는 앞서 살펴본 것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 외래어도 순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앞은 바꾸어 말하기 용어, 뒤는 기타 바꾸어 말하기 용어이다.

backup	(1) 支援 (2) 控え / (1) 援護 うしろだて (2) 予備 複製
client	顧客 / 客 注文主 依頼主 相談者 利用者 患者
conference	会議 / 検討会議 研究会議 症例検討会 競技会
contents	情報内容 / 内容 中身 番組
library	図書館 / 資料館 収蔵館 閲覧所 書庫 叢書
log-in	接続開始 / 利用開始 接続 利用 接続登録 利用登録 認証
management	経営管理 / 運営管理 管理 管理者
marketing	市場戦略 / 市場活動 市場調査 市場分析
monitoring	継続監視 / 監視 観測
moral hazard	倫理崩壊 / 倫理欠如 倫理の欠如
multimedia	複合媒体
outsourcing	外部委託 / 外注 外部調達
presentation	発表 / 説明 提示 提案
prototype	原型 / 試作モデル 試作品
real time	即時 / 同時 同時進行 実時間
shift	移行 / 切り替え 転換
simulation	模擬実験 / 想定実験 模擬行動 模擬訓練
tool	道具 / 手段
trend	傾向 / 動向 流行
venture	新興企業 / 起業 起業家

이러한 외래어 순화안이 사회에서 정착될 수 있는지 없을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 보면, 의식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라도 이들 순화 용어를 사용하게 하지 않는 한 정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일본 공공언어 정책은 ‘상용한자표’와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큰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양쪽 모두 강제적인 것이 아닌 ‘참고’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보다 사안이 가벼운 외래어 순화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외래어가 일본어 한자어의 상위개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자어를 사용하게 될 때 문맥에 따라 일일이 구별하기 보다는 외

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는 합리성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확고히 정착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순화안으로 제시된 한자어들이 일본 사회에서 통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2-3. 행정용어

국립국어연구소는 앞서 소개한 외래어 순화안 외에도 다양한 공공언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²⁰⁾ 주요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정보

- 행정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는 화법에 대한 의식조사(자치단체조사)
- 외래어에 관한 의식조사(전국조사)
- 외래어 정착도 조사

위의 경우 외래어를 쉽게 바꾸기 위한 기초 조사라는 성격이 있지만 조사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증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정보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있다.²¹⁾ 나아가 외래어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외래어 순화안이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행정용어의 중심에는 외래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주민 구성이 다양화되고, 이들 주민에게 발신하는 행정 정보도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용어에는 새로운 외래어나 줄임말, 전문용어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지역 행정에서는 필요한 행정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균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받는 이를 배려한 언어 사용을 연구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행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는 화법에 대한 의식조사’는 행정 정보의 발신자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에게 알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화법이나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화법에 대한 의식을 조사, 연구하는 것으로, 행정용어의 개정이나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언어 사용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와 함께 자치단체의 행정 정보를 받는 주민에 입장에서 조사도 하고 있다. 전국 15세 이상의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외래어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것이 그것이다.

20) <http://www.kokken.go.jp/katsudo/seika/genzai/>

21) <http://www.kokken.go.jp/katsudo/seika/genzai/jititai/>

일반 행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항목으로는 ‘행정 정보 발신 매체에서의 외래어나 줄임말’, ‘주민과 대화할 때의 배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고안’, ‘국립국어연구소의 「외래어 순화안」’ 등이 있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행정정보 발신 매체에서의 외래어나 줄임말’에 대해서는 행정 정보의 발신 매체에 외래어나 줄임말이 많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때때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없다’는 27.4%, ‘자주 있다’는 18.8%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있다’는 대답이 전체의 68.8%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상으로 외래어나 줄임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65.9%)’, ‘바람직하지 않다(12.5%)’를 포함한 의견이 전체의 78.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을 ‘실버’ 혹은 ‘시니어’ 등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원래의 말을 외래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원래의 말을 쓰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23.5%, ‘외래어로 바꾼 편이 좋다’는 의견은 20.7%로 나타났다.

○ 주민과 대화할 때의 배려를 하는 방법으로는, ‘경어 사용법’이 7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어조나 말투(64.7%)’, ‘말하는 속도(56.1%)’, ‘표정이나 시선(53.3%)’, ‘관청의 전문용어 사용법(51.0%)’이 절반을 넘는 비율을 보였다.

주민을 대할 때의 태도로는 ‘친근한 태도(36.6%)’보다는 ‘정중한 태도(37.6%)’를 중요시했으며, ‘정확하게 말하는 것(11.5%)’보다는 ‘알기 쉽게 말하는 것(66.3%)’을 선호하였고, 주민을 부를 때는 ‘-さま(22.0%)’(~님)보다는 ‘-さん(75.2%)’(~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고안’이나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고안’ 등을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전부터 해오고 있다(35.9%)’와 ‘올해부터 하고 있다(1.5%)’를 포함한 ‘하고 있다’는 총 37.4%였으며, ‘현재는 할 예정이 없다’는 45.4%의 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앞으로 할 생각이다’는 7.5%에 지나지 않았다.

알기 어려운 말은 순화하거나 설명을 덧붙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에 따라 하고 있다’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누구에게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7.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순화하거나 설명을 덧붙일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용어’가 72.6%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어(65.3%)’, ‘영어 약자(57.1%)’, ‘관공서에서 자주

쓰이는 말(48.6%)’, ‘한자 속어(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호되는 것은, ‘파트너십(협력, 공동)’과 같이 순화된 말을 괄호 안에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 국립국어연구소에서 발표한 ‘외래어 순화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9.5%로 ‘알지 못했다(67.9%)’는 응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게서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층에 따르면, 10-20대에서 ‘알지 못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순화어에 대해서는 각 예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순화어가 알기 쉽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외래어가 알기 쉽다’는 응답이 많을 때도 있었다.

‘외래어 순화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가 24.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4.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일본의 공공언어 문제 해결은 한자, 외래어 문제와 함께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2-4. 병원 전문용어

국립국어연구소는 외래어 순화안, 행정용어 관련 조사 외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환자 중심의 의료가 점차 확산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용어 사용은 물론, 어떻게 환자에게 증상과 치료를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소는 ‘병원 언어 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원에서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쉽게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의료진에게 성과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3-1〉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제안’의 용어 처리 기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용어가 어려운 경우는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 환자가 의미를 모르거나 지식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의미로 혼동하는 경우는 올바른 의미를 전해야 하며, 자세히 설명하거나, 또한 혼동하지 않게 설명할 것, 나아가 환자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표현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용어별로 실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생검(生檢)’이라는 용어가 있을 경우, ‘병리검사’, 혹은 ‘병리진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거나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할 경우 ‘환부의 일부를 떼어 내어 현미경 등으로 조사한다’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그래도 환자가 불안해 할 경우는 무엇으로 조직을 떼어 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²²⁾

유형A로 분류된 용어들은 인지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듣거나 보게 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환자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어들로는 ‘イレウス(이레우스), エビデンス(에비덴스), 寛解, 誤嚥, 重篤, 浸潤, 生検, せん妄, 耐性, 予後, ADL, COPD, MRSA’를 들고 있는데, 이 중 ‘エビデンス(evidence)’의 경우, ‘증거’라는 일상적인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증거’라는 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때에는 ‘이 치료법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증거로서, 약이나 치료방법, 검사방법 등 의료의 내용 전반에 대해,

그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형B로 분류된 용어들은 인지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지도에 비해 이해도가 낮거나 지식이 불확실한 것, 혹은 다른 의미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올바른 의미와 확실한 지식을 혼동 없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말이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명확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ウイルス(virus)’의 경우 ‘세균보다 작아 전자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병원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말 중에 그 의미가 대략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신체나 병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悪性腫瘍, うっ血, うつ病, 黄だん, 化学療法, 肝硬変, 既往歴, 抗体, ぜん息, 尊厳死, 治験, 糖尿病, 動脈硬化, 熱中症, 脳死, 副作用, ポリープ’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용어는 알려져 있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일상적인 용어의 의미와 달라 혼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설명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合併症, ショック(쇼크), 貧血’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 중 ‘ショック(shock)’를 예로 들면, 이는 일상에서 단순히 ‘깜짝 놀란 상태, 갑자기 충격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쇼크, 쇼크 상태’라는 말을 들어도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쇼크’ 혹은 ‘쇼크 상태’라는 용어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중대함이나 위험성을 전할 수 있는 말, 이를 테면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된 상태로, 생명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와 같은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형C로 분류된 용어들은 인지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거나 인지도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것이지만, 새롭게 등장한 중요한 개념이나 사물로서 일반인들에게 보급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개념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용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타카나로 된 긴 단어나 영어의 약자를 사용하는 것은 외우기 힘들 뿐 아니라 알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순화어나 간결한 설명을 항상 첨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예로는 ‘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인폼 드 콘셉트), セカンドオピニオン(세칸드 오피니언), 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 クリニカルパス(클리니컬 패스), QOL, 緩和ケア(완화 케어), プライマリーケア(프라이머

22) <http://www.kokken.go.jp/byoin/>

리 케어), MRI, PET'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쉬운 용어로의 순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유형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행정용어와 병원 전문용어에 관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어의 경우 용어 자체를 바꾸는 단계에서 그 용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에서 공공언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있는 한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한자가 표기에서 사라지면서 과거 일본에서 받아들인 용어를 과감하게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해부학과 같은 고유어화가 비교적 쉬운 분야에서만 결실을 맺고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공공언어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자에 대한 집착이 일본의 공공언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정리 및 앞으로의 제언

일본어의 시급한 현안은 한계까지 이른 한자 사용,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난 외래어 증가와 남용, 공공언어의 난해함, 커뮤니케이션 장애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발견되는 것이다. 언어 정책은 언어학적인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일반인의 의식 또한 중요하는 점에서 문화청 조사와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 연구의 경우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언어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 여론 조사에서도 확인한바와 같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현안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조사로는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식 조사와 함께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확인한바와 같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언어 개선을 위한 구체안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병원 등의 조사에서 보듯 각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中國의 言語政策과 言語調査

1. 들어가는 말

고유의 언어를 가진 세계 각국은 민족 구성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언어정책을 추진하여 공통어를 제정하고 어음, 문자에 관한 규범화를 진행한 다. 또한 언어와 문자는 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언어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생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각 방면에 대한 언어사용실태 조사와 통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조사는 언어정책의 추진과 전환에 직접적인 재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언어계획을 정권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언어문자 계획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보통화를 전국에서 통용되는 공통어로 제정하고 보통화의 학습,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을 추진하며 어음, 문자, 어휘 방면의 규범화에 힘써왔다. 보통화 보급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도 중국의 언어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가 조사, 발표되면서 중국의 현대 언어생활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언어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 예로 2007년 조사 발표된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언어조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 2007》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세계 언어와, 더불어 경제시장의 글로벌화는 중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회 흐름 속에서 국내의 언어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언어생활 문제를 연구하며, 과학적인 언어법칙을 제정하는 것은 언어자원의 보호와 개발, 그리고 언어생활의 조화와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는 이러한 목적과 의의 아래 실태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언어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언어자원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언어 그 자체와 현실상황에서의 언어사용을 연구함으로써 학계와 사회의 관계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연구기간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 2007년판은 2007년 7월 초 시작하여 2008년 5월 초에 두 번째 원고가 나오므로써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전년도 《报告》의 취약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두 차례의 심층적인 개요수정이 진행되었다.

2007년 전국 각지에서의 언어생활방면의 주요한 사건들이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 연구, 작성에 주된 영향을 미쳤는데 상반기의 관련 사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월 7일 : 교육부와 북경사범대학이 함께 설립한 중국문자정리·규범연구센터의 현판식과 중심학술위원회성립대회가 북경사범대학에서 거행되었다.
- 1월 12일 :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 북경언어대학, 중국전문매체대학, 중국신문기술공작자연합회, 그리고 중국중문정보학회가 함께 “2006년 중국 신문, 방송, 텔레비전 10대유행어”를 발표하였다.
- 1월 16일 : 상해 《咬文嚼字》편집부가 2006년 중국에서 출현빈도가 제일 높고, 전과 범위가 가장 넓은 10대 語文 상의 착오를 발표하였다.
- 1월 16일 - 1월 19일 : 全国科学技术名词审定委员会는 台湾李国鼎科技发展基金会와 함께 타이베이에서 중국과 대만해협의 생물학 명사에 관한 대조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1월 24일 - 1월 26일 :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와 대만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제 4회 两岸四地中文数字化合作论坛이 마카오에서 거행되었다.
- 1월 25일 - 1월 26일 : 절강성 언어문자작업 연도회의가 항주 소산구에서 개최되었다.
- 2월 1일 - 2월 4일 : 제 11회 민족언어문자정보처리 학술세미나가 운남성에서 개최되었다.
- 2월 6일 : 全国名词委教育学科名词审定委员会가 대회를 성립하여 북경에서 제1차 작업회의를 개최하였다.
- 2월 7일 : 국가언어문자작업위원회는 북경에서 제7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2월 8일 : 전국과학기술명사선정위원회를 포함하는 국가언어문자작업위원회는 제111호 화학원소명칭인 “鎢”을 규범용자에 포함시켰다.
- 2월 13일 : 북경대학 전산언어학연구소가 완성한 “综合型语言知识库”가 북경에서 기술감정을 통과하여 각 성과가 2007년도 교육부과학기술진보상 1등을 차지하였다.
- 2월 27일 : 심양사범대학과 세인트조지프대학이 합작하여 건립한 아랍국가 첫 번째 孔子学院이 레바논에 정식으로 성립하였다.
- 3월 6일 - 3월 7일 : 국가언어문자작업위원회가 2007년도 언어문자작업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 3월 9일 : 연합국교육과학문화는 “2007년 국제母语日”경축행사를 조직하여 북경에서 개

최하였다.

- 3월 12일 : 교육부고등교육사는 《关于转发<高等学校大学语文教学改革研讨会纪要>的通知》를 하달했다.
- 3월 22일 : 강서성 언어위원회는 남창시에서 언어문자과학연구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3월 22일 : 전국명사위원회는 환경과학기술명사선정위원회성립대회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 3월 23일 : 중국국제방송국과 국가한어국제보급지도 사무국, 러시아 국립직업사범대학문화교류처는 북경에서 회의록을 공식서명하고, 러시아에 “广播孔子课堂”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 3월 29일 :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소수민족사업“十一五”규획》을 공표하고,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언어문자를 조사, 수집, 연구, 정리하여 少数民族濒危语言文字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3월 30일 : 전국명사위원회는 2007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4월 9일 : 북경에서 공작학원본부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 4월 10일 : 교육부와 국가언어위원회는 《国家语言文字工作“十一五”规划》를 발행하였다.
- 4월 12일 : 내몽고자치구 한어위원회는 2007년도 언어문자작업회의를 개최하였다.
- 4월 13일 : 북경시언어위원회는 북경시 2007년도 언어문자작업회의를 개최하였다.
- 4월 14일 - 4월 15일 : 제1회 중국 언어 및 방언 접촉문제 학술토론회가 복건성 원주시에 거행되었다. 중앙민족대학과 상해사범대학, 하문대학이 공동 주최하고 원주사범학원이 주관하였다.
- 4월 15일 : 제 1회 BCT(商务汉语考试) 시험이 중국 20 곳에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 4월 16일 :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 인터넷언어센터와 商务印书馆, 新浪网이 연합하여 주최하는 “一个字, 一个词, 用汉语描述2006年的中国与世界” 평가·선정 행사가 공표되었다. 또한 “炒, 和谐”가 2006년 중국을 기술하는 키워드가 되었고, “乱, 石, 油”를 2006년 세계를 기술하는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 4월 18일 : 교육부언어문자정보관리국이 주관하고, 소흥문리학원이 주최하는 제2회 “언어와 국가” 고위층 칼럼이 소흥에서 개막하였다.
- 5월 31일 : 내몽고자치구 제10회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제28차 회의에서 《내몽고자치구실태<중화인민공화국 국가언어문자법> 방책》을 통과시켰다.
- 6월 : 国家汉办은 전국 101곳에 “汉语国际推广中小学基地”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 6월 9일-6월 10일 : “세계다원문화구조아래 한어국제보급에 관한 논단”을 동계대학에서 개최하였다.
- 6월 중순 : 하북성 한자용용수준시험 시행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 6월 30일 : 북경언어대학 한어수평고시센터가 연구개발한 C.TEST(실용한어수평인정시험) 면접형 회화시험을 처음으로 정식 시행하였다.

(이하 생략)

2)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 연구의 중요성과 구체적 내용

2007년의 중국 언어생활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진보와 사회발전이라는 움직임에 맞추어 굉장히 생동적이라 할 수 있다. 언어문자작업과 문화·교육·정보화 각 분야와의 결합으로 사회는 과거에 비해 더욱 세련되어졌으며, 언어자원 이념의 점진적인 수립과 함께 그것을 이용하고 개발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끊임없는 토론과 조치는 그 위력을 부단히 증대시켰다. 本土언어와 現實언어생활은 학계와 사회의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언어연구와 언어문자작업의 방향은 더 넓은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언어문자문제는 사회의 끊임없는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해내의 중국어의 점진적인 조화와 교류를 통해 중국어의 국제적 전파 효과가 현저하게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언어문자위원회(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가 제기한 ‘조화로운 언어생활 구축(構建和諧語言生活)’이라는 목표는 광범위한 동의와 호응을 얻고 국제적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내 언어 특징과 그에 따른 연구 중요성을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언어자원관념의 점진적 수립

언어태도는 언어 관념에 그 기초를 둔다. 언어를 사회교류와 인류화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한다면 언어의 소통과 통일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즉, 한 가지 통용어를 보급하거나 세계에서 몇 가지 통용되는 언어를 지정한다면, 혹은 통용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몇몇의 언어 및 그 방언의 쇠락과 소멸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언어를 ‘자원’으로 삼고, 인류의 중요한 사회자원·문화자원·경제자원으로 본다면 이러한 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적극 힘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위협에 처한 언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언어를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는 언어의 소통과 동일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일체화되어가는 추세는 날로 뚜렷해지고 있으며 특히 교통과 통신 발달로 인한 컴퓨터 인터넷의 빠른 확대와 발전으로 영어는 그 언어적 지위를 더욱 견고히 했다. 이처럼 몇몇 주요 언어가 그 위치를 보존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세계 대다수의 언어는 쇠퇴와 위기의 길로 향해 가고 있으며 이들 언어가 말고 있는 문화 역시 쇠퇴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지는 정보기술을 따라 수많은 언어관련 사업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새로운 언어직업이 생겨나면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언어자원의 문제는 근래에 들어와 더욱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와 다섯 개 부서가 2004년에 건립된 이래로 학계가 제출한 언어자원의 개념이 국가언어 계획 수립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구센터는 대규모 유통되는 언어재료를 분석하고, 평면·유성·인터넷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교육도구 등으로 사용되는 언어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와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 2005》,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 2006》을 통해 언어생활이 이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9월, 북경어언대학에서 열린 ‘국가언어자원과 응용언어학 논단’에서 학자들은 방언과 문자를 포함한 모종의 언어는 모두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그 언어는 인류의 역사를 기억하고, 동시에 문화 창신과 언어발전의 기본요소와 내재된 구동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로, 백여 년 동안 한민족과 중화민족 전체의 편리한 정보교류를 위해 국가통용언어(國語, 普通話)의 보급에 힘써왔고 외국어 학습과 세계와의 소통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신중국이 민족평등정책을 표방한 이래, 보통화 보급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각 민족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민족 간 언어관계처리가 비교적 적합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중국의 언어자원보호와 개발은 인류의 언어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지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방언학자와 민족 언어학자 그리고 사회언어학자는 대량의 언어조사를 통해 언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몇몇 언어 혹은 방언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였으며, 이 시점에서 응당 이러한 다양한 언어 현상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06년 국가언어위원회가 제정한 언어문자용 ‘十一五’ 과학연구계획은 동시에 중국 언어 및 방언의 현실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중국언어재료유성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다매체언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수립하기 위해 신세기 언어조사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언어생활에 대한 사회의 중시 증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언어문제가 발생하고 언어 사이에 충돌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는 언어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그로써 언어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생활에 주목하고, 중국 본토의 언어와 언어생활을 연구하며 언어생활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근래에 들어와 현실언어생활이 세계와 사회의 주된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의 인터넷매체부서와 商務印書館, 그리고 新狼網이 2년 연속으로 인터넷상에서 ‘한 글자, 한 단어로 중국과 세계를 표현하기(用一个字一个词描写中国

与世界)’행사를 하면서 네티즌과 사회의 큰 호응을 받았던 사실과 ‘조화’ 및 민간생활, 환경과 상관있는 단어(예를 들어 炒、漲、民生、亂、油、石油、全球變暖 等)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와 북경언어대학 등은 오랫동안 유행어를 연구, 발표하여 언어생활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통화와 방언의 관계, 보통화와 각 민족 언어와의 관계 그리고 모국어와 외국어의 관계, 간화자와 번체자의 문제, 한어 병음의 응용문제, 이중언어 교육문제 등 언어생활의 전통문제는 여전히 사회의 주관심사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생활의 형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① 이민언어문제 : 근 20년 동안, 대형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민 바람이 불어왔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보통화 보급은 가속화되었고 이민자들의 언어 관념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또한 이민 지역사회의 언어생활에서 새로운 상황들이 출현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언어자원의 보호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민자들의 언어상황에는 그들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예로 2007년 말, 이미 122.8만 명에 도달했던 三峽 댐 공사를 위한 이민자들 중 광둥성과 강소성에서 옮겨간 이민자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조상의 땅은 버릴지언정 조상의 말은 버리지 않는다(寧丟祖宗田, 不丟祖宗言)”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여전히 자신들의 고유한 방언을 주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대외적인 교류 시에는 사투리 발음이 강한 ‘지방보통화’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어왔던 이민현상은 客家語 등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듯이 다양한 방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② 올림픽과 세계박람회의 언어서비스 : 2008년 제29회 베이징 하계 올림픽과 제13회 장애인올림픽, 그리고 2010년 세계박람회는 중국으로서는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는 우수한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구한 중화의 문명과 풍부한 언어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다.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위하여 세운 언어계획은 국제적인 실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의 특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북경올림픽의 경우 언어 환경 조성면에서는 북경 당국의 올림픽 홈페이지에서 中, 英, 法 3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림픽 경기장 및 경기 활동과 관련 있는 곳마다 55개의 언어서비스와 5000여 명에 달하는 서비스 지원자를 제공하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장소 영문번역표시를 체계화 하는 동시에 북경시에 있는 중요한 공공장소마다 247,608개에 달하는 영문표지판을 세우기도 하였다.

상해세계박람회는 일찍부터 언어계획문제를 중요시 하였다. 상해 당국의 세계박람회 홈페이지는 현재 중(간체와 번체)·영·일 3개 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上海世博》잡지는 중·영 2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상해세계박람회국이 10여만 명의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현재(조사당시) 신청자만 이미 1.6만 명에 이르렀고, 기획·처리 작업 및 번역과 문자 등 언어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원자 참여자는 약 500명에 달했다. 올림픽과 세계박람회의 기획과 준비를 표명하는데 있어서 언어서비스는 이미 국가발전에 있어서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③ 휴대폰언어문제 : 중국은 1998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개통하였고 보급률 41.6%에 달하는 5억 여 명이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중국의 휴대폰 문자 발송량은 5921억 건으로 휴대폰은 이미 명실상부 ‘제5매체’로 자리매김했다. 보통화는 문자 발신의 주된 사용언어로, 방언은 주로 유머나 조소의 효과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2004년 중국은 처음으로 소수민족언어문자 휴대폰을 출시함으로써 소수민족언어문자는 그 후 다방면에서 중시되기 시작했다. 핸드폰은 현재 다양한 정보의 전송과 신문, 일기예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중이며 휴대폰 문자언어는 언어생활의 새로운 부분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휴대폰 관련법의 개선과 표준글꼴의 제정이 진행되고 있고 핸드폰 글자체의 인성화와 휴대폰 기능의 확대 등 문자정보화의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④ 소수민족언어문제 : 중국에는 30여종의 소수민족언어가 있으며 그중 몇몇의 언어는 국외의 주체적인 민족 언어로, 외국어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데 그 예로 조선어(한국어)와 몽골어 등을 들 수 있다. 소수민족언어의 상황을 이해하면 관련 있는 사람들의 소수민족언어 학습과 사용을 도우며, 국내외 동종언어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언어문자 협조 작업은 주변과의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고 국가적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몇몇의 소수민족 언어는 일정수량의 해외학습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티벳어와 몽골어를 들 수 있다. 사회는 이러한 해외학습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만 한다.

⑤ 홍콩, 마카오, 대만의 언어생활 :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언어생활은 중국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역사적 원인에 의해 ‘다언어’ 생활권을 형성했다. 이 두 특별행정구역은 보통화의 학습과 사용을 지지함으로써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큰 의미에 있어서의 중국이라는 가정의 구성원으로 정보와 언어적 권리를 누리도록 하였고 동시에 다언어의 공존을 보장하여 이들의 언어와 방언이 서로 다른 생활 영역 안에서 오랜 시간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홍콩은 최근 홍콩 외국 민족 후손들의 언어교육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해결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 네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홍콩 외국 민족들의 후손이 《中国语文课程补充指引(非华语学生)》을 제정하여 준비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래에 대만의 언어생활풍조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만 당국은 ‘중국어화 배제’한다는 정치적 책략을 통해 언어정책방향을 여실히 드러내 표현하고 있다. 2007년 교육당국은 ‘대만역사학회’에 위탁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과서에서 실린 ‘사용하지 말아야 할 낱말’을 걸러 선별하였는데 예로 “国父、国画、国字、国剧、中日(甲午)战争、两岸、台湾地区” 등 약 5000여 개에 달하는 단어를 골라내었다. 대만당국은 각 교재출판편집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앞으로 책을 편집할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7년 대만은 이른바 ‘正名’이라 일컫는 활동을 더욱 자주 시행하였다. 중화우체국을 대만우체국으로, 중국석유공사를 대만중유공사로, 중앙은행의 영문표기법 ‘CENTRAL BANK OF CHINA’를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로 고치는 등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다.

언어생활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2007년, 언어생활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술기관이 지속적으로 건립되었다. 교육부언어문자정보관리국이 남경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한 중국언어전략연구센터와 魯東大學과 설립한 한어사수 연구센터, 하북대학이 설립한 현대한어연구센터, 절강대학이 설립한 당대중국어어 연구센터, 상해외국어대학이 설립한 중국외국어전략연구센터 등을 들 수 있다. 특

히 國家言語資源檢測·연구센터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평면, 유성, 인터넷매체와 교육교재 등의 언어실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사회에 다양한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발표하였다. 센터는 일정한 원칙에 맞춰 수집한 2007년 12억字符의 언어재료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예를 살펴보면, 2007년 12억字符의 언어재료 중, 10,123개에 해당하는 漢字가 출현하였다. 사용빈도에 있어서, 언어재료의 前595자는 80%를 차지했고, 前964자는 90%를, 그리고 前2,394자는 99%를 차지하였다. 이는 과거 발표된 《현대한어사용자표》 및 《현대한어통용자표》와 비교해 봤을 때, 글자의 수량과 종류에 있어서 모두 일정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금 사용되는 글자의 상황에 근거하여 이 두 자료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007년 12억字符의 언어 재료 중, 2,301,553개 종류의 단어가 출현하였다. 사용빈도에 있어서 12,676개 단어가 언어재료의 90%를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총 2,705개의 字를 사용하는 것으로 언어재료 종류 통계 총수의 26.72%에 해당된다. 이 230여 만 개의 단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명사가 98.23%로 제일 많았으며 그중 96%이상이 인명과 기관명, 지명 등 고유명사 및 시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사는 0.78%, 형용사는 0.24%, 그리고 기타품사가 0.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자료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유명사는 언어운용중 제일 자주 보이는 품사로서, 언어정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책임을 맡고, 언어처리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과 상관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2005, 2006, 2007년 삼년의 언어재료 통계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사용되는 글자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 빈도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千字萬詞(한자 약 1000자, 단어 약 10000개)”가 거의 언어재료의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언어재료 데이터베이스의 설립과 언어통계기술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언어생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미 그 성과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千字萬詞”는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글자와 단어의 핵심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또한 현대정보수단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영역별 언어상황에 대한 관심 유발

언어생활은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생활 각 방면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사회영역마다 각각의 언어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문자 사용의 중점사항 및 현황, 언어문자문제처리, 제한된 언어정책과 언어규범 제정 등 다양한 사항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각각의 사회영역에서의 언어운용의 좋고 나

뿐, 언어문제해결의 타당여부는 사회질서와 작업품질, 뿐만 아니라 언어생활의 조화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학자들이 언어영역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하며, 사회 각 영역의 언어생활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더 나아가 언어지위계획, 언어본체기획의 기초위에서 영역을 나누어 언어기능기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친진, 상해, 절강성 등 많은 지역들의 보통화양성시험센터에서 마침 업종의 특성에 따라 언어의 양성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보통화양성시험작업이 실제생활과 더욱 적합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대학학보는 언어연구 전문칼럼을 만들어,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가 언어생활방면에 대해 사회관심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교육영역 : 교육은 모국어문화의 명맥을 전승하고 모국어 수준을 높이는 기본 토대이다.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는 인민교육출판사, 강소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어문출판사 등 네 개의 출판사에 대해 새로운 어문표준교과과정에 따라 출판된 초중등의 어문교재를 다방면에서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수치결과를 얻었다.

본문에서 산문을 주로 사용한 교재는 전체의 76.55%를 차지하였고 또한 본문 내용 중에서 현대문이 85%, 문어문이 1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본문에서 사용한 한자의 종류는 5,069개로 4세트 교재에서 모두 사용된 한자는 3,590개에 달했다. 문자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前1,164개의 한자는 본문 전체 언어재료의 90%, 前1,712자는 95%, 前2,500자 98.21%, 前3,500자 99.60%를 차지하였다. 본문에 나타난 어휘 종류의 수는 50,670개, 4세트교재가 모두 사용한 어휘는 10,460개였다. 단어(词)의 빈도수로 정리하면, 前3,320개의 어휘가 전체본문 언어재료의 80%, 前9,101개 어휘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이러한 수치는 9년 동안 의무교육단계의 어문교재가 반드시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이로부터 어문교재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千字萬詞는 대략 본문 언어재료의 90%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중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한자 및 단어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또 다른 예로,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재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차이는 비교적 작으나,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는 비교적 큰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아마 한자의 양에 대해 어문표준교과과정에는 명확한 요구가 있는 반면 단어에 관한 요구는 명확하지 않음에 있다. 그리고 아마 본문 편성 시 언어요소에 대해 면밀한 고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② 대중매체 영역 : TV방송은 보통화 어음의 모범이기 때문에, 보통화보급과 사회언어문자 응용에 있어 중요한 본보기 역할을 한다. 신흥 대중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크다. 인터넷 영역은 언어사용 특징에 따라 신문, 블로그, BBS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7년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

에서 24억 규모의 인터넷 문자부호를 통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신문의 언어사용은 일반매체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반면에 블로그와 BBS의 언어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사용한 한자의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신문에서는 9,353개, BBS 12,326개, 블로그 12,995 종류의 한자가 출현하였다. 블로그에서 확연히 가장 많은 한자가 사용되었고, BBS가 그 뒤를 이어, 두 매체의 문자 사용량이 일반매체의 사용량을 넘어섰다. 빈도수에 있어서, 前625 자가 인터넷 언어재료의 80%, 前1,059자 90%, 前2,777자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일반매체에서 사용하는 한자보다 집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BBS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높은 빈도수의 한자종류는 비교적 적으며 ‘높은 빈도수의 한자는 집중해서 사용, 낮은 빈도수의 한자는 분산되어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용하는 단어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신문의 어휘 종류는 1,353,754개, 블로그 587,585개로 이는 인터넷 신문의 어휘 전달력이 블로그보다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에서 동시에 보여진 어휘의 종류는 1,679,708개로 대략 일반매체어휘 종류의 70%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이 표현력에 있어서는 신문 등의 일반 매체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③ 법률 언어 : 법률언어는 입법언어와 사법언어 등을 말하며, 사회언어생활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법률언어의 상황은 입법의 질적인 측면 및 사법의 공정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이는 언어권리를 포함하는 공민 법률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가의 법제건설 및 법치국의 국정 방침에까지 관련되어 있다. 입법 언어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법률공작위원회는 2007년 7월 입법용어규범화전문가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07년에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기업서득세법》 등을 몽고어, 티벳어, 위구르어, 하사크어, 한국어(조선어) 등 소수민족문자로 나누어 번역하여 출판하고, 이로써 소수민족의 법률언어권을 보장하였다. 사법 영역에서는 많은 지방들이 사법언어규범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홍콩, 마카오 두 특별행정지역들은 법률언어 본토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마카오특별행정지역을 예를 들자면, 1989년 법률번역사무실 성립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법률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葡中法律词汇(포르투갈-중국어 법률 어휘)》를 편찬하고, 법률분야의 2개 국어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자 하였다. 비록 마카오가 지금까지 중문입법을 완전히 실행시키지 못하였으나 2007년에 이르러서는 중국번역본 ‘五大法典’ 뿐 아니라 웬만한 법률조문을 알맞게 번역, 완성하였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종심법원(終審法院)에서 중국어-포르투갈 두 언어 혹은 중문으로 안건을 심의·재판하고, 결정한 것이 30 건에 해당하는데 이는 금년도 판결 안건의 79%를 차지한다. 물론 마카오와 홍콩이 법률언어번역기술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입법언어와 사법언어의 본토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④ 과학기술용어 : 과학기술용어는 과학 영역 언어생활의 중요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용어규범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여회를 풍부하게 하며 사상문화를 전승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 2006년부터 전국과학기술명사선정위원회가 경제무역, 경제학, 환경, 목축수의학, 교육학, 법학, 사회학 등 7개의 과학분야 위원회를 새로 조직·보급함으로써 인문·사회학과의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70여 개의 분과명사선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선정 과정에 참가한 전문가는 3,000여명에 이른다. 2007년에 들어서서 통신관련 과학기술 명사 2,104개, 생태학관련 명사 3,414개, 번역학관련 명사 1,727개를 공포하였으며 2007년 말에 이르러서는 명사총집 79부를 출판하였다. 다년간의 노력으로 해협 양안과학기술명사 대조는 통일작업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9편의 兩岸(대만과 중국)명사 대조본도 출판되었다.

국제용어의 본토화, 본토용어의 국제화, 중국 전통과학용어의 분류와 번역, 인문 사회과학용어의 규범화, 과학기술용어전문인재의 양성 및 학과설치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용어작업은 중시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많은 과학기술용어들이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에 진입함에 따라 오늘날 언어생활은 ‘百科化’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용어 규범화 역시 대중언어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⑤ 사회서비스영역 : 사회서비스업종은 언어사용의 광활한 터전이며, 서비스 대상에 따라 직업성질이 결정된다. 中國民航業에서 보통화를 기본 서비스 언어로 삼은 근래 몇 년 동안 多言語, 多方言 서비스 역시 분명한 발전이 있었던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海峽兩岸春節專貫機, 廈門航空公司와 中國國際航空公司는 모두 閩南語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방항공공사와 중국국제항공공사는 보통화와 영어 이중 방송 외에도 상황에 따라 한국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中國) 기차교통서비스는 대부분 보통화를 사용하지만 특별히 靑藏鐵路는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 안, 기차역의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티벳어, 한어, 영문 세 개의 문자로 쓰여 있다. 이 외에도 대외거래시장 역시 다언어 서비스가 필요한 장소이다. 北京秀水市場의 상황을 보자면 구매상담원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보통화이지만 때때로 중국어 방언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고객을 응접할 때 99.5%는 영어를 사용하고 그밖에 순차적으로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등을 사용한다. 구매 상담원 대부분 모두 여러 종류의 간단한 외국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10여종의 외국어 문장을 간단하게 응용하여 구사 할 수 있다.

이 밖에, 서비스 업무 중에서 사용되는 언어, 예를 들어 전화자문업무, 술집전화서비스, 상품의 문자 및 상품설명서, 길 표지판, 상점 간판 등에서 맹목적인 외국어 사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여 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맹목적인 외국어

사용은 국민의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국어에 대한 친근감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처럼 많은 사회영역의 언어생활에서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규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일수록 각 영역의 언어계획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어규범의 세밀화와 수정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4) 사회의 쟁점이 된 몇 가지 언어문제

① 영어이외의 외국어열풍 : 외국어 교육 중에서 영어 이외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열풍’은 크게 세 가지 현상에서 보였다. 첫째, 시험응시열풍. 2007년 北京語言大學, 中國傳媒大學, 廣東外語外貿大學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기타언어’에 응시자 수가 예전에 비해 1.5배에서 심지어 2배까지 증가했다. 둘째, 학생 모집열풍. 2006년 전국고교에 20개의 영어이외의 외국어 전공이 신설되었고, 43개 종류에 달하는 대학 언어전공 신입생 모집도 이루어졌다. 셋째, 양성열풍. ‘기타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양성기구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북경에서 여름 기타언어 양성반 모집 정원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上海는 인재배양과정이 부족한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등 8종류가 있다. 하얼빈시의 ‘기타언어’ 양성학교는 20여개나 된다.

외국어 역시 국가의 중요한 언어자원이다. 중국은 영어학습의 대국이나, 언어종류로 보면 오히려 외국어자원은 부족한 국가이다. 관련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미래 발전에 근거하여 외국어어종에 관한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외국어전문의가의 상황을 조사해봤을 때, 효과적으로 비영어 외국어의 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② 허위광고 : 허위광고언어는 2007년 중국 광고언어의 큰 이슈이다. 2007년 중앙TV방송국 ‘3.15연회’에서는 허위광고를 강하게 폭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衛生部, 國家工商總局, 國家光電總局,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및 여러 지방행정부 등이 이를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허위광고의 주된 문제로는 잘못된 정보, 저속한 풍격, 언어규범 위배 등이 있다. 상품유형별로 보자면, 보건용품, 약품과 의료기기의 광고에서 주로 언어허위광고가 발생한다. 2007년 廣告新聞網에서는 ‘허위광고’라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250여 개의 허위광고가 수록하였다. 그 중 보건용품, 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구 등이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위법광고 절대다수가 허위언어 보급, 품격저하 등의 문제를 지닌다.

③ 신조어 : 신속한 사회발전, 빈번한 문화교류, 사상관념의 활성화, 전체적으로 높아진 사회문화수준, 빠르고 다양화된 전달수단, 이전에는 없던 교통통신 발달로 인하여 신조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생산되고, 빨리 전파된다. 신조어는 대중의 어휘창고에 들어가, 순식간에 전국곳곳으로 전파되어 사회유행어가 된다. 신조어는 구조상 중국어의 전통습관에 부합하거나 자모나 숫자 등 특수방식을 쓰기도 한다. ‘k 客吧, u盤寄生蟲, 3之3幼兒園, π型人才’ 등과 같이 신조어 구조는 눈에 띄어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신조어에 대한 사회의 포퓰러 관점을 결

정짓는다.

《中國語言生活狀況 2006》에서는 2005년 매체와 네티즌의 폭넓은 의견에 입각하여 엄선한 171개의 신조어를 사회에 공포하였다.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조어가, 어휘가 낯설고,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어 언어의 자격으로 쉽게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신조어는 언어생활의 실태이며, 사회는 이러한 실태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조어를 기록하는 것은 곧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언어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어휘는 큰 학습의 장이며 신조어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긴다. 지금까지 신조어에 대한 뜨거운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신조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신조어의 사회공포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는 논란이 많은 화제 중 하나이다.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는 컴퓨터 반자동채택방식을 사용하여, 2007년 신조어를 조사하여 신조어 표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내었다. 첫째, 다음절단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3음절어는 37.00%, 4음절어 28.74%로 이 둘을 합치면 65%를 넘는다. 둘째, 단어들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유추의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愛邦族, 幫幫族, 畢婚族, 眼吧, k客吧, 手工吧, 淘客, 試客, 翻新門, 國旗門”과 같이 “~族, ~客, ~奴, ~友, ~門, ~吧, ~日” 등 비교적 많은 종류의 접미사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는 27.55%를 차지했다. 셋째, 명사성 표현이 90.3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컴퓨터를 통해 자동적으로 신조어들이 나타나지만 아직도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조어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④ 중국어의 국제적 보급 : 중국어의 국제적 보급은 다년간 사회이슈가 되었다. 2007년 11월 國家漢辦은 국제 중국어교사양성을 위해 《国际汉语教师准》, 《国际汉语能力标准》을 발표하였다. 규범표준건설은 중국어국제교육의 기본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2007년 3월 30일, 國務院學位辦은 《汉语国际教育硕士专业学位设置方案》에 관한 통지를 하고 이어서 중국어국제교육석사전공학위교육지도위원회를 만들었다. 첫 번째로 설치한 중국어국제교육석사전공의 시범학교는 이미 24곳으로 1,000여명의 학생모집을 계획하였다. 아시아에서 온 시범학교 유학생의 수는 72.47%를 차지하며 중국정부초청장학생은 10,515명에 이른다. 중국에 온 유학생 숫자 및 학생지원 국가와 지역 숫자는 신중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족과 국가차원의 측면에서 보면, 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관심을 갖는 언어화제는 언어 ‘문제’, 언어자원, 언어권리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큰 화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토의식, 국제적 안목이 필요하

다. 소위 말하는 본토의식은 본국 언어연구의 전통과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며, 본토 언어 상황과 문제를 이해, 그리고 본토언어생활의 조화를 촉진시키는데 노력을 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적 안목은 곧 국제 언어생활 및 그 언어규범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본토언어생활을 자세히 관찰하고, 동시에 본토경험의 국제화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리하는 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언어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언어자원개념의 중요성과 언어를 보호하고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中国语言生活状况报告》와 같은 언어조사 보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시기별로 언어정책의 내용을 정하고 추진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보고서에서는 언어보급과 서비스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북경 올림픽과 상해 세계박람회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계점과 중요성을 동시에 제시했으며 그것을 통해 언어서비스 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통화와 외국어간의 소통문제 해결 과제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조사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통계·분석자료 비교하고, 언어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언어의 상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중국어와 華語, 그리고 기타방언 및 외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움직임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언어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3동 827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10년 10월 29일
발행일	2010년 10월 30일
인쇄	씨오엠